

교육개발

1995

통권 98호

특집

교육개혁 현실화 방안 탐구(Ⅱ)

이용숙/박재윤/임연기/류호섭/정택희/조석희

권두칼럼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인간의 조건/이영덕

알아봅시다

학교폭력의 현주소/김준호

학교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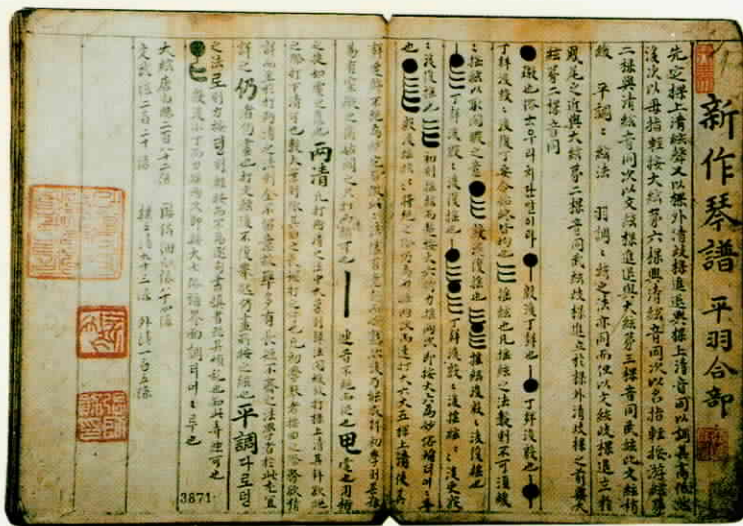
평민을 기르는 학교, 풀무원농업고등기술학교 /임선하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발

교육자료정보본부 편집특임부 TEL (02) 572-5021(426), FAX (02) 574-0848



학제의 사진

신작금보 (新作琴譜)



17세기로 추정되는 조선시대의 거문고 악보인 '신작금보'는 서첩(書帖) 모양으로 되어 있어 접고 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기존의 악보가 한문으로 쓰여진 정간보(井間譜) 체계인데 반해, 신작금보는 한글로 '당', '다', '당스랭당' 같은 실제 소리나는 구음(口音)으로 토를 달아 악보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음의 조음(調音)에 있어서 평조(平調) 삭대엽과 우조(羽調) 삭대엽에서 각각 초삭대엽(初數大葉) 이삭대엽(二數大葉) 삼삭대엽(三數大葉)으로 음의 체계를 이룬 것 역시 신작금보의 성과라 하겠다.

- 자료제공 : 청주대학교 박물관
- 사진 : 정태호
- 자료해설 : 손영주

교육개발

1995. 11

교육개발 1995. 11/통권 98호/1975년 8월 25일 등록
등록번호 마-574/1995년 10월 30일 발행/적월간
발행인·이돈희/발행처·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우편번호 137-791
대표전화 572-5021, 5121/인쇄처 국립교과서주식회사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유통실험요상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발행인/이돈희
- 출판심의위원장/류삼태
- 출판심의위원/강종훈, 김주훈, 박영숙, 박인중, 양미경, 정택희
- 편집책임부장/남미영
- 기자/손영주



- 1 ● 화제의 사진
신작금보(新作琴譜)
- 4 ● 권두칼럼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인간의 조건/이영덕
- 7 ● 한국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16
한국차의 전통/민길자

- 10 ● 시론
교육자치법, 개정인가 개악인가/남정걸
교육자치제에 관한 시각/서정화

- 19 ● 알아봅시다
학교 폭력의 현주소/김준호

- 22 ● ▲ 승의 한마디
사료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이성무

- 25 ● 특별기획

교육개혁 현실화 방안 탐구(Ⅱ)

- 수준별 교육과정의 현실화 방안/이용숙
-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박재윤
-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방안/임연기
- 교육개혁 내용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혁 및 추진/류호섭
- 국가 멀티미디어교육 지원센터의 기관 성격과 설립 방안/정택희
- 영재교육은 과연 활성화될 것인가/조석희

- 57 ● 학교탐방

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학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임선하

62 ● **문화광장**

민족혼 드높인 음악의 선각자
-채동선의 음악세계- /한상우

65 ● **연구보고**

특수학교 학급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이나미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과 연수방안 연구/최운실

73 ● **잠깐정보**

인터넷 V - World Wide Web - /유길상

79 ● **연구동향**

- 교과서 난이도에 대한 이해/양미경
- 영국의 정보 교육 동향과 그 시사/정성무 · 이희수
- 학교 조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학교를 새롭게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양승실
- 교육적 지식을 얻는 일/조정우

103 ● **외국교육 소개**

- 북한교육의 발전과정과 최근의 개혁동향(2)/손계림
- 일본 국민학교의 하계미 학습/박영숙
- 싱가포르 직업 기술 교육 동향/이정표

122 ● **KEDI 연구뉴스**

126 ● **시 · 도 교육연구원 활동**

이달의 명상

겨울/이재분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인간의 조건

이 영 덕 (정신문화연구원장)

공업화가 몰고 온 산업사회를 성숙시킨 현대(modern period)는 많은 부(富)와 생활의 편리를 인류에게 가져다 준 반면 도덕적 아버지가 없는 아노미 현상을 낳게 하여 혼란과 분열 및 온갖 분쟁으로 가득한 세계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서구인들이 믿었던 이성(理性)과 합리주의(合理主義)는 경제적 번영과 함께 평화로운 사회질서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도덕적 기준의 상실 속에 인간상실을 결과케 했다. 인간이성의 산물인 과학과 기술도 그것이 공헌한 효율과 편리보다는 오히려 대량학살을 위한 가공할 도구를 불안해진 인간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전쟁이 연이어 일어났고 끝없는 무기경쟁은 과살의 시대(an age of overkilled)를 만들어 놓았다. 사람들이 인간가치가 전도(顛倒)된 세계에 살게 된 결과이다. 실존철학자 칼 야스퍼스(Karl Jaspers)가 말하는 가치전도된 현존재질서의 세계가 된 것이다. 야스퍼스에게 현존재는 오늘의 심리학에서 분류하는 신체적·물질적 요구에 해당한다. 인간의 기본욕구를 신체적 욕구, 지적 욕구, 사회적 욕구, 도덕적 욕구, 종교적 욕구로 나눈다면 신체적 욕구는 인격형성에서 가장 표피에 해당되는 욕구이고, 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도덕적 욕구와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적 욕구는 인격의 성숙과 긴밀히 연관된 심층적 욕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치전도된 현존재질서의 세계라면 물질만능주의적 소유욕의 충족과 병적 쾌락 추구 속에 부정, 부패, 불의 그리고 모든 비인간적 내지 반인도적 행위들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음을 뜻한다.

인간의 모든 기본 욕구 영역에서의 만족추구 행동이 인격구조의 표피에 해당하는 동물적 욕구 충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곧 인간이 동물과 다름 없는 수준으로 타락했음을 말한다. 인간의 인격이 동물수준에 머물 때 대규모 인간학살과 비인간적, 반인도적 인간학대가 자행된다.

우리 나라에서 뼈아프게 경험한 큰 구조물들의 붕괴와 패륜아적 부모 살해 사건



들과 온갖 부정·부패 현상들의 공통된 하나의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가치전도된

현대사회의 병든 도덕 질서에 있는 것이다.

이 현대의 병든 도덕성을 건강한 것으로 회복시키는 일, 전도된 가치질서를 원상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오늘 인류가 성취해야 할 긴급 과제이다.

토플러(Alvin Toffler)나 벨(Daniel Bell) 등 미래사회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이제 세계는 현대 또는 산업사회의 시대를 지나 후기산업사회 혹은 후기현대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들 한다. 후기현대에는 전시대에 비해 더 급속한 변화, 더 많은 지식 성장, 더 많은 이질성(異質性), 그리고 더 많은 물질적 부를 경험하게 되고, 한편 더 많은 부를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공산이 높다. 교통 통신의 혁명적 발달로 나라들 간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나라들 간의 교호작용은 더욱 밀접해져 문자 그대로 지구촌을 이루게 된다. 하나의 지구촌에서 역사적 배경과 생활양식이 각각 다른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 있기에 세계의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화합해서 사는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도 생활배경도 언어도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 화합해서 산다는 것이 말은 쉬우나 그 실현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가 길다고 하지만 그 긴 기간 동안 학습한 공동체 생활능력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다른 민족 국가들과의 화합은 고사하고라도 한 민족 안에서 심지어는 한 가족 안에서도 온전한 하나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계상황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여 한 지구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고는 인류의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변화의 속도가 완만했던 초기산업사회와는 달리 모든 것이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서 가치질서를 회복하고 인간성을 되살리는 일은 더욱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구촌 시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인간의 조건으로
 계속적인 지식의 학습능력과 지식 생산능력을 위하여
 급변하는 사회에의 적응능력 등 중요한 학습과제를 외에,
 보다 근원적인 생존능력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적 생활능력을 배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회복을 위한 새로운 가치질서의 확립이 모든 개혁노력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은 뒤로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인류의 생존적 과제이다.

이 전도된 가치를 회복시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도덕적·종교적 욕구충족을 위해 다른 수준의 욕구충족 활동이 모두 동원되는 새 질서의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격변화에 효능 있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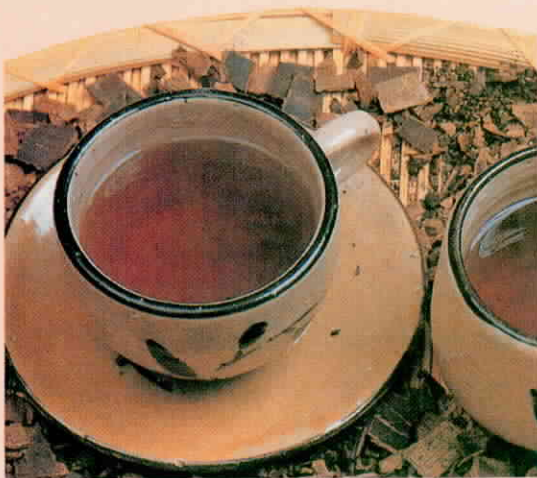
이미 지적된 지구촌 시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인간의 조건으로 계속적인 지식의 학습능력과 지식 생산능력을 위하여 급변하는 사회에의 적응능력 등 중요한 학습과제들 외에, 보다 근원적인 생존능력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적 생활능력을 배워야 한다. 다양한 배경과 이질적 가치체계 속에서 자라고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일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소망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이른바 공동선 혹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찾아 내어 그 보편적 가치를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내면화시키는 작업이다. 인간들은 이념에서 가까워지고 가치 추구에서 서로 갈등되지 않을 때에만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나라들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이에 기초한 도덕적 행동 기준을 정립하여 그것을 교육의 가장 중심된 내용으로 번역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진실로 잘 사는 한국인의 육성을 위한 길이며, 교육의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감당해야 할 세계화 시대의 사명인 것이다.

그리고 전도된 가치의 회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종전의 교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의존하던 제한된 교육학적 이론체계를 크게 뛰어 넘는 광대한 새 이론체계를 필요로 한다. 학습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성심리학, 카운슬링, 정신분석학, 언론학, 사회학을 포함하는 광범한 사회과학, 문화, 종교 등 인간의 삶과 인격 성장 및 변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학문 영역에서의 공헌을 모두 동원한 새 패러다임의 창출 또한 긴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한국차의 전통

민 길 자



차(茶), 담배, 커피, 술 등은 즐거운 일, 괴로운 일들이 수시로 엇갈려 일어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극도의 경우를 면하도록 신이 배려한 기호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담배는 폐를, 술은 간을, 커피는 정신을 상하게 한다고 하여 과용을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도 잘못 사용하면 인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와 같다고 경고한 문헌기록도 있어, 결국 이 네 가지 기호품은 의지(意志)가 바로 선 사람에게는 영약(靈藥)이고, 의지가 흐트러진 사람에게서는 독약이 되는 것이다. 기호품은 사람에게 없어도 될 것 같으

나 아주 없이는 생활이 너무 메마르다. 각 사람의 체질과 인성에 맞추어 잘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는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는 우리 나라에서 야생차 나무가 산에서 자라고 있고, 또 재배도 많이 하고 있어 마시는 대로 생산하면 되는 것이니 부담이 없다. 그리고 기호품 중에서도 차는 체질적으로 아주 맞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로 큰 탈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돗물을 정수하면 무기질까지 걸러져 무기질을 섭취 못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차에는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있어 그와 같은 염려를 덜어 주게 된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나라에서는 차가 아주 오랜 가락국시대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 불교통사」에서 이능화는 “김해 백월산에 죽로차가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수로왕비 허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661년에 수로왕비 15대 방손인 신라의 문무왕이 술과 차를 갖추어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선덕여왕 때(632~646) 이미 차를 마셨고, 흥덕왕 3년(828)에는 김대령이 차 종자를 들여와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차, 커피, 담배가 유럽에 들어간 것이 6~11세기인 것을 상기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차를 마신 것은 유럽보다 1000년은 앞선 것이 된다.

「삼국유사」에는 충담 스님이 삼화령 미륵세존께 차를 달여 공양한 기록이 있어 차가 불가의 공양물이었던 사실도 나타난다.

「삼국사기」 열전의 설총조에는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고…”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차가 정신을 맑게 하는 음료로 알려져 있었던 까닭이다.

고려시대에는 연등회, 팔관회 등 불교행사에서 차를 마셨다. 그 외에 「고려사」에는 신하들의 상례 때 임금님이 차를 부의로 내린 일, 왕이 행차 때에 80세 이상 노인에게 차를 내린 일, 태후·왕비·왕자의 책봉 때도 차를 배풀고, 공주가 혼인을 할 때에도 차를 배풀었다. 그 외에 고려 숙종 9년(1104)에는 가

물에 비를 비는 행사에 왕의 어의와 차를 봉공한 일이 있다. 「고려도경」에는 고려에서 사신을 맞아 궁중에서 다례를 베푸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차를 거란에 보낸 일, 송나라, 원나라에서 차를 받은 일들, 고려시대에 차에 대한 기록은 너무 많아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억제한 까닭으로 사찰이 쇠퇴되며 차를 마시는 일도 쇠퇴하게 되었다고 하나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보면 왕이 태평관에서 중국사신에게 다례(茶禮)를 행하는 기록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다.

태조가 외우를 당하여 있을 때 신하가 차와 과일을 바친 기록도 있다. 고려 때와 같이 왕이 노인들에게 차를 하사한 기록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세종 3년의 기록에는 예조에서 산소에서 차를 쓰고 술을 쓰는 것을 금한 기록도 있다. 그리고 「茶時」라는 기록이 많은데 이것은 하루에 한 번 궁에서 모여 차를 마시는 일을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궁중 외에도 선비와 스님들이 차를 마셨다.

丁茶山과 草衣 스님과 같은 명인들로 차를 마시는 일이 이어졌으며, 초의스님은 「東茶頌」을 쓴 바, 오늘날 차의 경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엽차(葉茶)를 사용하고 있으나 신라에는 말차(가루차)가 있었고 고구려에는 병다, 곧 떡차가 있었다. 조선시대 이후 근간까지 전라도 지역에서는 돈차(錢茶)라고 하여 동전 모양의 덩어리 차를 만들어 끈에 꿰어 매달아 놓았다가 달여 마셨다고 한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다도(茶道)에 가루차를 사용한다. 중국에서는 노인차, 신선차라고 하며 우롱차를 사용한다. 우롱차는 차엽을 반정도 발효시켜 독특한 향기가 나는데, 이는 중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차이다.

영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홍차는 차엽을 완전 발효시킨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녹차를 사용한다. 차엽을 솔에 볶아 명석에다 비벼서 말리는 일을 거듭하여 제조한 것인데, 오늘날에는 기계로 많이 제조된다.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생

활화하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합치되어 차를 마시는 동호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사람들이 서로 만나 차를 베풀고 받는데 있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의 행동문화에 기초한 일정한 규범을 정하여, 그 규범에 따라 차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 지역 저 지역,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하여 차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생겼던 1980년대에 명원 김미희 선생을 중심으로 한 명원다회에서는 「생활다도 정립 발표회」를 가졌다. 본시 우리나라의 차생활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모든 먹는 일 중에서 가장 먼저 예를 갖추어 차를 베푸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불가와 선비들은 정신을 맑게 하는 도의 한 경지에 다다른 차생활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차생활은 다례(茶禮), 다도(茶道)로 간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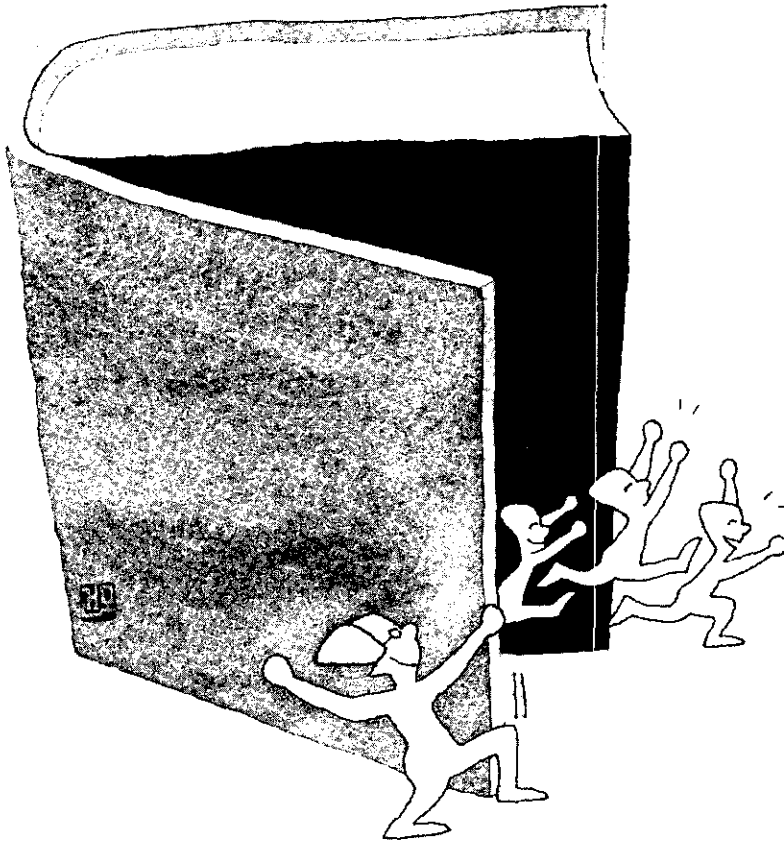
차를 바람직하게 마시고 베풀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살려 오늘에 바람직하게 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보람이 있어 오늘날 차를 찾아 기호음료로 삼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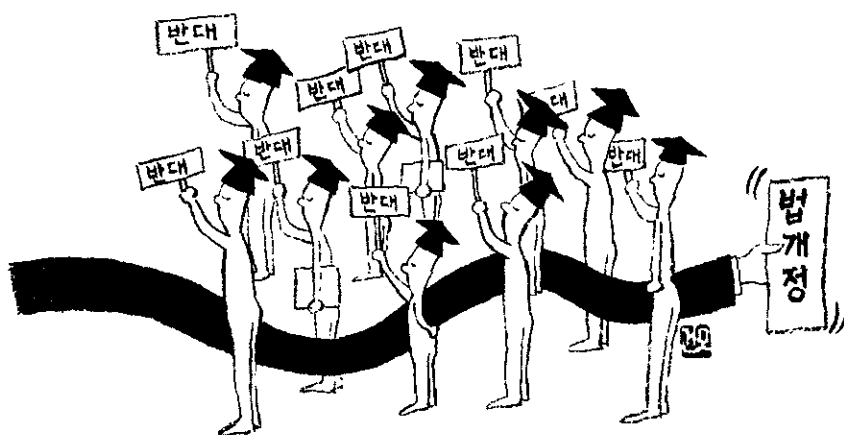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공학박사)
- 국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한국차생활사 연구 (I), (II)의 다수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개발」을 통하여 현장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법, 개정인가 개악인가

남 정 걸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한 교육부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더구나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라고는 하지만 종래의 자문기구와는 달리 강력한 추진기구까지 갖추고 있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을 직접 받게 될 목표집단인 교육위원과 교육감, 그리고 관심 집단인 일선교육계와 교직원체 및 전문가로부터 제각각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들이다.

교육자치법은 시행에 앞서 이미 문제가 예견되었던 것이었으며, 이것이 시행 4년만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즉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교육위원회의 위상문제와 교육위원의 선출 방법, 그

리고 교육감의 선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나타난 것도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하고 개정하려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개정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야지, 문제를 더 증폭시키거나 더 불합리한 것이라면 그것은 개정이라기보다는 개악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받는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교육을 국가에 의뢰한 학부모와 전체 국민에게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새롭고, 기발하고, 충격적인 것이어서는 안되고, 현실을 토대로 적절한 과정을 거치면서 (reform as process) 합의적으로, 충격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문제해결적인 것이라야 한

다. 뿐만 아니라 무릇 개혁안은 이상과 현실과의 조화나 균형점을 모색하는 점에서 이루어져야 집행과정이 순조롭고, 따라서 그 성과가 보장된다는 것은 하나의 공리이다.

교육자치제의 이상과 이념은 무엇인가? 지방 자치는 지방교육자치를, 따라서 '교육을 위한 지방자치' 또는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를 의미한다고 볼 때 교육자치의 이념은 민주성과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성의 이념은 '교육자치'라는 복합개념에서 '자치' 즉 지방자치를 보다 강조한 것이고, 전문성은 '교육'에 보다 중점을 둔 이념이다. 그런데 민주성의 이념은 실제로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형태로 나타나고, 전문성의 이념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교육의 자주성 존중)과 전문적 관리로 구체화되어 실시된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이와 같은 이념과 원칙을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말을 바꾸면 이들 이념과 원칙은 교육자치의 문제를 진단하고, 법·제도적 장치의 모순을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가 되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방향타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초점인 교육위원회제도와 교육감제도를 살펴보자.

지난 4년간 가장 열띤 논쟁을 일으켰던 것이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현행 교육위원회의 성격이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를 교육 학예라 약칭함)에 관해 심의한 바를 광역구인 시·도의회에서 의결

하도록 되어 있다. 의결권이 없이 심의만 하는 것은 조례제정권과 예산안과 결산 및 특별부과금이나 분담금 등 주민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따지고 보면 교육자치제의 의결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권과 재정권이 박탈당한 것이고, 지방의회의 선심기관(先審機關)이거나 지방의회의 일개 상임위원회의 특별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제출한 안을 시·도의회는 전체회의에 회부하기에 앞서 교육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교육자치제가 의결권과 집행권을 분리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이원구조(二元構造)로 되어 있는 본 뜻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육위원회를 완전 의결기관화하여야 한다는 그 동안 열망해 온 교육계의 요구를 전혀 외면한 채 여전히 심의·의결기관으로 놔두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규칙 제정권을 독차지하지 않고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교육감에게도 인정하듯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교육위원의 선출과 교육감 선출에 관한 것이다.

우선 교육위원 선출은 현재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가운데에서 시·도 광역구 의회에서 선출하는 이중 간선제에서 오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교육전문가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광역구 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선출인단에서 선출한 위원, 그리고 시·도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

육전문가란 국·공·사립학교의 교원 경력, 교육행정기관·사회교육기관의 교육행정 경력 및 전문요원 경력 등이 10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한편 시·도 의회의원으로서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비율은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그리고 교육위원의 정수는 각 시도의 규모에 따라 현재 7~2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7~15명으로 축소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서 교육경력직을 사회교육기관까지 확대한 것과 교육위원의 정수를 줄인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문제는 선출위원의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이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단위 학교의 운영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금년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성공의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기구이다. 따라서 아직 정착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성격마저도 5·31 교육개혁안에는 심의·의결기구로 하기로 하였으나 교육부는 심의기구로 변질시켰을 정도로 아직 불확실한, 그리고 그 목적도 단위 학교의 운영을 위한 기구인데 교육위원 선출에 관여케 하는 것은 문제시 된다.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대부분 각 정당의 내천자(內薦者)로 구성된 기초의회 의원과 당적(黨籍)을 가지고 당선된 광역구 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교육전문가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커다란 침해요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동안 교육계의 열망과는 정반대로 시·도 의회의원을 2분의 1 미만까지 겸직케 하는 것은 교육자치라는 근본 이념과 원리에 비추어 보거나 권력구조상, 그 주도권은 정치적 속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들 겸직위원에게 기울게 되

고, 결국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예속시키거나 흡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더구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선출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타 선출직을 겸하지 못하게 하는 관례와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주민 직선이라야 한다. 그러나 그럴 경우 대다수 국민들이 얼마나 교육위원 선거에 임할지, 그리고 그 의 선거 관리상의 어려움과 경비지출 등의 비능률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대학총장의 선출에 이르기까지 현재 '민주주의=직선제'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일반적 정서도 문제인 것이다.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일반 지방자치와는 달리 광역구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광역구의 교육위원이므로, 기초의회의 추천 없이 광역구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단순화하여야 한다. 현행제도는 기초구에서 실시하지 않은 교육자치를 보완하는 의미를 살리려고 기초의회에 추천권을 주다 보니까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간에, 그리고 선출된 교육위원은 시·도 전체 교육의 조화와 균형적 발전보다는 출신 지역의 이익에 집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교육감에 관한 개정안이다. 현행 교육감 선출시 후보 등록이나 추천과정 없이 교육위원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은 첫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대립시킨 현 체제에서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가 독립계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직접 선출한다는 것은 교육감의 위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당연하다는 것과 둘째, 이를 접어둔다 하더라도 비등록·비추천으로 해서 교육감 선출의 전과

정이 공개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두번째 문제인 선출과정에 관한 것이다. 즉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2인, 시·도 의회 의장이 1인, 교육위원회 의장이 1인, 교육부 장관이 1인을 지명하여 구성된 5인의 교육감 후보 추천회가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 가운데 1인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후보추천위원 5인 가운데 지방의 일반 행정기관과 의회에서 3인, 그리고 중앙의 교육부 장관이 1인을 지명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명만이 교육위원회 의장 몫이다. 시·도지사나 지방의회 의장은 정치인이고, 교육부 장관은 정부직으로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교육자치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지방의 특수성을 보다 우선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심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추천을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당선된 후 교육감은 자기를 추천한 집단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힘들게 된다.

교육감 후보 추천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일선 교육계나 교육단체와 교육행정계 및 교육학계를 제쳐둔 것은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왜냐 하면 교육위원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방의 교육발전을 위해 각계 각층을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지역 인사로서 일반인이나 교육에 문외한이어도 되지만 교육감의 경우는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행정의 전문가로서 교육의 전문관리자이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가장 잘 아는 교육계 인사를 후보 추천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다.

무릇 선출직이란 자격요건을 갖춘 불특정다수

(不特定多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추천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 동호인 클럽이나 친목단체 또는 소규모 조직이 아닌 한, 자유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교육감의 선출은 후보등록에 의한 당당한 공개 과정을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흔히 입후보 등록지의 경우 명망있는 인사가 낙선을 우려하여 등록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명망과 능력이 있는 인사라면 주위에서 추대하여 등록시킬 수도 있으며, 입후보한 인사라고 해서 교육감으로서 기피인물일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런 인사는 당선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명칭을 교육장(教育長)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잘 된 일이다. 교육감과 교육장의 명칭에 차등을 두는 것도 문제가 되지마는 이왕에 그 명칭을 쓸 바에야 교육감을 교육장으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했어야 했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주장이다. 이는 교장과 교감과 의 관계를 보면 쉽게 이해될 뿐 아니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장인 한 그 직함은 당연히 '어른' 장(長)자를 붙여야 한다.

이상 교육자치의 이념과 원칙에 입각해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이원적(二元的) 기관분립형(機關分立型) 제도를 전체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 하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은 현실의 법이면(法理面)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1961년 5·16 군사 구테타 이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같이 중지되었지만, 1964년 교육자치만은 교육위원회 제도로써 부활, 중단된 일반자치와

의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대행해 왔다. 이어 1991년 30년만에 일반자치가 부활함과 동시에 현행 교육자치제도 역시 지방자치와의 연계하에 운영되고 있고 그 연계성의 합리화를 찾기 위해 지금 지속적인 개편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하자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의 기본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보면 일반법과 특별법 또는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제1조). 따라서 종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자치기관을 구성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는 위임형 특수행정기관의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은 법리상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사항인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정법(實定法) 논리로 보면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는 분리될 것이 아니라 합의제 집행기관이라야 타당하다. 그래서 종래 교육위원회 제도는 시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분리시키지 않고 기관 통합형인 합의제 집행기관이었던 것이다. 이상적인 이념적 측면에서 주장하듯이 교육

위원회를 완전 의결기관화할 때, 동일한 자치단체에서 두 개의 의결기관이 존재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위원회에 의결권을 위임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지만 그간의 과정을 지켜 보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간에 그리 쉽게 합의하기가 힘들 것 같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교육감단, 교육위원회 의장단의 반대와 교직원체인 한국교총과 전문가들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처럼 이번 적용의 직접대상이 되는 이들 목표집단과 관심집단의 동조 없이 법이 개정된다면, 그 법의 효과는 반감되고,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고 해서 또 다른 개정작업을 거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비록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를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정안이 되도록 각계의 정당한 의사표시와 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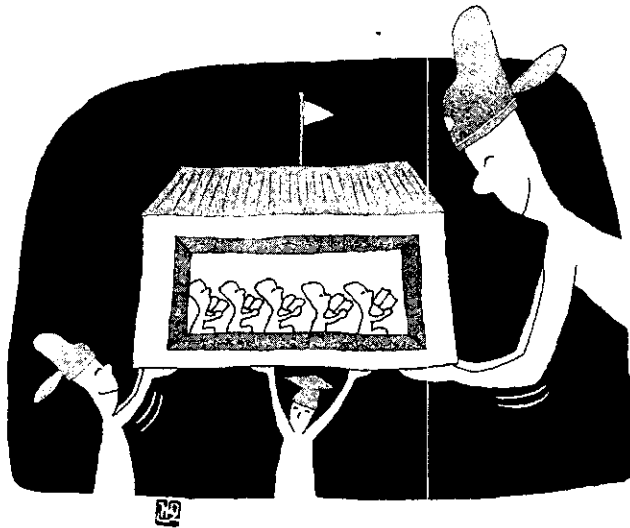


남정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단국대학교 교수
- 「교육 행정의 이론」, 「교육조직 행위론」, 「사회교육 행정론」 외

교육자치제에 관한 시각

서 정 화



I

근자에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지난 8월 초에 각 지역 교육청과 교육개혁위원회 주최로 대구, 전주, 서울 등 지역에서 3차례에 걸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8월 말 공청회를 통해 관련 집단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주로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교육위원회 구성 및 교육감 선출 방식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것으로

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기 위해 통합적인 운영형태를 취하자는 입장과 교육의 특수성,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실 상부한 교육자치제 실시를 위한 장치를 확고하게 하자는 입장이 그것이다. 대체로 전자(통합형)의 경우, 내무부를 비롯하여 일반직 관리들과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일부 교육학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후자(분리형)의 경우 교직원체를 비롯해서 일선 교원들과 많은 교육학자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듯 지방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기구를 통합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운영할 것인가 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깔고 있어서 교육자치제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대안

제시도 꽤 다르게 제안되고 있다. 두 가지 관점 모두가 나름대로 타당성과 장·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다.

먼저, 현재와 같은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수행으로서는 시대적인 요청과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틀을 구안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성격에 관해서 통합형의 입장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시키되, 교육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 전권을 주어 독자적으로 결정케 하자는 것이다. 한편, 분리형의 입장에서도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위원회가 전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위원의 선출 방식(2중 간선제)은 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보장이 미흡하고 또 절차상 번거러울 뿐 아니라 비리가 개재될 소지가 있고 낭비적 요소가 있으므로 교육위원을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사무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자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 교육세' 부과 등을 통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 소유 부지를 학교부지로 확보해 주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 재정원에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새로운 교육자치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원칙 설정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교육자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고도의 정치적인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교육위원회, 교육부, 내무부, 청와대, 교직원단체, 관련 부처와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뿐 아니라 당정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극단적 측면을 선택하기보다는 이것과 저것의 장점을 최대한 절충하고 살릴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함으로써 교육자치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구현해 나가게 될 것이 예상된다.

II

앞으로 새로운 교육자치제의 틀을 짜고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장치가 마련되도록 한다. 사실, 그 동안 교육자치제 운영은 단위학교 운영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이른바 '교육행정기관 중심' 운영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없지 않았다.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사실 교육위원회의 위상이나 기능이 어떤 형태가 되든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실제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직접적인 영향이 실감나게 와닿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자치제 운영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이 밀접하게 연계될 뿐만 아니라 교육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중앙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천하도록 조장해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 업무를 중앙부처로부터 지방교육행정기구 및

단위학교에 실질적으로 이양함으로써 다양한 지역교육 계획의 수립·실천이 이루어지게 하여 지역간 교육경쟁력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육행정 운영에 관한 일관성과 효율성이 견지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행정적·법적·재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5·31 교육개혁안 발표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GNP 5%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관계 부처에서 마련하여 1996년까지 3년간에 걸쳐 9조 4천억원을 교육 부문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교육재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몫이 확대되어 원활한 재정확충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간에 어떤 형태로든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이 존중되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활동의 본질과 특수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지닌 교육전문가가 교육위원으로 선출되는 동시에 일부 지방의회 의원이 교육위원이 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III

이와 같은 원칙을 전제로 놓고, 통합형과 분리형의 입장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통합형에 대해서이다. 지방의회에 지방교육 자치기구를 두는 통합형으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가 강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비절감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때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예속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의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 이렇게 될 때 교육에 대한 지원이 담보되지 못한 채 자칫 간섭만 초래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교육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자치 신화(神話)'에 대한 교육계의 일반적인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교육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회에 통합시키지 않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다만 예·결산 등을 포함하여 주민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은 시·도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면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도의회에 '문사위원회'와 같은 교육에 관한 별도 기구를 두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분리형에 대해서이다. 분리독립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신장할 수 있고 교육의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꼭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성격전환을 해야만 교육·학예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분리독립형을 위할 경우, 이른바 '교육자 자치'만 계속 고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내는 데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 될 수가 있다. 앞으로 교육자치와 일반행정과의 연결고리를 실제 운영적면에서 밀접하게 맺어 놓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체의 업무 추진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 수 없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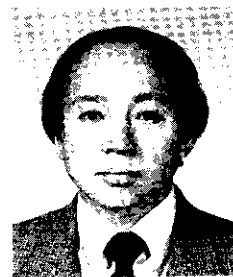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중등교사 봉급 지원을 단절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육위원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아무런 연계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지원·협력을 얻어 내기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에서와 같이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주민직선으로 교육위원을 뽑아 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직선에 따른 부작용도 문제지만 유능한 교육전문가가 선출과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와 같이 예·결산뿐만 아니라 교원채용, 교육과정 편제나 운영, 심지어 학생개개인의 퇴학 문제까지도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정도도 아니고(우리의 경우 단위학교 중심으로 이미 내려가 있는데) 이를 다시 끌어 올려서까지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기구를 잘 활용하여 교육위원을 선출하여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전문가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시·도 단위 교육자치체가 정착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경우 점차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 선출에 있어서 주민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할 경우 2중 간선제 못지 않게 낭비적 요소가 많고 선거운동에 따른 제반 부작용과 정치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교육감의 경우 지역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교육감을 초빙할 수 있도록 '교육감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민주적이고도 공정하며 자율적인 선출 절차를 거쳐 적격한 후보를 추천해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 교육위원회 의장, 교육감(출마시 직전 교육감),

지방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 의장, 교육부 장관 등이 지명하는 사람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 기준을 마련, 공개하고 교육자치와 일반 자치, 중앙정부 등과의 연결고리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누구나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자치제도는 없다. 경쟁시대에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단위학교 교육을 살리고 잘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아무리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의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이 적으면 채택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또 외국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정서와 토양, 그리고 수준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방식과 너무 거리가 먼 이상적인 제도는 변화의 폭이 커서 관련 집단이나 교육수요자들에게 충격을 주게 될 경우,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자치는 교육계 요구와 정서를 반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교육행정과의 협력 및 지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현실 인식하에 교육의 자주성을 담보하면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밀접한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 마련에 그 초점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㉞



서정화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홍익대학교 교수(기획실장)
- 「교육인사행정」 외

학교 폭력의 현주소

김 준 호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포함한 청소년 문제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해방 이후 수차에 걸친 정치적인 혼란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통해 60년대의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났으나 물질만능, 한탕주의 등 사회적인 역기능 또한 증폭되었다.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에 대한 관심은 파행적인 교육환경을 불러 왔으며, 여기에 더해 주변석개로 바뀌는 입시제도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으로 빠져들게 했다.

그러나 '성적이 행복의 전부이며, 공부를 잘 하는 것이 곧 효도'인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녀들 중 75%의 학생들은 4년제 대학에 갈 수가 없는 데도 그들에게 주어진 건전한 놀이장소는 전무한 상황에 더하여 학교 주변에는 물지각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유해환경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만 가고 있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청소년 문제가 없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소년 범죄와 비행의 실태를 보면 이러한 문제의 현주소를 잘 알 수 있다.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청소년 범죄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범죄통계가 집계된 1963년 이래 현재까지의 청소년 범죄의 발생건수가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상

대적이 비율은 약 10% 안팎으로서 그다지 변동이 없다. 물론 전체범죄가 같은 기간 동안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 역시 절대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물론 절대적으로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비행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각한 청소년 범죄는 절대적 빈곤과 많은 상관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감소 현상은 우리 나라 청소년 범죄의 주 원인이 가난이라는 절대적 빈곤에 기인하는 단계에서 벗어났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의 흉포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강력 범죄에서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는 40%, 많게는 70%를 웃돌고 있으며, 그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는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흉포성이 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면,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는 양적인 증가 현상이 뚜렷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에 단속된 청소년에게 금지된 장소인 유흥장 출입, 음주, 흡연, 혼숙 등의 지위비행과 싸움, 흥기소지, 환각물질 사용 등의 청소년 비행의 증가 추세는 우려를 자아낸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2년에 발생한 청소년 범죄 건수는 10만 건에 못 미쳤으나 위와 같은 청소년 비행은 약 27만 건 발생하여 거의 3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증가 추세를 보면 5년 전인 1988년에는 9만 6천 건 정도 발생하였으나 1992년에는 27만 건으로 3배에 달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 범죄에서는 뚜렷한 저연령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청소년 비행에서는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청소년 비행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소는 학교 주변의 폭력화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 나라 학교 주변의 폭력범죄 피해조사를 통해 알아보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폭력피해를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발생한 금품갈취, 폭행, 협박으로 나누어 서울에 거주하는 5,538명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1989년 9월 ~ 1990년 9월) 금품갈취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249명으로 전체 응답한 학생의 22.6%에 이

른다. 특히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하여 약 1.5배 정도 더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약 5배 정도 더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과 협박을 당한 비율은 금품갈취보다는 약간 적으나 15%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폭력범죄 중 하나라도 피해를 입은 학생은 36.1%이며 특히 남자 중학생은 56.8%로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학생이 폭력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남학생에 비하여 떨어지나 성적 피해 경험을 합하면 거의 비슷하다.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강간 등의 성적 피해를 입은 비율은 37.8%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대부분이 성적 희롱이나 가벼운 추행이라고는 하나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전체 학생의 약 50%가 폭력피해와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폭력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고작 5% 미만이며,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지매 역

폭력 범죄 유형별 피해를 당한 비율

유 형	전 체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금품 갈취	1,249 (22.6%)	855 (25.9%)	729 (40.7%)	126 (8.4%)	394 (17.6%)	353 (28.7%)	42 (4.2%)
폭 행	766 (14.1%)	435 (13.4%)	374 (21.1%)	61 (4.2%)	331 (15.1%)	300 (24.9%)	31 (3.1%)
협 박	854 (15.8%)	524 (16.3%)	379 (21.5%)	154 (10.0%)	330 (15.2%)	276 (23.2%)	54 (5.5%)
전 체	1,941 (36.1%)	1,245 (38.8%)	998 (56.8%)	247 (17.0%)	696 (32.1%)	594 (50.1%)	102 (10.5%)

시 연간 2만건 정도라는 사실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범죄피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다각도에서 접근하여 학교 주변 폭력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제도적인 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학원폭력방지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대다수(98%)의 학생들이 폭력피해를 당하고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학교에 신고한 학생도 6%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가 44.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하나 그 다음이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27.2%), 다음이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13.2%)라는 점을 보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학원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학교와 학부모가 연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조사 결과를 보면 금품갈취는 주로 학교 길 학교 주변의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자녀 지키기 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을 전개하여 어머니회나 교사들이 학교 근처 으슥한 골목길을 지키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상당 수준의 범죄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용산 전자랜드, 청계천 전자상가, 대학로 등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면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험 전후에 답안을 보여 달라면서 협박과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시험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을 주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심한 폭행에 사용되는 장소가 학교마다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러한 장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예방책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 예방과 더불어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제나 사회봉사명령 등의 제도와 병행하여 정착처분 대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진공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들이 만든 사회에서 그들은 성장하며 배운다. 따라서 성인들이 건강한 사회를 먼저 만들기 전에 이러한 예방을 위시한 대응방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른들이 앞장서서 향락문화, 폭력문화를 이땅에서 추방하기 전에 학원 폭력이 없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김준호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
- 형사정책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청소년범죄연구실장)
-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사료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이 성 무

박사논문을 쓸 때의 이야기이다. 논문 지도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내신 한우근 선생님이셨다. 논문의 주제는 조선시대의 양반. 선생님께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의 체계를 잡는 일에 참여하셨고, 조선사회를 양반관료제 사회로 규정하셨다. 따라서 조선시대 양반이 어떠한 계층이었는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이 주제를 내게 맡기셨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양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일단 양반에 관한 자료를 대충 챙겨서 급한대로 글을 써 내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관계 글들을 모두 내게 청탁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여름방학 때 일이다. 나는 <조선초기 양반연구>라는 주제로 박사논문 초고를 써 가지고 선생님을 방문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아직 정규 박사과정을 거친 제자의 박사논문을 심사해 본 경험이 없으셨다. 그래서 더욱이 당황하신 듯하고 철저히 시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다.

여름방학이 거의 지날 무렵에 전화를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논문을 자세히 읽으신 모양이다.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에 가서 논문을 밤새껏 축조심의해 보자고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페이지마다 문제되는 부분을 카드에 깨알같이 적어 오셔서 하나하나 지적하셨다. ‘상당히’, ‘완전히’, ‘틀림없이’라는 부사에서부터 논지의 근거자료 유무·적부를 날 날이 캐물었다. 종합적으로 이 논문은 근거가 불충분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많다고 결론지으셨다. 그리고 빠져 있는 근거 자료는 철저히 찾아 넣고 과도한 표현이나 주장은 고쳐야 한다고 하셨다.

이 때 하신 말씀 중에 “사료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역사서술을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다. 만신창이가 되도록 혹독하게 비판하셨지만 이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는 동안 좌우명으로 여길만한 중요한 말씀이셨다. 역사연구 태도의 중요한 측면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논중에 필요한 자료는 거

- 서울대학교 사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문학 박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한국학 대학원장)
- 「한국의 과거제도」,
「조선 초기 양반연구」 외



의 구절마다 다 찾아 넣고 자료의 내용이 근거로서 모호한 부분은 또 다른 자료를 동시에 제시하였다. 6개월 후에 학위논문은 무사히 통과될 수 있었다.

세상에 어느 선생님이 이 같이 제자의 글을 면밀히 읽고 지도하시는 분이 있을까? 들을 때는 곤혹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선생님의 말씀은 학문하는 사람에게서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었다. 그리하여 그 뒤에 쓰는 글에는 많은 원전주식이나 해설을 새까맣게 붙이는 버릇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연구에서 실증은 매우 중요하다. 실증이 빠진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실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증의 훈련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실증사학은 일세 관학자의 식민사관이라고 몰아친 광복 이후의 한국 역사학계의 풍토가 실증을 도외시하게 하였다. 일세학자들의 실증사학의 내용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이 사품에 실증조차 박살을 내서는 안될 것이다. Ranke의 실증사학이 역사해석을 소홀히 했다거나 지나치게 정치사 중심이어서 제국주의 이론에 이용될 소지가 많았다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인 역사서술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역사철학과 사회과학이 발달하면서 역사학은 위기에 처해 있다. 역사철학에서는 실증사학이 해석과 법칙을 도외시 했다고 맹공하고, 사회과학은 역사학을 분할해 가고 현재의 문제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역사학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역사학은 편역된 사료에 매달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는 허무맹랑한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역사학은 불필요한 것이며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사료 없으면 말 못하는 것이 역사학의 맹점이기는 하지만 사료를 통하여 근거를 가지고 서술하는 것이 반대로 역사학의 강점이 아니겠는가? 가상이나 이론만을 앞세워 만사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허구가 아니겠는가?

근래 역사학에서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론이나 주의·주장을 앞세우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광복 이후 제대로 실증의 훈련을 받을 겨를도 없이 서구이론의 홍수 속에서 자기상실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 역사학의 실정이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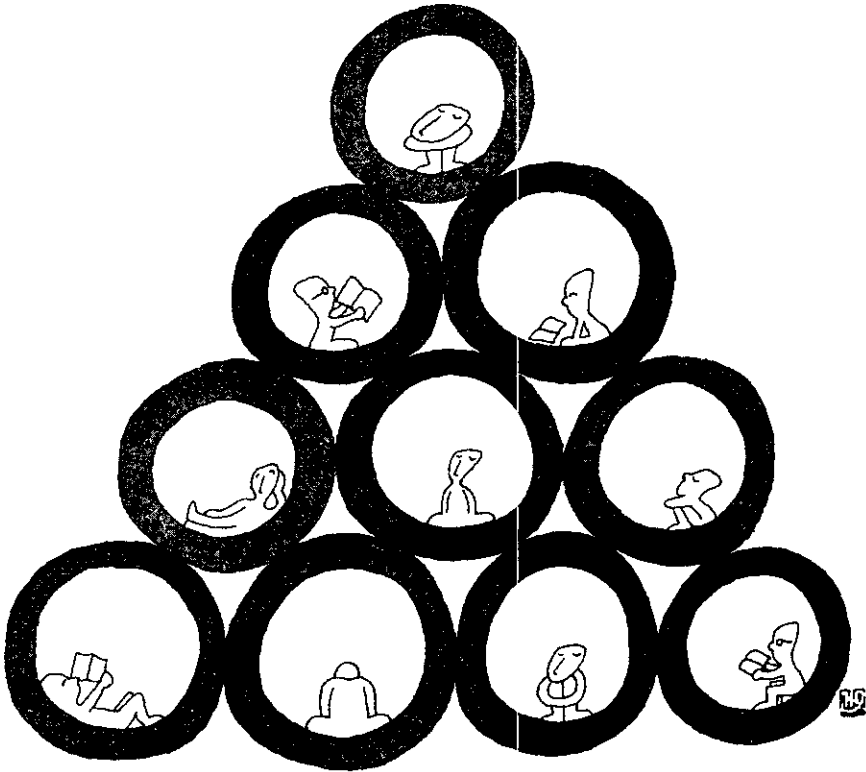
수 없다. 역사학도 역사학의 본령이 있는 것이고, 그 본령은 사료와 실증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본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실증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료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 자칫 논증으로 끝난다는 말처럼 들리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본래 사료는 말이 없다. 그렇지만 사료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일정한 주장을 도출할 수 있다. ‘말하게 한다’라는 뜻은 곧 역사의 해석을 의미한다. 역사를 해석하여 일정한 논술을 하게 마련이고 이것이 축적되어 일정한 일반이론이 도출되게 마련이다. 먼저 이론을 내세우고 그 이론에 맞는 사료만을 적출하여 그 이론을 합리화하는 연역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료를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의 연계 속에서 일반이론을 도출하는 귀납법적인 방법이다. 서양사람들은 연역법적인 방법을 선호하지만 동양사람들은 귀납법적인 방법을 선호한다. 양자가 일장 일단은 있겠지만 역사학의 경우는 귀납법적인 방법이 적절하다. 역사철학이나 사회과학은 연역법적인 방법을 택한 편이다. 역사학의 성격상 역사의 해석은 귀납법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선생님의 말씀은 실증적인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납법적인 역사해석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석이 있기 전에 철저한 실증을 통한 사실의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다. 실증 없는 사실의 확인이 있을 수 없고 사실의 확인 없는 올바른 역사해석이 뒤따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선생님의 말씀은 간단하지만 현대 역사학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나는 글을 쓸 때마다 이 말씀을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도 늘 이 점을 강조하곤 한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몸소 후진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말씀만이 아니고 실제로 모범을 보이시고 지금껏 건강하게 저술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계속 많은 연구를 하시어 후진들이 따르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

교육개혁 현실화 방안 탐구(Ⅱ)



이용숙/박재윤/임연기/류호섭/정택희/조석희

수준별 교육과정의 현실화 방안

이 용 숙



· 서울대학교 미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인류학 박사)
· 본원 교육과정연구부장
· 「수업방법」, 「교육과정개혁 국제비교연구」의

머리말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관련 개선안의 일환으로 ‘필수 과목 축소, 선택과목 확대’ 및 ‘정보화·세계화 교육내용 강화’와 함께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교육개혁위원회 내에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 골격을 마련 중이다. 이 중 수준별 교육과정에 관해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수준별 교육과정은 상당히 폭 좁게 정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교육개혁 실무작업반이 제공한 “교육개혁, 문답으로 알아본다”에 제시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우열반 수업과의 차이?’에 대한 답변은(교육월보, 1995년 8월호, pp. 61~62)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수준별로 편성된 교과목을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이동식 수업을 통해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생마다 과목별로 그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교과목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양분하여 모든 과목을 별도의 반에서 학습시키는 우열반 수업과는 그 목적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다. 이 답변에 의하면, 수준별 교육과정은 ‘과목별 이동식 우열반 수업’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거나 교과목 자체가 수준별로 편성되어야만 ‘수준별 교육과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특별기획

교육개혁 현실화 방안 탐구(Ⅱ)

그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과목이나 학교·급, 학년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같은 과목, 같은 학년에서도 동시에 두세 가지 유형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수준별 교육과정의 요소가 현재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국내·외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제시하도록 한다.

제 6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수준별 교육과정

우리 나라의 제 6차 교육과정에서도 수준별 교육과정의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1995년부터 적용) 수준별 교육과정의 요소가 별로 없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1996년부터 적용) 처음으로 부분적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의 영어, 제2외국어, 수학, 한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은 과목은 'I'과 'II'의 2개 수준으로 과목 설정을 하고 있다. 이 중 체육, 음악, 미술은 체육과 예술에 관한 전문교과 중에서 학생의 필요와 수준, 지도교사의 확보, 학교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과목을 선택, 지도하도록 하였다. 한편 수학,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영어의 경우에는 'I'의 과목 아래에 공통 필수과목(1학년에서 이수)인 '공통수학', '공통과학', '공통영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개 수준의 과목이 제시되는 셈이다. 즉 '수학 I'이나 '영어 I' 등의 과목은 반드시 '공통수학'이나 '공통영어' 등의 과목을 먼저 이

수한 후에 이수할 수 있으며, '수학 II', '영어 II' 등의 과목은 '수학 I'이나 '영어 I'을 이수한 후에만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수학·영어의 경우에는 'I'·'II'의 과목 이외에 '실용수학'과 '영어회화', '영어독해', '실무영어'가 제시되어 있어, 위에 제시된 과목들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경우 교육부 발간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수자료(교육과정 연수자료 7-93.6)에 의하면, "교과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1~3학년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과목선택이 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pp.312~313)

(예 1) 일반계

공통 영어 → 영어 I → 영어 II

(예 2) 일반계

공통 영어 } → 영어 I → 영어 II
 영어 회화 }

(예 3) 일반계

공통 영어 } → 영어 I → 영어 II
 영어 독해 }

(예 4) 실업계

공통 영어 } → [영어 I]
 영어 회화 } → [실무 영어]

(예 5) 일반계

공통 영어 } → [영어 I] → [영어 II]
 영어 회화 } → [영어 독해]

(예 6) 일반계, 실업계

공통 영어 → [영어 I] → [영어 II]
 [영어 회화] → [실무 영어]
 [영어 독해]

이러한 제 6차 교육과정의 편성은 제 5차 교육과정에 비해서는 훨씬 개방적인 것이다. 제 5차 교육과정에서도 수학 I과 수학 II 등의 구분은

있었으나, '수학 I은 인문계열 학생용, '수학 II'는 자연계열 학생용으로 편성된 것이라 학교나 학생에게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수준별 과목의 개념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 6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는 아직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통교과 이수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준 II'의 과목은 거의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수준별 교육과정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공통필수 과목인 공통수학, 공통과학, 공통영어를 제외하고 보면 과목별로 2단계의 수준만이 제시될 뿐이어서, 학생들의 능력과 필요에 따른 선택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열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수준 II의 과목을 이수하는가 아닌가'의 선택만이 가능하며, 이러한 선택마저 학생의 계열(과정)에 따라서 상당부분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대학입학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중에서 인문계열(과정) 학생들은 모두 영어와 한문을 'II'까지 이수해야 하고, 자연계열(과정) 학생들은 모두 수학과 과학을 'II'까지 이수해야 하는 식의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자연계열 대학 희망자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서 다른 수준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가능성(예 : 의대진학자는 수학을 'II'까지 선택하고, 물리학과 진학자는 수학을 'III'까지 선택)은 거의 없다.

셋째, 전체 204단위 중 특별활동 16단위를 제외한 188단위 중에서 과정별 선택과목(과정별 필수과목에서 제외된 교과중 선택) 8단위와 교양선택과목 4과목 등 12단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통필수과목(70단위)이나 과정별 필수과목(106단위)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12단위도 학생이 아닌 '학교장이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위의 글, p.28),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I'과 'II' 중에서 어느 수준까지 이수할 것인가를 학생 자신이 선택하기보다는, 학생이 2학년 초에 선택한 계열(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패키지의 형태로 정해 놓은 과목들을 이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수준별 교육과정의 제시가 한 가지 유형(I과II)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교과와 특성을 살린 다양한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바람직한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방향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제 5차 교육과정 하에서도 학교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택이 가능한 능력별 이동식 수업'을 영어·수학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열린교육을 실시하는 수백개 국민학교와 일부 중학교에서는 학급 내에서 과제를 빨리 끝내는 학생에게 심화과제와 선택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개인차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선택의 여지를 주는 수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본격적인'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교과별 수준의 폭을 확대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유형을 교과나 학교·급에 따라서 다양화하는 한편, 교육청이나 학교가 아닌 학생들의 선택 여지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일본

의 경우 학생들에게 직접 주어진 선택의 여지가 전체 이수 단위의 절반 정도이며, 11개 필수과목 중에서도 7개는 '선택필수'임). 수준의 폭을 확대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공통수학'·'공통영어' 등의 공통필수 과목을 폐지하고, 대신에 '최소이수과목'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교과별 수준을 현재의 2~3 단계보다 세분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영어·수학 등의 과목을 8~10개 단계로 설정하되, 각 단계의 학습을 1년감이 아닌 1학기 동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때 수준 1, 2의 과목은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 수준으로 개설하여, 중학교에서 학습결손이 있는 학생들에게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수준 9, 10의 과목은 대학교양과목 수준으로 하여,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학생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학년 신입생들은 모두 같은 수준의 공통필수과목('공통수학' 등)을 이수하는 대신에, 입학 당시의 성취 수준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른 수준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승급은 대학기 학기말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며, "최소한 수준 4까지는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한다"와 같은 최소이수과목 개념을 도입한다. 즉 학생 A는 수준 1에서 시작해서 수준 4까지만 이수하고(재수강을 2번하는 경우), 학생 B는 수준 3에서 시작해서 수준 7까지 이수하며, 학생 C는 수준 5에서 시작해서 수준 10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현재 영국의 5세~16세 대상 국가교육과정 운영방식의 변형).

둘째, 과목별로 한 가지 종류(코스)의 수준별 과목만 제시하는 대신에 두 가지 종류(코스)의 수준별 과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두 가지 코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속진코스인 수학(가)코스는 현재의 '공통수학' 수준에서 대학교 교양수학 수준까지의 내용을 8단계(대학기 1단계)로 제시하고, 일반코스인 수학(나) 코스는 현재의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수학 I' 수준이나 '수학 II'의 중간 수준까지의 내용을 8단계로 제시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먼저 두 개의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시 그 안에서 시작하는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필요에 따라서는 시험 결과로 배정), 두 가지 코스 사이에서의 이동을 가능하도록 한다(영국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방식에 독일 김나지움 상급단계의 전공수준/기초수준코스 운영방식 혼합).

셋째, 문학·한문·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지리·역사·사회·가정 등과 같이 국어·영어·수학에 비해서 배당시간이 적고, 일부 학생만이 깊이 있게 배우면 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별로 2~3 수준 정도의 과목만을 제시한 후, 이를 다시 몇 개의 큰 영역으로 묶어서 학생들이 각 영역별로 알맞은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때 모든 학생들이 각 영역별로 소수의 과목은(1~3개 정도) '필수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선택의 여지를 가지면서도 필수적인 내용은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과학' 영역에서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을 각기 I·II·III 수준의 과목으로 제시하고, 전체 12과목 중에서 2~3개 과목은 '필수선택'으로서 이수하며, 나머지 과목은 필요한 만큼 자유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일본의 1994년 적용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식의 변형).

넷째, 각 교과를 진도 수준에 따라서 I·II·III 등으로 구분하는 대신에, 학습내용의 심화정도에 따라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심화과정에는 더 많은 단위와 시간배당을 하

여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세계사(가)와 세계사(나)를 각기 1년 과정으로 하되, '세계사(가)'는 학기당 2시간(2단위)씩으로 하고, '세계사(나)'는 학기당 4시간(4단위)씩으로 하면서 교과서의 내용 구성이나 심화 정도도 다르게 하여,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일본 고등학교의 사회 계열 과목 교육과정 운영방식과 독일 김나지움 상급단계의 기초수준 코스/전공 수준 코스 운영방식의 변형).

다섯째, 위의 셋째와 넷째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방식은 혼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2단위의 '경제 I (가)'과 4단위의 '경제 II (나)', 4단위의 '경제 II' 등 3가지 과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먼저 기본과목인 '경제 I (가)'과 심화과목인 '경제 I (나)'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후에, '경제(나)'를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원하면 고급과목인 '경제 II'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일본 고등학교의 과학계열 과목 교육과정 운영방식).

이상에서는 주로 고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의 교과선택을 통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방식의 유형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고등학교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에 제시한 방안들은 대부분 중학교에도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의 수학과 영어 과목의 경우에도 위의 첫번째와 두번째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방식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앞으로 국민학교에도 영어교과가 신설될 예정이므로 중학교 1학년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수학에서도 중학교 1학년이면 상당한 개인차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므로, 개인차에 따라 학습속도나 학습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중학교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비교적 학습내용이 쉽고 계열 편성이

아직 안 되며, 학생들간의 수준 차이도 비교적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체 단계의 폭은 줄이고 최소이수과목의 기준은 더 높여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학생과 가장 높은 수준의 학생간의 차이가 2단계보다 더 많이 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또한 제2외국어를 제 6차 교육과정과 같이 고등학교에서만 12단위(1단위는 1학기의 1시수 학습에 해당) 학습하는 것으로는 제2외국어 교육의 실효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학교에서부터 제2외국어 교육을 선택과목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제2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려면, 소수의 학생만이라도 충분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출 만큼의 학습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현재의 세계화 추세에 맞는 인력 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모두 제2외국어는 학년별이 아닌 수준별로 제시하고 심화과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부터(예: 어떤 학생은 중2부터 시작), 자신에게 알맞는 진도로(즉, 속진코스와 일반코스 제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한문·컴퓨터 등 중학교에 허용된 기타 선택과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의 과목선택과 이동식 수업을 전제로 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보다 훨씬 많은 교사와 교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불가능하다'거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물론 교사나 교실의 여유가 더 있다면 수준별 교육과정은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교사와 교실만 가지고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4시간씩 24학급의 수학 수업을(총 96시간) 5명의 수학교사가 나누어 맡는 학교가 있다고 하자(1인당 19~20시간 담당). 이 학교에서 총 10단계의 수준별 수학 교육과정 운영을 한다고 할 때, 1·2단계는 각 1학급, 3·4단계는 각 5학급, 5단계는 4학급, 6단계는 3학급, 7·8단계는 각 2학급, 9·10단계는 각 1학급 정도의 학급 구성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총 25학급이 필요하므로(총 100시간), 교사 1인당 20시간씩 담당하면 교사의 수를 늘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교사들이 동시에 2개 학급의 수업 운영을 할 수는 없다는 점과 단계에 따라서는 해당 학생 수가 매우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의 경우 265명의 학생이 1단계 20명, 2단계 30명, 3단계 160명, 4단계 55명의 분포상황을 보인다고 가정하자. 이 때 교사가 5명뿐이고 1학년 수학시간을 동시에 배정한다면, 1·2단계는 50명 1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학급 내에서 열린교육방식의 능력별 소집단 수업운영을 하고, 3단계는 53~54명씩 3개 학급으로 편성하며, 4단계는 55명 1개 학급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사 1명을 채용한다거나, 거창고등학교의 경우처럼 교장·교감 중 1명이(수학 전공의 경우) 1학급을 담당해 준다면, 1단계와 2단계를 소수학급으로 편성하여 철저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사나 교실의 수를 크게 늘리지 않고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을 하려면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융통성이 필요하다. 한편, 수준별 교육과정은 이처럼 반드시 '학기별·과목별 학생선택'이라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보다 작은 범위의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운

영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1달~6주 정도에 완성되는 미니코스들을 다양한 주제, 다양한 수준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관심과 필요,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매주 일정한 시간을 학년 구분 없는 자유선택 시간으로 정하고, 교실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각 교사들이 개발한 다음과 같은 미니코스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 고전 소설의 이해', '기후의 관측', '한국 과학사', '한국·중국·일본 근대사의 비교', '야구 상급과정', '현대음악감상', '서양요리실습', '시창작법', '확률의 세계' 등. 대규모 학교에서는 이러한 코스가 동시에 수십 개씩 제시될 수 있으며, 학생들은 1년에 6~8개 정도의 다양한 주제들을 학습할 수 있다(미국의 일부 중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방식).

둘째, 매주 2~3시간 정도를 '보충·심화 학습 시간'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은 이 시간에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학생선택, 또는 담임의 권유)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가서 소집단 학습 및 개별학습 방법으로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을 한다(프랑스 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방식).

셋째, 매주 일정한 시간을 '교사재량시간'으로 설정하여, 교사들이 자유롭게 탈교과적이거나 통합교과적인 내용의 수업운영을 하도록 하고, 이 때 학생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영국의 경우 전체 수업시간의 20% 정도가 교사재량시간).

넷째, 학습위계가 중요하지 않은 과목의 경우에는 교과 내에서 단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서, 11개 영역 중 4개만 필수로 하고 나머지 7개 영역 중 3개를 학교나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다(일본 기술·가정의 교육과정 운영방식). 또는 특별히 심화학습을 할 영역의 테두리만 정해 주

고,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골라서 어떠한 깊이로 학습할 것인지는 교사들에게 일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역사교과에서 통사는 모든 학생이 함께 학습하도록 하되, 특별히 의미를 갖는 시대나 나라는 각 교사 또는 학생들이 골라서, 역사적 발달 및 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깊이있게 분석하고 비교하는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영국의 역사·지리 교육과정 운영방식).

다섯째, 학생들의 학습내용과 학습진도는 같게 유지하면서도 학습의 심화정도가 학생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한다. 예를 들어서 같은 중학교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이라도 각 단원의 기본학습 내용과 심화학습 내용을 제시하여, 심화학습 내용은 일부 학생만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학교과서도 2가지 수준으로 개발하여, 'A형 교과서'는 'B형 교과서'에 비해서 페이지수도 많고 수록된 문제의 난이도도 어렵게 함으로써, 수준이 높은 학생이 사용하도록 한다(영국의 수학교과서 출판방식). 또는 같은 교과서 안에 '보충 단원'이나 '대치 단원'을 제시함으로써 교사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알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일본의 사회교과서 출판방식). 이는 기본 교과서를 같게 하더라도, 심화·보충용 교재를 별도로 개발하여 교과서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영국, 미국 등의 일반적인 교과서 출판방식).

여섯째, 같은 교육과정·교과서를 가지고도 기본과제만 모든 학생들이 개별 학습, 소집단 학습방법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과제를 빨리 끝낸 학생들을 위한 심화과제와 선택과제를 별도로 제시한다(우리 나라 국민학교의 일반적인 열린교육방식).

일곱째, 위와 같은 방식의 열린교육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과제 자체를 능력별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개인차가 보다 잘 반영되도록 한다

(우리 나라 중학교의 열린교육방식; 서구의 일반적인 열린교육방식도 이에 가까움).

이상과 같이 상당히 다양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이미 국내·외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민학교 입학자수 감소 추세로 보아서, 수준별 교육과정(제 7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2000년대의 중·고등학교 학생수는 현재보다 훨씬 적어지므로 자연스럽게 교사나 교실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1994년도의 중학교 입학자는 844,149명이었던 것에 비해, 당해년도의 국민학교 입학자는 619,714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2000년의 중학교 입학자는 1994년 입학자의 3/4 밖에 되지 않으므로 학급당 학생수를 50명 미만으로 유지하면서도(대부분의 학급은 40명 미만) 이동식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현재의 교사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은 아직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도입·실험되지 않은 것임을 감안하여, 우선 이상에 제시된 것과 같은 다양한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식의 장·단점과 실제 운영에 있어서의 장애요인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실험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㉞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박 재 윤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교육발전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학교교육법편람」,
「사립학교법편람」 외

특별기획

교육개혁 현실화 방안 탐구(Ⅱ)

법령 개정의 중요성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교육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시간제 학생 등록 실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원격 교육 지원 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에 관련해서는 대학 모형의 다양화, 단설 전문대학원의 설치, 대학 설립의 자율화 방안을 내놓았으며,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과 학교장 초빙제 실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개혁위원회는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과 설비 기준을 학교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고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능한 교원 양성을 위해서 양성 및 연수 제도, 승진 및 보수 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개혁안들은 대부분 현행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안된 방안들은 현행 법령 아래에서는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령 개정 방안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 각급 학교의 법적 지위와 기능의 전환

교육개혁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급 학교가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다양한 과정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등록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의 법적 지위가 제고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에 관한 조항들의 개선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가 필요한 경우에 학습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 내지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각급 학교의 성격과 기능을 단기능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이를테면 다목적 교육기관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행 교육법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법적으로 이른바 단기능적 학교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 즉 「고등학교」는 필요한 경우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서 「방송통신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가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처럼 학교의 종류를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 종류에 관한 조항을 최소화하고 학교 종류 자체를 단순하게 하는 대신에, 그러한 학교들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 과정이든 시간제 과정이든 특별한 직업 기술 과정이든 소정의 인가 절차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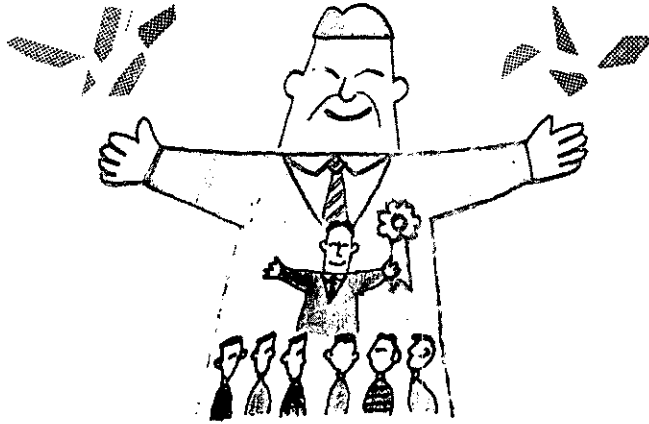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별·부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단기능적 학교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이들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학교 운영구조 조정을 위한 법령 개정

교육개혁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교 운영의 새로운 모형(학교운영위원회)을 일선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법령에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학교 운영에 관련된 기관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존 법령의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 분배 구조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기존의 학교 운영 관련 기관의 권한에 대한 조항들이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 운영에 관련된 권한은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모두 다르다. 공립학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 교육청, 그리고 개별 학교장이 수행해 온 학교운영권의 범위가 어떤 것이고 그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일이 없는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을 중심으로 하여 사립학교를 설치하고 경영하는 조직체(학교법인 혹은 사인으로서의 사립학교경영자)의 권한에 관한 조항 중에 개정할 것이 없는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것이 수직적인 문제라면 수평적으로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교사들의 의견수



럼장치(예컨대 교무회의)의 권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법령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항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고 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경우 학교 운영의 각 관련 단위의 책임있는 기능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교원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21세기를 담당할 유능한 교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교원 양성 관련 법령과 교원 양성 기관에 관한 법령과 함께 양성 과정의 구성과 이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개혁안은 특히 학교 시설 설비 기준을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여 교육 여건의 개선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학교 시설과 설비의 기준과 이의 구비에 관한 일련의 법령은 우선 그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인문 과정, 실업계 과정, 특수 목적 과정 등등)을 설치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에 알맞은 시설과 설비 기준이 제정될 필요가 있고 이같은 기준은 최소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학교 설립의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시설과 설비를 위한 예산의 확보와 운영에 있어서도 이 기준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체계의 유지와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재정 관련 법령이 재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지방교육양여금법 등을 들 수 있다.

○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를 위한 법령 개정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교육개혁안 중에서 대학 모형의 다양화, 대학 설립 준칙주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그리고 학부 없는 단설대학원의 설치 방안 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대학 모형의 다양화는 법령 개정의 맥락이 아닌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요구되



현 시점에서 역점을 두어 연구해야 할 중요한 일은 현행 법령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이며 이는 각 분야의 협력과 광범위한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법령의 개정은 생각만큼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는데, 바꾸어 말하면 법령에 여러 가지 대학 모형을 일일이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대학 모형을 법령에 일일이 규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대학 운영에 관한 의욕과 창의적 노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은 고등교육기관들이 원칙적으로 어떤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소정의 인가 절차를 밟으면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는 원칙만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들을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책 결정 당국이 해야 할 문제이며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법령 개정은 고등교육기관들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도 원칙만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부 없는 단설대학원을 국가 정책과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법상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학이 설치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대학원의 법적 위상을 재검토하여 전임 교직원과 별도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면 법적으로 대학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교육기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

결론

교육 체제가 발전하는 데 따라 관련 법령은 점점 더 복잡하게 분화해 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교육 체제의 일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관련 조항이 면밀하게 검색,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정을 서두르게 되면 서로 모순되는 조항이 생기기도 하고 법령의 위계도 허물어져 오히려 교육 활동에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교육개혁안이 제시하는 것은 개혁의 방향과 이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구체적 정책 방안과 함께 합리적인 법령의 개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역점을 두어 연구해야 할 중요한 일은 현행 법령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이며 이는 각 분야의 협력과 광범위한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법령의 개정은 생각만큼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㉞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방안

임 연 기



· 공주사대 교육학과 졸업
· 동국 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교육정책연구 1부 부장
· 「대학 정원 정책의 영향 분석」,
「교육 행정학의 반성과 비판」의

특별기획

교육개혁 현실화 방안 탐구(Ⅱ)

I

현행 교육법 제 96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 6세 된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으로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 말까지 그 자녀를 취학시켜야 한다.”

몇 번을 되풀이해서 읽고 나면 현행 법률상 만 6세가 되지 않은 아동은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가 되는 다음 날부터 만 7세가 되기 하루 전날로 엄격하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정하고 있음은 우리의 경직된 교육제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혁안은 만 6세가 되지 않으면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만 5세아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원하고 소정의 신체검사 및 능력검사 결과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학교의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표방한 신교육개혁의 기본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위원회가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부 언론에는 국민학교 조기 입학이 가능해졌다면서 학부모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기사가 보도되는가 하면,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비교육적 열기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

어서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에서는 절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기본 취지는 찬성하면서도 시행방안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엇갈린 입장이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학교 입학단계에서 열린교육의 실현이라는 이상과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5세아의 입학 허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입학 허용 판정을 내릴 것인가? 어떤 기준과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허용할 것인가? 입학 후의 부적응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인가?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I

국민학교 입학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은 국민학교 취학 적령기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학교 취학 적령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한 경우 만 6세 이전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동의 지적·정의적 발달이 조속한 경향을 보이고, 학부모의 취학 전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교육의 시작 시기를 하향조정하여 조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과는 전혀 다른 주장인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국민학교 취학연령이 5세인 경우는 극히 드물며, 6세가 보편적인 실정이다.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은 만 6세를 취학 적령기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법 시행령 제 102조에서 취학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경우 입학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94학년도 국민학교 취학 대상자는 63만여명이었으나 이 중 전년도의 유예 및 과령아는 6천 6백여명으로 전체의 1.05%에 해당한다. 또한 당해년도 취학 대상자 중 98.25%만이 실제로 취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생활 연령에서도 취학시기를 늦춰야 하는 아동이 있는 것처럼 앞당길 수 있는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은 5세아에게도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면 희망에 따라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조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민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발달이 늦거나 빠른 아동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5세 아동에게 국민학교 입학을 허용하거나 6세 아동의 입학을 유예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국민학교 입학연령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에 따라 5세아가 취학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취학에 대한 의무부담을 갖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6세아의 경우 취학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취학 독려조치를 받지만 5세아의 경우 이로부터 제외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결국 5세아 경우의 취학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인 것이다.

III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5세아 입학 가능 아동의 선별 방식과 학교의 5세아 수용능력의 범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은 기본적으로 5세아의 국민학교 입학 수요가 지나치게 클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부각되고 있다. 조기 입학은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개혁안의 발표 직후인 6월 중순경에 5천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2.4%가 입학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세아의 입학 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5세아의 입학허용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다. 정상적인 시기에 입학하면 원만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아동도 취학시기를 앞당김으로 해서 학교에서 부적응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 피해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오랫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지적되어 왔다. 이런 논의는 매우 조숙한 아동의 국민학교 5세 입학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유도한 경향이 있어 왔다.

5세아의 국민학교 입학으로 인한 부적응 현상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입학을 허용하는 절차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그것은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갖출 것,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에 터하여 결정할 것,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5세 조기 입학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문제점을 모두 알려줄 것, 지원자 모두를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필요를 가진 개인으로 보는 입학 허가 절차를 갖출 것 등이다.

5세아 입학한 아동 중에서 성공한 아동과 실패한 이동을 비교한 결과 성공여부는 입학 사정의 엄격성 정도보다는 지적·정서적·사회적 성숙 등의 다양한 변인과 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지적으로 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조기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입학 후 부적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적 특성 못지 않게 비지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비지적 특성에 대한 배려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① 아동이 국민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지, 다른 학생들과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과도한 지적·정서적 기대를 이겨낼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아동이 정서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적응도가 있는지의 확인, ② 소근육, 대근육의 협응을 포함한 신체건강 정도의 확인, ③ 5세 입학생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교사가 있는지의 확인, ④ 입학한 학생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고, 상담과 지원을 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한 후 최종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 등이다.

5세아의 입학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찰과 면접, 검사 실시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비공식적인 관찰과 면접단계에서 주로 확인하여야 할 항목에는 학급에서의 행동,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 권위의 수용, 학급에서의 반응의 질, 반응의 빈도와 적절성, 의사결정 능력,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 교사 또는 동료와 동의 또는 반대의를 표현하는 능력, 스스로 선택한 활동의 종류, 동료, 다른 아동, 성인과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학생과 학부모, 유치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공식적인 검사로서는 개인 지능검사, 기초 학습 기능 검사, 사회적, 정서적 적응 행동 검사, 고급 사고력 검사, 창의성 검사, 자아개념 검사, 흥미검사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5세아의 국민학교 입학허용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준과 방법이 활용되는 한편, 적절한 검사가 동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별을 위한 검사에 대해서 심각한 거부감이 있다. 검사 대상이 나이 어린 아동이라는 점, 아직 신뢰로운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검사도구도 선별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 유치원 교육의 파행을 가져 오고, 학부모들의 과잉경쟁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이다. 결국 검사도구의 적용에 대한 반감으로 인하여 지필검사 이외의 대안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년월일순, 추첨식 등의 선별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들은 제도변화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음으로 5세아 입학의 허용규모를 수용능력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할 때, 수용능력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사항이다. 조기 입학 희망률이 높을 경우, 엄밀한 판별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실정에서 수용능력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수용능력의 기준을 교육법 시행령 제86호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가능 학급규모(50명)로 볼 것인가, 시·도별 학급 편성 기준(1995년: 42~52명)으로 정할 것인가, 동일 지역의 평균 학급규모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도 쟁점사항이다. 다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허용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5세아 입학으로 인하여 국민학교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재의 지역별, 학교별 학급규모의 편차를 고려하여 조기입학 허용규모를 지역별·학교별로 차등화할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동일 수준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IV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은 전제 하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다수의 5세아에게 적합한 교육은 유치원 교육이다. 다만 5세아 가운데 바로 국민학교에 입학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극소수 아동에게 국민학교 입학의 허용하는 것이 국민학교 입학연령 탄력적 운영의 기본 취지이다. 해당 아동 입장에서는 조기 입학이 아니라 적기 입학인 것이다.

둘째, 5세아의 국민학교 입학 허가는 매우 신

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기 입학 이후 부적응하는 아동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학부모들의 조기 입학에 관한 지나친 관심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적절히 제지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5세아의 입학허용이 극소수의 아동에 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엄밀한 판별절차와 선별방법을 당장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의 초기에는 취학 전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거나,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의 중복적 수학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 심리, 다른 자녀에게 뒤떨어질 수 없다는 경쟁심리 등에 의한 과열된 조기 입학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세아 입학 희망자의 수요를 조절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5세아의 국민학교 입학허용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변화의 취지가 제도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만큼 전국 수준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적용하기 보다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도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의 변화,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각각의 발전과 두 부문간의 긴밀한 연계가 있어야만 가

능하다. 이는 일반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조기 입학의 가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와 유아교육 학제에서의 연령별 교육과정 세분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며, 국민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중심으로 교육여건의 개선, 실질적인 개별화 수업 실시 등이 필요할 것이다. 제반 교육개혁의 추진에 따라 이상과 같은 조건은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V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볼 때,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5세아 국민학교 입학허용의 기본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5세 아동의 국민학교 입학은 희망아동의 신청을 받아 국민학교 생활 적응능력을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 확인한 후, 이 능력이 인정된 아동에 한하여 학교의 수용범위 내에서 허용되 시범운영 기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5세아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 업무의 추진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게 적절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5세아 국민학교 입학허용 관련 지침을 설정·제시하고, 지역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5세아 국민학교 입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각 입학허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학허용 방법 및 절차를 단계적으로 전문화해야 한다. 5세아 국민학교 입학허용 절차

와 방법은 초기 도입 단계와 완성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학교수준의 입학 허가위원회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추천서 검토, 면접, 활동 관찰 등을 통해서 입학을 잠정 허용하고, 국민학교 생활에의 적응 정도를 1개월간(3월) 관찰하여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입학 허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와 입학 허용 방법의 전문화가 완성되는 시기에서는 유치원에서의 누가 기록, 유치원 교사의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입학 신청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별, 학교별 입학수용 능력상의 차이를 감안하여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학허용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2부제를 실시하는 학교, 1학년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학교는 5세아의 입학 허용 학교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궁극적으로는 모든 5세아에게 입학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도입 초기에는 5세로서 3월생인 아동에 한하여 희망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정착 상황에 따라 그 범위를 4월생, 5월생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5세 입학아동의 부적응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부득이 부적응 아동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세 입학아동에 대해서는

부적응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를 원칙으로 입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인 약 한달 동안을 집중적인 관찰과 개별지도를 하도록 해야 한다. 5세아를 포함해서 국민학교 신입생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국민학교 1학년의 경우 보조 담임교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민학교 입학 연령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시범운영,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국민학교 교육여건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취학 전 교육을 공교육화하여 모든 유아들이 취학전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유치원이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민학교에서의 실질적인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교사 연수,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의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덟째, 국민학교 입학연령 탄력적 운영의 도입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5세아 국민학교 입학의 혜택과 피해를 충분히 알려주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일반 시민과 학부모가 협조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학교와 교육행정 당국은 학교 현장과 사회에서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㉞

교육개혁 내용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혁 및 추진방향

류 호 섭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일본 동경도립대학 대학원 졸업 (공학 박사)
- 본원 선임연구원
- 「아동의 평가로부터 본 국민학교의 학습 환경 고찰」의

특별기획

교육개혁 현실화 방안 탐구(Ⅱ)

1. 머리말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내용을 발표하고, 교육부에서는 그 후속작업을 한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교육개혁이 지향하고자 하는 의의와 내용은 교육 전반에 걸친 현황을 생각해 볼 때 공감이가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교육시설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기대하고 싶은 것은 교육개혁의 내용을 담을 교육시설의 개선 및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와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본 개발원의 연구나, 또한 필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개혁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미래학교의 모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교육시설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공식적인 제시가 이제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교육시설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든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중의 하나는 그 동안 늘 그래 왔듯이 그때그때의 당면과제에 매달려 교육개혁, 21세기에 부응하는 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리라.

여기서는 교육시설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교육개혁에 부응하는 교육시설의 이미지와 그러기 위한 연구과제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교육개혁 내용에서 본 교육시설의 시사점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깊은 관련이 있는 구절과 교육시설의 개선에 대하여 언급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농어촌의 교육장화,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확립, 개인의 다양성을 증시하는 교육방법 확립- 교육여건의 개선 및 상황 균질화 : 2부제 수업을 조기에 해소하고 과밀학급과 과대학 교 문제를 해결한다. 교수-학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교기본시설(특별교실,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과 교육용 교구·설비 및 기자재를 확충하여 교육여건의 상황·균질화를 도모한다. 그리고 노후 학교건물은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현대식 건물로 개축한다.

교육개혁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여럿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시설의 내용이나 형태에 시사점을 주는 단어로 평생교육, 창의성, 다양성 등이다. 즉, 교육개혁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학교는 이러한 키워드가 반영된 학교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학교는 어떠한 학교인가. 새로운 학교의 모습(필자 나름대로의 교육시설의 개혁안)에 대하여 언급해 본다.

3. 학교시설의 개혁-교육개혁 및 21 세기에 대응하는 미래의 학교상

-학교시설의 개성화·인간화·다양화·첨단화-
시대와 사회가 변한 상태에서 학교에 대한 개념과 정의도 변하여야 한다.

그 개념과 정의에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학교 시설의 계획, 공급방식, 학교의 사용주체, 학교가 입지한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 학교운영 형태 등등의 내용이 종합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을 내포한 교육개혁의 내용을 반영하는, 보다 발전적인 의미로서의 학교시설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1 세기에 대응한 새로운 학교는 다양하며 고도한 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다기능화, 고기능화시키는 것, 여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여러 정보 수단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환경의 정비를 충실히 하는 것, 인간성·문화성 및 자연과 조화를 시킨 쾌적하고 풍부한 환경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제까지의 전국 획일적인 학교시설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학교시설의 인간화·개성화·다양화·지역화·정보화 등을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

○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다양화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의 학교

목표 : 이제까지의 획일화·정형화된 일제식 위주의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창의성·다양성·개성을 키우며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전개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구성한다.

-학교의 실내의 전체를 학습공간, 다목적 스페이스의 도입, 협력수업이나 개별수업 등이 전개될 수 있는 학습공간, 새로운 교구나 교자재가 충실한 학습공간, 밝고 여유 있으며 쾌적하고 열려 있는 학습공간

○ 즐겁고 여유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의 학교

목표 :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 공

간임과 아울러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내에 여러 생활공간을 형성,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즐겁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의 즐겁고 여유있는 학교생활 추구, 밝고 쾌적한 급식실, 휴, 라운지 등의 설치, 학년별·교과별의 교사 스페이스 및 생활공간 설치, 정원, 놀이터, 야외 학습장 등의 정비와 설치

○ 지역사회에 열린 평생교육의 학교

목표 : 앞으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학교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거나 여러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과 복합화하여, 지역주민의 각종 커뮤니티·문화 생활에 기여하며 최종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커뮤니티 센터로 되어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학교의 모든 공간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학교시설·설비의 개방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학교시설의 방과 후 활용, 초·중등학교 상호간의 학교시설의 공동 이용, 학교와 공공시설·사회교육시설과의 복합화,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한 학습

○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목표 : 세계화 시대의 사회는 정보화의 사회라고도 일컬어진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학습, 생활, 교무, 사무 등에 정보화의 개념과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와 학교, 학교

■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는 전체적인 교육시설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시설에 대한 합리적이며 장기적인

종합 마스터 플랜을 세워

그것에 의거하여 개선 사업을 하여야만이,

보다 효율적이며 후회 없는

교육시설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에서

와 다른 사회 교육시설 등과의 네트워크에 의한 연결이나 학교건물이나 설비의 인텔리전트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시설이나 설비만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것만이 아닌, 지역, 나라 전체, 세계 여러 국가의 정보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교에서의 제활동에 OHP·컴퓨터 등의 새로운 미디어의 활용, 정보센터로서의 학교 자료센터 및 멀티미디어실, 학교와 학교, 학교와 타 공공시설과의 네트워크 및 원격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CATV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자택학습의 가능성, 건물의 인텔리전트화로 에너지 절약, 쾌적성·효율성을 유지

이러한 4가지의 개념을 종합하여 한 마디로 표현하면 학교시설의 개성화·인간화·다양화·첨단화라고 하겠다. 즉 인간 개개인은 저마다의 개성과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이 점은 사회가 변화·발달할수록 더욱 더 다양해진다. 마찬가지로 이제부터의 학교는 각 시설마다의 개성과 분위기를 지닌 인격화된 첨단 교육시설로서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각 지역적인 특색, 학교급별에 따른 특색, 학교규모나 운영방식에 따른 특색을 반영하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4. 교육시설 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전체적인 교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교육개혁의 내용에 부응한 교육시설, 즉 이제까지 언급한 개념의 교육시설로의 개혁을 위하여는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재정확보 및 일관성 있으며 계획적인 정책, 학교 교사나 관계자들의 학교환경에 대한 의식개혁, 학교 건축계획·설계·건설에 대한 합리적인 기간 및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선·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GNP의 5%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여, 이중에서 교육시설 분야에의 사용 내역을 보면, 낙후 교육시설의 개선(노후시설 개축, 재래식 화장실 개조, 교무실 확충, 책걸상 교체), 과밀 학습 개선을 위해 86개교 신설, 2부제 완전해소를 위해 45개교 신설, 학교시설 안전도 및 불량시설 개·보수,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383개교 신설의 구분으로 잠정 결정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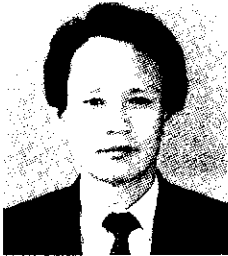
듯하다.

여기서 몇년 전의 이른바 환특사업의 결과에 대한 반성의 소리도 포함하여 노파심에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시행 이전에 반드시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아울러 지침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시행 결과에 대한 검증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 문부성의 교육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의 정비지침(국민학교·중학교편(1992), 유치원편(1993), 고등학교편(1994), 특수학교편(1995)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일련의 주요 연구 과제명을 살펴보면, 교육방법 등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교육시설의 연구(1988), 문교시설의 인텔리전트화에 대한 연구(1990년), 학교시설의 복합화에 대한 연구(1991) 등이다. 이 외에도 부분적으로는 컴퓨터실, 급식실, 어학실 등에 대한 연구들도 있어,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해 가며 종합적인 정비지침을 마련하는 자세는 교육시설 연구자로서 부럽기조차 하다.

이번 교육개혁을 일시적으로 당장 눈앞의 것만 개선하는 것이 아닌, 앞서 언급한 대로의 관점에서, 다소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참으로 교육시설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전체적인 교육시설의 방향(예로서, 학교급별로의 새로운 교육시설·설비기준령, 학교시설정비·개선지침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교육시설에 대한 합리적이며 장기적인 종합 마스터 플랜을 세워 그것에 의거하여 개선 사업을 하여야만이, 보다 효율적이며 후회 없는 교육시설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 멀티미디어교육 지원센터의 기관 성격과 설립 방안

정 태 희



- 공주사대 교육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정보교육지원부장
- 「학교교육과 컴퓨터」, 「정보화
사회 대응 교육과정 개선 연구」의

특별기획

교육개혁 현실화 방안 탐구(Ⅱ)

지난 5월 31일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은 교육사회에 희망된 미래를 열어 보이는 동시에 다양한 해석과 논의를 도출시키고 있다.

신교육체제의 구상 배경은 정보화, 세계화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보화는 교육의 내용 뿐만 아니라 교육의 형태와 방법에 까지도 혁신적인 변화를 지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을 만하다.

또한 신교육 체제 교육 수립을 위하여 제안된 9개의 개혁방안 중 열린 교육 사회와 평생 학습 사회기반 구축의 내용은 그것이 실현만 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교육의 세계를 열어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열린 교육이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부는 열린교육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가 참된 열린 교육체제를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의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교육 연구 개발의 전문기관이어야 한다

멀티미디어 교육만큼 애매한 말도 드물다. 멀티미디어(multimedia)란 단일 미디어(simple media)의 복합체로 볼 수 있다. 즉 문자, 음성, 그래픽, 영상 및 동영상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두 개 이상의 미디어 유형이 복합되어 있으면 멀

티미디어이다. 그러나 좀더 컴퓨터 공학 측면에서 보면, 멀티미디어란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컴퓨터 교육과 멀티미디어 교육을 별개의 개념으로 논의하는 경향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결코 286 교육, 486 교육, 586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멀티미디어 교육의 개념에는 통신기술의 이용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통신망과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교육이라는 말이 좀 길기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다. 이것을 언제부터인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원격 교육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이 무엇이든 우리 교육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가치있는 교육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일이다. 흔히 소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르칠 내용을 글로도 제시하고, 그림으로도 보여 주고, 동시에 영상이나 동영상도 곁들여 보여 주고, 음성도 들려 주면 교육이 잘 될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이런 말은 교육에 일정한 전문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 전문가에게서도 회자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지극히 순박한 것이다. 한 예로서 '지능'이라는 개념을 가르치고자 할 때 과연 위에서 지적한 상식적인 접근, 즉 모든 종류의 미디어를 동시에 구현해 주면 학습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소박하고 상식적인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

우리 학교 교육의 큰 문제는 대부분의 내

용이 실제 세상과 격리된 추상적 수준에서 가르쳐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추상적 수준을 구체적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어떻게 하면 지식의 복잡성을 극복해 가는 구체적 숙달 경험을 부여 주어 지식의 정교화를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그런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교육의 전문적 안목에서 요구되는 방향으로 이용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하나의 컴퓨터 화면에 문자, 음성, 그림, 영상을 동시에 보여 주고 들려 준다고 해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의 구성 인력은 다수의 능력 있는 교육 전문가와 이러한 교육 전문가들의 요구와 전략을 실현시킬 수 있는 탁월한 적성의 컴퓨터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운영 지원에 초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는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다. 이미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제시된 여러 가지 교육개혁 아이디어도 그 한 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 과정의 성격, 형태, 운영방식 등이다. 교육과정은 무엇을, 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습하느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열림)의 정도도 현재 적용되는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과 특징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의 경우, 만약

어떤 학생의 학습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학습 DB로부터 내용을 불러 내어 공부하였으면, 그 학생은 학교 출석인가, 결석인가? 이것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학교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운영되어야지 그를 떠난 어떤 것도 그 타당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의 우선적인 일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가 이용될 구체적인 방법과 그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개발, 수집, 보급하고, 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며, 교사 연수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다.

교육연구 전문기관에 설치해야...

통상 교육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또는 멀티미디어란 말을 들으면, 우리와는 무관한, 그래서 그것은 그쪽 사람들의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국어 학습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할 때, 그것을 전산 전문가의 할 일로 생각하여 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전산 전문가는 교사가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현되어야만 하는 모든(하나도 놓치지 말고) 교수·학습사태와 상호작용 및 평가 관리 활동까지 계획하고 설계하여서 전산 전문가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요구하는 수업 기능을 현재의 프로그램 기술상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예산이 부족할 때는 수업 기능 자체를 교사가 조정해 주어야 한다. 학습 프

로그램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사나 학생이 사용할 프로그램은 모두 그렇다.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는 그런 자료와 이용 방법을 개발 보급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컴퓨터 통신망 또는 프로그램 기술의 실험 연습 기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는 교육의 효과와 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고 지도해 나가는 교육 전문 기관에 설치되어야 한다.

현안 과제는 학교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우선 착수할 일이 있다. 우리 나라 종전의 컴퓨터 교육 추진에 있어서서 두 가지 어려웠던 점을 지적한다면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 현신 방법을 실천할 교사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개발 보급되는 각종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거나 적합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가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은 멀티미디어 교육 실천을 담당할 교사 인력을 훈련하는 일과 멀티미디어를 설계 개발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거나 부딪치게 되는 장애 요소의 파악과 대처를 위한 깊은 기초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볼 때 우선 가장 시급한 분야는 교사가 멀티미디어를 개발 활용하는 일을 지휘 장악할 수 있는 전문가 요원의 훈련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공모전이나 경시대회에 출품되는 각종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평가할 수 있는 요원의 훈련이다. 특히 열린교육, 평생교육이 실현되려면 여러 형태, 수준, 유형의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DB화할 해당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현안 과제로 부상될 것인 바, 이런 일을 담당할 국가 차원에서의 평가 인력 양성도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교육 과정 운영, 직업 기술 교육 실천, 열린 교육 체제의 지원을 위한 매우 창의적인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하고, 이것을 현장에 직접 이용할 것을 시범보이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성장 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 교수 학습과정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서의 해박한 지식과 이해, 수업 설계의 다양한 접근과 기법의 이해를 위한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여야 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과 전략을 현장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시범을 보이는 일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는 필요한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는 일도 하여야 하지만, 전문업체나 관련 기관들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지원함과 더불어 그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구매, 수집, 평가, 공개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화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학교 교육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전문업체 중심으로 개발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심의 평가하여 사용자에게 소개하고, 개발자에게는 전문적인 개발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업무가 되어

야 한다.

넷째, 지금까지 출판된 각종 교수·학습자료 중에서 전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선별하고, 이것을 DB화 하거나 CD-ROM Title로 개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는 일이 중요하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컴퓨터나 초고속 통신망 그 자체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나이다.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정보는 가치가 없고,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정보는 가치가 있다는 식이 아니다. 획득한 지식과 정보의 내용 자체가 얼마나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컴퓨터나 통신망 자체의 기술적 가능성의 확인에 급한 나머지 교육 내용의 조직 및 계열 등 교육 전문적 요소에 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비교적 적었으나, 앞으로는 내용 그 자체의 가치화·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 일을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 활용의 전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품질보증 활동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는 교육용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산업의 육성과 학교 교육 지원이라는 양차원에서 각종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을 직접 수행함은 물론 필요한 평가 자문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그렇다면 이상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과 예산 및 시설이 필요할 것인가?

만약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가 최소한의 필요 인력, 예산,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명목적으로는 교육개혁의 안이 실현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을 것이다. 예를 들면 88년도에 교육부의 학교 컴퓨터 교육 강화방안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컴퓨터교육센터를 설립할 당시 5개 연구부와 60여명의 연구원을 제안하였으나 2개의 연구부와 5~6명의 인력만을 허용하여 상당기간 동안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는 최소한 처음부터 멀티미디어 연구부,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개발부, 멀티미디어 DB개발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부, 멀티미디어 시스템지원부 등 5개의 연구부와 서무실 및 기획 담당부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인력도 최소한 60~70명의 초기 인력이 요청된다. 시설도 최소한 450~500평의 건평이 요구되며, 장비도 주전산기 1세트와 네트워크 시스템 1조를 중심으로 100세트의 586급 컴퓨터 시스템과 CD-ROM 제작 장비 등 40여 종의 첨단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 시설비, 장비 구입비 등의 초기 준비 자금도 최소한 40~50억원 정도가 요청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당장 소요되는 최소 수준이며, 교육개혁안에 제시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자면 최소 인력 200~250명에 1년 투입 예산도 100억 이상이 요구되고 단독 건물이 요청된다.

기능면에서도 처음부터 어느 기관의 한 부서로 출발하기보다는 독자적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일견해서 어떤 기관의 부서 수준으로 출발해

도 무방할 듯이 보이나 인력과 예산의 확보 및 기관장과 간부들의 멀티미디어교육에의 관심과 노력의 집중면에서 독자적 기능을 갖는 기관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인력 확보면에서 정부가 출연 연구기관의 최대 인력을 확보하기란 기관의 명칭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또한 예산도 어떤 기관의 부서로 출발할 때 멀티미디어 교육 지원 담당 부서의 예산이 기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기현상을 보일 것이며, 예산 확보의 한계도 클 것이다. 따라서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는 출발 당시에 아예 독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립 기관화하거나 또는 예산과 인력 운영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는 부설 기관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㉞

영재교육은 과연 활성화될 것인가

조 석 희



-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졸업
- 캐나다 앨버타대학교 대학원 졸업(철학 박사)
- 본원 책임연구원
- 「영재아 이렇게 키워라」 외

영재교육의 필요성과 실태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입시경쟁의 폐해로 인하여 중·고교 입시를 없애고 평준화 교육을 시작한 70년대 중반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70년대 후반부터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긴 하였으나, 87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특수재능 교육의 진흥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뿐 학교 현장에서 영재교육에 관한 실천적인 변화는 사회적 분위기, 재정 부족, 전문적인 노하우의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재들과 일반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계발할 수 있을 것이고, 부수적으로는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본원이 94년 조사한 우리나라의 일반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국민학교의 9%, 중학교의 17%, 고등학교의 12% 정도가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들은 주로 방과후, 방학을 이용하여 영재로 선발한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6시간 동안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아주 일부 학교가 특별학급을 편성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체로는 정규학급 밖에서 영재교육을 받는다. 그 이유는 다른 학생들과의 위화감, 교사들의 수업 부담, 다인수 학급에서의 개별화 학습의 불가능 등 때문이다. 대체로 수학, 과학, 컴퓨터 분야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작문, 예·체능 과목의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기획

교육개혁 현실화 방안 탐구(Ⅱ)

영재교육 실시 학교들은 영재교육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인식하고는 있지만, 영재판별 도구의 부족, 특별 심화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교사의 전문성 부족 및 재정적인 지원 부족으로 인한 시설, 설비, 자료 등의 부족으로 영재교육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학생의 개성화, 다양화, 창조성 계발을 위한 교육개혁안

영재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평범하게 보이려고 무진 애를 썼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거나, 다른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는 일 없이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자기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아이들을 찾기 힘들고, 선생님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영재교육이 활성화되면 자신의 능력수준과 관심에 적절한 학습활동이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 학습자의 다양성과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자의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아동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영재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를 개발, 적용하여 영재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고, 영재가 영재로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규학교 내의 영재교육과 영재교육기관을 통한 영재교육을 활성화

화하며, 연구소 또는 대학에 영재교육센터 설치·운영의 지원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별화 학습을 강화하며,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학생은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습자들이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국내와 전세계의 과학자, 전문가, 교육자, 학생 등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영재교육 개혁안이 잘 실현된 교실의 풍경은 다음과 같이 펼쳐질 것이다. 담임선생님은 주어진 단원학습을 일찍 마친 학생에게 다양한 심화학습 활동 중에서 관심있는 주제를 원하는 방법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와준다. 영재학생이 심화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정규교육과정의 개념과 기능을 충실히 익히고 이를 활용하는 활동들을 한다. 심화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창의력과 사고력이 대단히 우수하다고 판단된 학생에 대해서는 상급학년으로의 속진을 권하거나 더 고급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영재아는 일주일에 하루, 대학 또는 연구소 부설 영재교육센터에서 심화학습을 한다. 정규학교의 수업 결손은 혼자서 공부하여 보충한다. 이 영재교육센터에서는 학교 공부를 예습하거나 복습하는 과거 학원식 교육을 하기 보다는 정규교육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내용과 주제의 과목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영재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전문가로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며 학생의 탐구활동을 보조, 안내할 뿐 직접적인 교수는 그

다지 자주 하지 않는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누구나 자신의 수준에 알맞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각자의 능력 수준과 흥미에 맞추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각자 다른 속도로 서로 다른 코스를 밟으며 공부한다. 대학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두고 학생들의 선택을 중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영재교육 활성화 위한 선결 조건

○ 교사의 전문성 확보

영재교육이 활성화되는 데 교사의 전문성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교수-학습 방법 및 그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의 교사의 전문성이 가장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영재성의 본질과 영재성의 발달과정, 영재성 계발의 방법 등에 관한 연수를 받아야 하고, 그에 관한 경험이 더 축적되어야 한다.

현재는 학부생을 위한 영재교육 관련 과목이 어느 대학에도 개설되어 있지 않다. 특수교육개론에서 영재교육을 일부 다루는 경우는 있다. 대학원생을 위해서는 일반 대학원, 교육대학원 중 소수만이 <영재교육개론> 정도의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을 뿐이다. 각 시·도 교원연수원에서조차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에 관한 강좌를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많은 교사들은 영재성을 확인하고 이를 계발하기 위해서 아동의 어느 측면을 중시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관해 자신이 없다.

영재교육은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가진 책임 있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영재를 위한 교

사는 안내자,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영재성은 지식을 짙게 채워 담아야 할 빈 병이 아니라, 휘발유가 가득한 병이다. 누군가 성냥불만 그어대면 활활 타오를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아이들을 지도하기란 쉽지 않다. 교사도 아이들 수준 이상의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영재들을 이해하고 안내하고 보조해 줄 수 있다. 아이들의 관심은 다양할 수 있다. 그 다양한 각각의 주제를 능숙하게 다루고,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도 거부감 없이 받아 주고, 그에 걸맞는 질문이나 반응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한 명의 교사가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영재아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해 주기란 쉽지 않다. 교사는 창의적인 과학자, 예술가, 문학가로서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교사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임하는 태도를 모방하며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전문가가 어린 영재들을 직접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영재를 지도할 만큼 전문성과 열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어린 영재들을 가르칠 만큼 시간적 여유와 교육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해오던 많은 교사들이 영재들의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재들의 호기심과 탐구 의욕을 꺾기 보다는 이를 격려할 수 있는 태도와 지적 전문성이 얼마나 빨리 몸에 배게 될까 하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영재교육의 본질과 벗어난 주입식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여 아이들의 탐구와 배움에 대한 열정을 상실시켜 버리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명실상부한 영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 교사, 사회,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

많은 교사와 학부모, 사회는 영재성 및 영재성의 계발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부족해도, 시험치르는 데는 강한 '책상 앞의 호랑이'를 우리는 영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줄줄 외워대기만 하면 영재로 소문이 나고 매스컴에도 등장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 영재교육이 제

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으로 이해하고, 영재성이 학문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의 제 분야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그런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다양한 과외는 권장할 만하지 않겠는가? 이런 영재성을 길러 주기 위한 영재교육이라면 각종 과외의 열풍은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사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계발하는 방법에 관한 노하우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취미, 여가시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스스로 관심있는 주제를 탐구하고 학

**영재성은 교육환경의 종류와 질에 따라서 변화한다.
영재교육의 개념, 영재성 계발에 대한 학부모, 교사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영재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부모들의 영재교육 열풍이 우리 아이들의 영재성을 사장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학원이 영재교육을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영재들에게 필요한 사고력이나 창의성의 싹마저 상실시킬 수도 있다.

영재교육의 도입은 제2의 평준화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올바른 영재교육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과 학부모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사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영재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과외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영재성을 지식 소비능력이 아닌, 지식 생산능

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과외열풍이 불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려고만 한다면, 그런 열풍은 불어도 좋을 일이다.

영재교육은 기억력과 이해력이 우수한 아이들에게 더 어렵고 복잡한 지식을 넣어 주는 것이 아니다. 지식의 소비능력이 뛰어난 영재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지식의 생산자로 길러 내는 것이 영재교육이다. 이에 대한 사회와 학부모, 교사의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 개별학습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

현재와 같이 한 교사가 40여명의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과밀학급에서는 개별학습은 거의 불가

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사람의 교사가 모든 학생의 개성과 관심, 능력 수준을 모두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수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듯이 보인다. 전체학습, 분단학습, 팀학습, 개별학습 등의 다양한 집단 편성 방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영재들을 대상으로 사고과정 중심의 학습,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는 수업, 활동 중심의 수업, 관련 학문 분야를 연결짓는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런 수업들은 교사가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아동의 사고의 과정을 관찰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한다. 학습을 관리하는 능력이 아주 우수한 교사들은 많은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보다도 한 학급당 또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훨씬 줄어든다면 더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실험적인 영재교육과 그에 대한 연구

최근에 교육개혁안이 발표되고 나서 대학 또는 연구소 부설 영재교육센터와 정규학교 내의 영재학급을 설치 운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작업을 서두르는 사람들은 교육실시에 필요한 건물, 공간, 시설, 설비와 같은 하드웨어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로 교육방법, 평가방법, 교육내용 등의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만약 영재교육센터의 하드웨어만을 갖추고 교육을 시작한다면 영재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육을 하는 학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영재교육센터를 대학 또는 연구소 부

설로 설치하도록 제안한 것은 대학과 연구소의 자원인사, 시설, 설비를 활용하여 창의성 계발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닌 학원강사 수준의 교사들이 연구소나 대학에 축적된 지식체계와도 관계없이 일반적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 외국에서는 연구,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효과에 관해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도적인 조치를 취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영재의 판별과 심화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관하여 연구 개발된 것이 약간 있다. 이것을 토대로 영재교육을 시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몇년 동안 영재교육을 실시해온 국내의 정규 초·중등학교, 영재교육센터 중에서 아주 우수한 교육기관을 정하여 시범적이며 실험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노하우를 개발하고, 다른 영재교육기관에 그 노하우를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영재성은 교육환경의 종류와 질에 따라서 변화한다. 영재교육의 개념, 영재성의 계발에 대한 학부모, 교사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영재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타고난 영재성도 사장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자본주의적 의식구조와 사회주의적 의식구조가 혼재되어 있다. 경쟁에서 유리할 때에는 자본주의 원칙을, 불리할 때는 사회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장한다. 교육현장에서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때, 영재교육은 성공할 수 있다. 영재교육의 성공은 일반 아동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영재교육의 노하우는 모든 아동의 개성과 창의성 계발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위대한 평민을 기른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편



교육개발 취재진이 풀무학원을 취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을 때 이 학교의 홍순명 교장은 교우회의 시간에 협의하여 승낙 여부를 알려 주겠다고 했다. '교장이 그까짓 것도 결정 못하나?' 하지만 며칠 후 학교를 방문해서 확인한 것은 이 말 속에 이 학교의 교육 철학이 녹아 있다는 것이었다. 모두 함께 의논하여 학교 일을 결정한다. 교장도 특별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이를 이 학교에서는 무두무미(無頭無尾)라 했다. 무두무미로 특징지워지는 풀무학원의 교육은 따라서 낮은 곳을 지향한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을 지키는 평민을 기른다. 그것도 위대한 평민을……(편집자 주)



학교탐방

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학교

임 선 하

(우리창의성연구소 소장)

의사 소통 수단이 고도로 발달하여 가만히 앉아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음에도 교통 대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애써 관광지를 직접 찾는다. 관광안내서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곳을 직접 가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현장에 서면 주먹권 손에 힘이 가해진다. 세월 무상이 깊이 다가온다. 그 곳 만의 기(氣)의 진동을 느낀다. 나의 몸과 의식을 뒤흔드는 힘이 있는 것이다. 풀무학원의 교육에서도 이런 진동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가서 본 풀무학원의 모습

필자는 평소에 우리 나라의 제한된 여

건 속에서도 독특하게 운영하는 학교(최근들어 일부 학자들에 의해 대안교육이라는 썩 어울리지 않은 이름을 얻고 있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자연스레 풀무학원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뻐에는 풀무학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 달랐다. 아니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은 다 버리고 다시 알아야 할 만큼 크게 달랐다. 그렇다! 이 학교 만은 직접 가서 보아야 한다. 그들이 흘린 땀과 뿌린 혼의 께적을 조심스럽게 느껴야 한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팔쾌리에 자리하고 있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1958년 4월 23일에 풀무고등공민학교라는 이름으로 현 방앗간 한채를 헐어 만든

교실 한 칸, 교사실 한칸 흙바닥에 대들보가 보이는 건물에서 학생 16명으로 시작했다. 그 당시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학교는 많이 발전된 모습이지만, 풀무인들은 그 때의 교육을 잊지 못한다. 따라서 이 학교의 자량은 시멘트로 지어진 본관이 아니라 뼈대는 옛날 그대로인 초가집인 부속실에 있다. 제빵실, 목공실, 과학실, 탁구실, 농업실 등으로 쓰이고 있는 이 건물은 지금은 지붕에 슬레이트를 얹어 옛날 초가집의 모습은 잃었지만, 이 학교의 모든 진지하고 영적인 역사가 함께 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 건물의 흙바닥에서 공부했던 시절, 함석헌 선생, 송두용 선생 등이 풀무 젊은 이들의 자아의 싹을 키워 주었던 곳이다. 일본 민간인 최초로 침략 사죄를 위

해 내한한 사람이 이 곳에서 올바른 평화의 정신과 역사를 이야기했던 곳이다.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그간 학교의 힘만으로 하나 둘 시설을 해 왔기에 겉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어느 구석 따와 손때가 묻지 않은 데가 없어 정이 간다'는 이 학교 근무 경력 35년의 홍순명 교장의 말이 이해된다.

학교 입구는 허전하다. 농장에 들어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교문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 이름은 돌을 쌓고 그 사이에 끼운 조그만 오석에 새겨져 있다.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실습시간에 쌓아 만들었다는데, 보통 학교의 모습과는 다른데 놀라게 된다. 원래 설립자 선생부터 '간판교육보다 실력교육'을 강조하고, 간판이 있다면 졸업생이 간판이다. 쓸데 없는 형식은 없애거나 최소화시키자. 그런 생각이 강해 20여년 동안 학교 간판을 안 달았다가 최근에야 만든 것이란다.

간소하게 서 있는 2층짜리 건물이 본관이다. 면담 시간에 대기 위해 서둘러 건물로 들어간다. 사무실에 들러 교장실을 물으려 했으나 사무실이 없다. 바로 교무실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학교에는 사무실이 따로 없다. 학교가 작아서 사무직원이 필요없기도 하지만 그 돈으로 교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쓰고, 교무와 서무의 간격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이래서 교육 위주의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된다고 한다. 어찌되었건 교장실을 찾을 수가 없다. 복도에서 쭈뼛거리고 서 있자니 교사인듯한 한 사람이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는다. 교장실을 찾는다고 했더니 연구실을 가리킨다. 그 표정이 '당신들만 그렇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교장실이란 고정 관념부터 깨라'고 하는 것 같다.

연구실에서 만난 홍교장은 자리가 너

무 누추해서 손님 맞기가 어렵다고 미안해하지만, 필자의 눈에는 3면을 가득 채운 온갖 책이며 자료들이 도리어 그 방을 매우 호화롭게 만들고 있음을 느낀다. 좋은 생각으로 가득찬 그 방에서 자연을 함께 호흡하면서 교육을 생각하는 홍교장의 35년 풀무 교육 철학은 무엇일까? 공립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그였지만, 새로 생긴 풀무의 교육관에 동감하여 젊은 나이에 타향을 마다 않고 떠나온 고향이 아닌던가? 홍교장을 붙잡고 교육관에 대해 묻지만, 그는 한사코 풀무의 교육은 모두의 것이지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면서 사양한다. 여기에서 또 다시 무두무미의 교육을 확인한다.

학교에 대한 고정 관념이 깨지는 학교

이 학교의 모든 직원은 거의 비슷한 봉급을 받는다.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박봉이다. 물론 결혼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가 더 지급된다. 교장과 교사가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서부터 당직을 하는 일까지 거의 같다. 홍교장은 중국어를 가르친다. 사실 그의 전공은 중국어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국어를 가르치느냐는 필자의 물음에 그는 매우 중요한 교사의 특성 하나를 말해 주었다.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가르치면 금방 알게 되더라는 것이다. 이해가 좀더 빠른 학생이 있으면 그에게 배워 가면서 공부했더니, 학생도 좋아하고 이제는 제대로 가르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학교에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도 있다. 21명의 교사 중에 자격증 있는 교사는 16명인데, 이 학교에서는 자격증 유무를 따지지 않고 학생을 좋아하는

”

이 학교 본관 앞에는 큰 자연석에 '偉大한 平民'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 학교의 교육은 평민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졸업생을 일생의 본업을 시작한다는 뜻에서 창업생이라 부르는데, 아마도 평민을 기르는 교육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정신으로 지역 사회에 나가 자기일에 충실하면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교육시킨다.

”



사람, 자기 영역의 전문인이 될 수 있는 직업인, 학부모들이 모두 다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사는 이 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토의하고 배우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양성이 된다. 이들은 이런 교사 양성을 현장 양성이라고 한다. 생활을 통해 가르치고 질문 토의식 수업을 하고 성장 단계와 성격에 맞추어 교육을 하며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보고 교육을 한다. 이는 물론 학생 정원 70여명에 교원들은 21명이 있기 때문이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학교가 교사를 보는 눈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다.

‘작은 것이 교육적이다’ 응고집

학교 설립자 중의 한분이신 주옥로 선생이 ‘진리와 교육’에 남긴 말은 풀무학원이 길러내려는 인재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나는 사람의 길을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교육이나 믿음을 내것으로 갖지 못하는 미개인들이니, 둘째는 교육 만으로 살고자 하는 지성인, 셋째는 교육의 바탕 위에 믿음을 빼다 삼아 참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인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교육과 믿음을 갖추고 서로 도와 남을 위해 봉사하는 빛과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될 인간이 되자는 것이 나의 인생 철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식인, 기업인, 높은 관리 등은 얼마든지 있으나 밀뿌리가 될 기본층의 평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가꾼 사과알을 따려는 이는 많으나 사과 나무를 복돋우고 퇴비를 주어 사과알을 열게 가꾸어 줄 일꾼, 민족의 주인공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 학교 본관 앞에는 큰 자연석에 ‘偉大한 平民’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학교의 교육은 평민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졸업생을 일생의 본업을 시작한다는 뜻에서 창업생이라 부르는데, 아마도 평민을 기르는 교육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정신으로 지역 사회에 나가 자기일에 충실하면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교육시킨다.

작은 것이 교육적이다.

학교가 작고 학생수가 적다 보니 상식을 벗어난 방법이 쉽게 정착된다.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과목은 능력에 따라 지도하게 편성한다. 자기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학년에 관계없이 기본반에 들어가 배울 수 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자유 선택 시간이면 학생들은 여러 소집단으로 흩어져 배운다. 원래는 학년당 1개반씩 모두 3개반이지만, 이 시간에는 6개반으로 나뉜다. 학생들이 가진 개인차를 최대한 반영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이다.

풀무농업기술학교는 정규학교로 허가도 나지 않고, 학교도 학력 인정 각종 학교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년당 1학급의 교육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규정에는 학급 규모가 40명이지만, 교사들의 지도 능력을 고려하여 25명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인격 교육이 가능해지고, 면대면의 대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갈수록 커져만 가는 우리의 학교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총합 학교를 지향하며

풀무는 인간형성, 농업기술과 고등학교는 실업과 인문과정을 포함해 인문학교와 실업학교의 이원성을 극복해서 인

간교육과 전인교육을 하는 종합학교의 성격이 학교 이름에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종합학교는 여러 학과가 서로 넘나들지 못하고 나란히 공존하는 학교인데 반해 종합학교는 학교 안에서 학과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뒤섞여 있는 학교라는 것이다.

농업학교이기 때문에 농업 실습이 많다. 실습지에는 논이 2천평, 채소 온실 3백평, 화훼 온실 백평, 농기계 창고 겸 기계공작실이 있다. 그밖에 염소 축사와 양계장, 제빵실, 가공실, 컴퓨터실, 목공실 등이 여기저기 부분별로 흩어져 있다. 실습시간이 하루 걸러 오후 마지막 시간에 2시간씩 있는데, 학생들은 여러 부문에서 맞는 것을 골라 실습을 한다. 실습지는 ‘일만 하면 소, 공부만 하면 도깨비’이기 때문에 일도 하고 공부도 하자’는 개교 이래 설립자의 정신을 살리는 이 학교 최고의 교실이다. 일을 통해서 추상적이 아닌 지식, 성취감, 참용성을 기르고 직업 세계를 탐색하며 자연과의 위대한 만남과 학교 공동 생활을 실현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학교의 창업생(졸업생이라는 말 대신에 창업생이라 한다)들은 여러 분야에 골고루 평범하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장에자 복지기관, 학교 교사, 유기농업, 자영업 등 정직하고 굳건히 자기 길을 걷는 선배들이 있는 것이 이 학교의 자랑이 되고 있다.

짧게 보면 더디지만, 길게 보면 빠른 교육

풀무학교에 동생을 입학시켜 3년째가 된 분과 전화로 인터뷰를 해 보았다. 그녀는 서울에서 기독교시민운동에 관여하고 있는데, 동생이 중학교 3학년애 다닐 때에 어떤 목사의 권유로 풀무학교



를 방문하고 학교장으로부터 학교 소개를 받았다고 한다. 학교의 교육정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 동생이 이 학교에 다니겠다고 하자, 자매가 나서서 어머니를 설득하여 승낙을 받고 전학했다는 것이다. “학교에 보낸 후에 결코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 의식과 민감성, 주체성이 몰라보게 길러졌다. 동생의 말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건의하여 결정한다. 가족, 학교, 학생 모두가 다 행복해 하는 교육인 것 같다. 학생 개인들이 필요로 하면 개인 지도를 해 준다. 독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독서 강사를 확보해서 교육시켜 준다. 동생은 대학에 입학할 것인데, 다른 학생들처럼 당년에 가면 좋지만 재수를 해도 좋다. 재수는 언제나 할 수 있지만 풀무학교에서의 교육은 지금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짧게 보면 더딜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빠른

교육이 이 학교의 교육 아닌가 한다. 영혼과 인격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공동체 학교

학교에서의 이야기를 끝낼 때쯤 해서 홍교장이 나가서 볼 것이 있다고 한다. 학교 실습지를 보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선 길이 지역사회 답사가 되었다. 풀무신용협동조합,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갯골어린이집, 바른식품공장, 풀무비누협동조합, 밀사랑, 흥동지역사회연구소 등을 둘러 보았다. 이 학교에서 발간한 안내서 속에는 이 외에도 시골문화사, 주간홍성, 바른식품공장, 정농회 흥성지부 등이 안내서 속에 버젓이 한 면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학교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학교가 지역사회와 얼마나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학교와 지역의 담이 철거되어 이 공동체가 곧 학교의 연장임을 느끼게 해 주는 사례이다.

취재를 마치고

불현듯 많은 것을 잃고 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위가 허찮아질 때도 있다. 앞만 보고 뛰어서이다. 교육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잡히는 게 없다. 허무하다. 고향 쪽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마음 속에 자양분을 한껏 채우고 싶다. 풀무학원이 고향 마을처럼 다가온다.

풀무학교는 우리 교육의 실험실이다. 국가 지원 없이 자립 정신과 교육에만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를 길러 내는 이 학교를 후원하기 바라는 사람은 전국 은행 및 농·수·축협 의 지로를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오천원, 만원, 십만원 이상을 내는 회원이 있는데, 지로번호는 7613429(풀무학원 후원회 장기려)이다.



민족혼 드높인 음악의 선각자

— 채동선의 음악세계 —

한 상 우

채동선의 생애

채동선 선생은 1901년 6월 11일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서 아버지 채중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채중현은 전라도의 부호로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우는 등 여러 가지 공익사업에 힘을 기울인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식들에 대한 그의 교육열은 남다른데가 있어 채동선은 8세 때부터 벌교에서도 수십리나 떨어져 있는 순천공립보통학교를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어른들에게 업혀서 통학을 했다. 1915년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서울로 올라와 경기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으니 그의 나이 15세 때였다.

경기고보에 다닐 때에도 그는 언제나 우등생이었고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지도적 위치에 있어 3·1만세 사건이 터지자 그는 적극적으로 이에 가담해서 결국 4학년 때 경기고보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왜경의 감시를 받게 되자 아버지는 채동선을 일본으로 보냈고, 동경으로 건너간 그는 와세다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여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비록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영문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밤중에도 다락 속으로 들어가 몰래 바이올린 연습을 하는 등 음악공부에 열중했다.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바이올린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독일 유학길에 올랐고 1929년까지 독일에서 5년간의 유학생생활을 했다.

독일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베를린의 슈테르센 음악원에서 리하르트 할체에게 바이올린을 사사받았고, 빌헬름 클라헤에게서 작곡을 사사받았다.

일제의 발악이 점점 심해지자 채동선은 고향의 땅을 처분하고 서울 근교인 수유리에 2만평의 땅을 사서 고등소채와 관상묘목 등을 길렀는데 당시 그가 남겨 놓은 농작물 재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지금 보아도 원예 방면의 지침서로도 훌륭한 것이며, 관상수와 화초에 대한 그의 생각은 아직도 식용작물 재배에만 국한되었던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실제로 그가 재배한 묘목들은 후일 비싼 값으로 팔려나갔고, 서로 이것을 사려는 꽃장사들로 집안은 장

사진을 이루었다고 하니, 비단 음악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그는 철저하고도 앞서가는 선각자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제의 압제도 극에 도달해 한복을 입지 못하게 할 때에도 그는 언제나 한복을 입었을 뿐 아니라, 성북동 집의 문패에도 성북동 '183의 17'이라고 숫자와 숫자 사이에 우리의 글 '의'자를 집어넣어 굽힐 줄 모르는 민족의식을 지켜 나갔던 것이다. 한편 농사일뿐 아니라 사진에도 취미를 가져 집안에 암실까지 차려놓고 사진을 직접 뽑아내기도 했으니, 어떤 일이건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아예 뿌리를 뽑고 마는 성격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1945년 드디어 해방을 맞게 되자 그 동안 참고 살아왔던 정열이 일시에 폭발하듯 한국 악단의 재건을 위해 온 힘을 쏟아 초창기 이 나라 음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 나라에도 이제는 국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있어야 한다고 부르짖으며 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가 하면, 작품 활동에서도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가곡의 틀에서 벗어나 조국의 독립과 영원한 발전을 위한 교향곡 「조국」, 「독립축전곡」, 「한강」 등 애국적인 곡들을 만들어 내었다. 예전대 낭만적이면서도 고향을 생각해 하는 작품들을 작곡하던 그가 해방 후에는 「선열추모가」를 비롯해서 한글날, 삼일절, 개천절, 무궁화의 노래 등 국민 애창을 위한 노래들을 보급코자 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음악을 통해 해방된 조국의 재건을 위해 이바지하려는 의도가 분명했고, 또 그러한 의도를 채선생은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아직 정부도 수립되지 않은 채 미 군정 하에서 우왕좌왕하던 1945년 해방 직후에 '고려음악회'를 조직해서 회장에 취임했고, 문필가협회 부회장으로도 활약했는가 하면, 1948년에는 다시 '고려합창협회'를 조직, 고문에 고의동, 안호상, 명예회장에 윤보선, 회장 채동선, 부회장 박태준, 그리고 지휘는 채선생 자신이 맡아 활발하게 운영해 나갔다. 이처럼 작품 활동과 사회활동에 정열을 쏟으면서도 그는 우리 고유 음악인 국악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민요를 양악 악보로 채보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작업은 최초의 민요 채보작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채선생은 육자배기 채보에 남다른 정열을 기

울여 레코드를 들으며 밤새껏 채보를 하기도 했고 판소리에도 손을 대어 춘향전을 채보했는가 하면 뱃노래 등은 독창곡과 합창곡으로 편곡해서 관현악 반주까지 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작업들이 쉬운 것처럼 생각될는지 모르나 보통의 열정이나 안일한 생활태도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업적이라 할 것이다.

평생을 적당히라는 것을 모르고 옳다고 느끼는 것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타협을 모르는 불굴의 정신이 곧 예술정신임을 생각할 때 요즈음처럼 정신세계가 좀먹어 들어가는 현실에서는 더욱 채동선 선생의 생활 태도에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된다. 채동선 선생은 귀국 초 잠깐 이화여전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으나, 그 후르는 한번도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지 않았고 주로 집에서 바이올린과 작곡을 지도했지만 절대 돈을 받지 않았다. 해방 후 한때 경기여고와 서울대 상과대학의 교수를 역임했으나 이때도 음악이 아닌 독일어 교수였다.

이처럼 그는 음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끝까지 사양했고 예술활동은 어디까지나 예술을 위한 것으로 족하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음악계의 선구자들이 주로 음악 교육자로서의 업적을 음악계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 자연히 그에게는 제자가 없음으로 해서 그의 음악적 재능과 업적을 후세에 남기도록 하는 후학 양성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해방된 조국의 감격 속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동분서주하던 채동선 선생은 6·25전쟁이 터지자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했고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병석에 눕게 되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을 몰라 병상에서도 작곡을 하곤 했다. 그러나 복막염이 악화되어 부산에 있던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1953 2월 2일 피난지 부산에서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작곡가로서의 채동선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산평이 알을 품고 빠꾸기 체절에 울건만/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오늘도 뒤편에 홀로 오르니 한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이

쓰디 쓰다/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
높푸르구나.

정지용 시인의 시 「고향」에 붙인 채동선 선생의 가
곡 「고향」은 참으로 오랫동안 나라 잃은 우리 민족에
게 깊은 위로와 주었음을 뿐 아니라, 고향에의 애절한
감정을 음악적 서정과 아름다운 선율의 세계로 재창
조해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마음의 노래로 남게 되었
다.

그러나 채동선 선생이 남긴 작품들 가운데 가곡으
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이 12곡인데 이 12곡 가운데
에서 대표작인 「고향」을 비롯한 8곡의 가곡이 모두
정지용의 시를 가사로 한 것이어서 채동선 선생의 가
곡들은 뜻하지 않게 수난을 당하게 되었다. 6·25
이후 정지용의 가사를 쓸 수 없게 되자 가곡 「고향」
의 경우는 「망향」, 「그리워」 등 여러 가지 제목과 가
사로 불려지게 됨으로써 한국의 가곡 가운데 채동선
선생의 고향만큼 갖가지 제목과 가사로 불려진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정지용의 시는 가곡의 가사로 쓰기에는 적합
하지 않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가곡을 어떤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쓰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1930년
대 창가조의 가곡들을 쓰고 있었을 때에는 음악의 호
름에 맞는 정형시라야 작곡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시
자체가 난해하면 가곡의 가사로 선택되기가 어려웠
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채동선 선생이 정지용의
시로 8곡의 가곡을 작곡했다는 것은 시에 대한 채동
선 선생의 접근이 남다른 데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다시말해 채동선 선생은 단순한 가곡의 가사로서의 시
보다는 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내용에 더 깊
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정시보다는 민족의식
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는 민족혼을 시에서 찾지 않았
나 생각된다.

30년대에서 40년대에 이르는 기간 중에 많은 작
곡가들이 우리 가곡들을 작곡했지만 30년대 우리 시
단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정지용의 시를 가사로
선택해서 가곡을 쓴 작곡가는 채동선 선생과 김성태
선생 두 사람 뿐인 것을 생각할 때 정지용의 시가 작
곡가 쪽에서 보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므로 정지용이 우리의 정서,
우리의 소리를 시 속에 담아 내었고, 그의 시가 표현
해 내고 있는 향토적 내용이 뜨거운 공감력으로 채동

선 선생에게 다가왔다면 필경 채동선 선생의 정신세
계도 한민족의 얼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가곡이 예술가곡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와 음
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예술로 승화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 작곡가는 시를 읽고 시의 의미와
정신, 그리고는 문학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채동선 선생이 가
곡의 가사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정지용의 시를
구태여 선택했다는 것은 정지용의 문학적 메시지와
채동선 선생이 음악 속에 담으려는 메시지가 강한 공감대
를 형성했기 때문이며, 정지용 시에 대한 깊은 이해
도 와세다 영문과 출신으로서의 문학적 소양과 해방
후 문필가협회 부회장을 지낼 정도의 전문 문필가의
영역에 도달해 있는 채동선 선생의 시에 대한 출중한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정지용이 우리 나라 시단에서 빛나는 거목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이
지만 한국의 시문학사를 엮어갈 때에도 30~40년대
정지용을 빼면 큰 구멍이 날 것이다. 그런만큼 정지
용과 채동선의 만남은 특별한 감동을 느끼게 하며 더
욱이 정지용의 시가 정지용 남북사건으로 인해 작품
사용이 금지되자 채동선 선생의 가곡도 가사를 바꿀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예술인들의 순수 작품에 대한 해금작업이 이루어
지면서 정지용의 시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정지
용이 월북이나 남북이나 하는 문제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남북이었다는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되었지만, 어쨌든 40년만에 해금이 이루어
지면서 그 동안 헤어졌던 채동선과 정지용의 만남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88년 3월 서울의 예음
홀에서는 채동선 자료전시회가 열렸고 이 이색적인
전시회는 바로 정지용의 시를 되찾는 감회 깊은 행사
이기도 했다. 그 후 다시 채동선 선생의 가곡 「고향」
은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

한상우

- 음악 평론가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문화방송 방송위원
- 공연윤리 위원회 위원
- 현재 서울예고 음악 과장

특수학교 학급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이 나 미

(본원 교육기초연구 3부장)

* 이 글은 1994년도 특수교육연구부의 연구과제(수행자: 이나미, 박경숙, 강영택)를 요약·정리한 것임.

특수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특수학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앞으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아동들이 학령기 이후에 최대한의 독립적인 생활자, 경제적인 소득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또한 교육부 의뢰과제로 특수교육법시행령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연구가 시행되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이론연구를 기초로 하고 현장 면담, 질문지 조사, 교사보조원을 활용한 학급운영 실험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특수학교의 실태파악과 함께 효율화 방안을 구안하였다. 주요 실태와 효율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 학급규모가 조정되어야 한다.

전국적인 평균 학급당 인원수는 유치부 7~8명, 초등부 9~10명, 중학부 11~12명, 고등부 12~13명이다. 이 인원수는 대도시의 경우에 더 많아서 15~17명이 배치된 경우가 약 30% 정도 된다. 이 학급당 인원수는 일반학급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특수아동의 학습 및 행동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정 학급 규모에 미치지 못하며 개별화 지도는 실시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선행 연

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별 적정 학급당 학생수는 장애정도와 연령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그 적정 인원수는 <표 1>과 같다. 이 인원수는 교사보조원의 유무, 자원봉사자의 여부 및 지도교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둘째, 개별화 교육의 실천 및 평가가 있어야 한다.

개별화 교육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필수적인 교육방법이다. 특수학교 교사 중에서 41.2%가 전 학급의 학생에 대하여

<표 1> 장애정도에 따른 부별 적정 학급당 학생수

구분	부 별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장애정도				
경도장애	5~6명	6~7명	7~8명	7~8명
중도장애	4~5명	4~5명	5~6명	6~7명

개별화 교육계획서를 작성하며 일부 학생에 대하여 개별교육계획을 작성하는 교사는 36.2%이다. 그러나 실제로 전 학급의 학생에게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는 29%이며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표 2>와 같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

급당 학생수가 조정되고 학생들을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른 학급배치를 하는 경우에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개별화 교육은 실천하고 평가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평가가 엄격하지 못하여 교육효과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적인 개별화 교육의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교육평가를 강화하여 교사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관련전문인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은 특수교사 뿐만 아니라 특수아동의 장애를 극복 혹은 완화시키는 필수요건으로서 관련 전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예·체능전담교사, 직·작업교사, 물리치료교사, 작업치료교사, 교과전담교사, 상담교사, 진로지도교사, 청능훈련교사의 협력이 필요하며 현재에는 자격증 제도가 없으나 언어치료교사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이들 전문교사에 대한 요구는 행정가 집단과 교사 집단이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정도가 약간 다르며 장애영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위 전문교사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다.

이 관련전문교사에 덧붙여서 자원봉사자의 활용도 매우 필요하다. 아직도 특수학교의 교사 중에서 23.5%의 교사만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특수교육학과 재학생, 관련학과 대학생(교육학과, 아동학과,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표 2> 학급에서 개별화지도를 실시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

내용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학급 학생수의 과다	58.2%
학생들의 장애 중복화, 증중화	29.2%
입시지도에 따른 학생별 진도	0.4%
수업 시수 및 잡무의 과다	10.1%
개별화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2.1%
계	110%

<표 3> 교사보조원의 주된 역할

내용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개별화 지도 보조	16%
학습자료 제작 및 배부	13%
생활지도 보조	12%
야외활동시 이동 보조	15%
수업준비 및 진행 보조	11%
특정교과(예·체능) 지도	5%
식사 지도	11%
놀이 지도	9%
학생 행동 관리	8%
계	100%

등), 지역사회주민, 학부모, 자선단체 종사자, 종교단체 종사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보조원제를 두어야 한다.

특수교육의 대상 아동들은 신체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학습면에서도 일반 아동들과는 달리 개별적인 도움을 매시간 필요로 하므로 교사보조원제를 두어 담당교사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교사보조원을 교실에 둠으로써 교사는 좀더 많은 시간을 학습시간에 배당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태도와 교사와의 관계에도 도움을 주게 되었다. 교사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것은 <표 3>과 같다.

이상과 같이 개별화 지도에서부터 학생 행동 관리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의 모든 면에서 교사보조원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교사와 행정가의 요구가 매우 다르다. 교사는 특히 교사교류제의 확대,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교 증설, 통합교육의 적극 지원, 행

정업무의 간소화 및 학생들의 진로대책 마련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행정가 집단의 요구는 특수교육에 관련된 연수를 요구하여 개별화 교육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연수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직업교육 및 직업재활관련 연수를 크게 원하고 있다.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교사는 특수교사의 수당 및 연구보조비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교육환경의 개선, 학습교재·교구의 확충을 원하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는 사립의 비율이 67.9%인데 반하여 국·공립에 비해 교육환경이 매우 나쁘므로 사립특수학교의 시설·설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여섯째,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수아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의 이해와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70% 이상이 학교에서 자녀가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장애 사회생활을 위하여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받기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자신들에 대한 부모교육에서도 장애유형별 진로 및 진로대책에 대하여 더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즉 자녀의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생활교육, 실용학문교육, 직업교육 등 대부분이 개별화 교육에 의해 실제 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기 원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연수의 내용도 사회 적응력과 진로대책에 관한 요구가 가장 크다. 학습에 보탬이 되는 교육자료의 개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 장애 원인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를 가진 가족의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서도 연수의 요구가 매우 크다. 따라서 학부모를 학교에서 행하는 교육내용에 관하여 인식시키고 개별화 교육에 참여시키며,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연수의 요구에 맞추어 부모 교육에 임할 필요가 있다. ㉞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과 연수 방안 연구

최 운 실

(본원 교육정책연구 4부장)

1.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연구 개관

이 연구는 사회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내실화를 위한 1차적 관건이 되는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연수제도와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했던 연구 산출물은 사회교육 전문요원 양성제도와 양성과정, 사회교육 전문요원 연수제도와 연수과정, 그리고 사회교육 교사, 강사들의 양성 및 연수제도와 과정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내용은 ①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개념은 무엇이며, 사회교육 전문지도자의 유형별 역할과 자질은 무엇인가, ② 현재 우리나라 사회교육 전문 지도자의 양성·연수 제도 현황은 어떠

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③ 외국의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연수 체제는 어떠한가, ④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연수 실태는 어떠한가, 사회교육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연수의 문제와 그 개선을 위한 의견과 요구는 어떠한가, 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교육 전문지도자의 양성·연수 제도와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다섯 가지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내용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사회교육 전문지도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연수 제도와 문제점, 외국의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연수 사례 등의 분석을 위한 문헌연구와 현행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연수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사회교육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자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의 실시, 그리고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연수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새로운 양성·연수 체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 2회에 걸친 전문가 워크숍 등이었다.

2. 사회교육 전문지도자에 관한 이론적 접근

이 연구에서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연수 방안의 개발을 위한 시사를 도출하고 방안 탐색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접근으로 먼저 사회교육 전문지도자의 개념 모형과 유형을 분석하고, 사회교육 전문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을 각종 문헌 및 관

현 법규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회교육 전문지도자의 개념은 사회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교육 전문요원과 사회교육 현장에서 직접적인 지도를 담당하는 사회교육 교사, 강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사회교육 전문지도자의 유형은 조직내 기능 및 역할에 따른 분류와 관여 정도 및 근무 유형에 따른 유형화, 전문성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 등 다양한 분류준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유형과 준거에 따라 사회교육 지도자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이들 유형별로 자기 다양한 기능과 역할, 능력이 요구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문지도자에는 상층부의 기관장 및 최고 행정가, 중간 지도자, 실천부의 전문 및 현장 지도자가 있을 수 있으며, 근무 형태에 따라 전임과 비전임, 상임과 비상임의 사회교육 지도자, 그리고 유급 무급의 지도자와 자원봉사자가 있다.

사회교육 전문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에 있어서는 관련 문헌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역할과 요청되는 능력과 자질이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는 사회교육 지도자가 조직자와 계도자, 정보제공자, 전문가, 학습촉진자, 조정자, 전문영역의 교사 등의 역할 모형

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역할 모형을 근거로 사회교육 전문지도자는 사회교육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정보의 구득은 물론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 실시, 평가, 피이드백, 그리고 조직 능력 등을 다양하게 갖추어야 함을 분석·제시하였다.

3. 우리나라의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과 연수 제도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과 연수제도는 전문지도자의 유형 중 전문요원만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제시된 사회교육 전문요원 양성 및 연수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회교육법시행령(제 19조)에서는 전문요원의 유형을 학력에 따라 대학원 및 대학 이상 수준의 1급 전문요원과 전문대학 수준의 2급 전문요원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사회교육 전문요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 제한없이 모두 사회교육학 20학점(필수 2과목 포함)을 이수하되, 이수과목의 학습성적이 평균 80점 이상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

(원)이나 전문대학을 통하여 양성된 전문요원 수는 1, 2급 총 10,229명(93년 9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사회교육 현장에서 전문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약 1% 수준인 100여명밖에 안된다.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연수기관에서도 전문요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연수원의 미확보로 인해 현재까지 전문연수기관을 통하여 양성된 전문요원은 한 명도 없다.

이 연구에서 현행 전문요원 양성, 연수와 관련해서 문헌분석 및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으로는 ① 현행의 전문요원 양성제도는 사회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유형의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고, ②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양성과정은 전담교수의 미확보와 담당 교수의 열의 부족, 부실한 현장실습 및 특정 영역에 편포된 과목 이수 등으로 전문성에 문제가 있으며, ③ 사회교육 기관 및 단체에서 전문요원 배치가 법적 강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된 전문요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④ 보건사회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많은 사회복지관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배치하되 사회교육 전문요원은 배치하지 않는 등 사회교육 전문요원 배치 및 활용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고, ⑤ 사회교육법상 대학 이외의 전문연수기관에서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사회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온 현장 지도자들의 자격 인정을 돕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요원 연수원 설치에 관한 규정이 비현실적이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금까지 단 한 개의 연수원도 설립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① 현행 전문요원 양성제도를 전문요원과 교사, 강사 모두를 양성하는 체제로 개선해야 하며, ②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전문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설하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담 교수를 확보하고 이수 학점수를 대폭 강화하여야 하고,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위해 실습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적합한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③ 양성된 전문요원의 효율적 활용과 충실한 사회교육의 실시를 위해 사회교육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회교육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전문요원을 채용하도록 명문화하고, ④ 사회복지관이나 교육청 및 시·도청에서 각종 공무원 채

용시 사회교육 전문요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⑤ 대학 이외에도 전문요원과 교사, 강사가 양성, 연수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사회교육 전문지도자(전문요원) 연수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사항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과 연수 체제와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얻고자 유사제도인 청소년 지도자 양성, 연수와 직업훈련교사 양성, 연수 제도를 분석하였다. 유사 자격제도인 청소년 지도자와 직업훈련교사의 양성 및 연수 제도 분석을 통해서 사회교육 전문지도자의 유형과 자격을 업무성격에 따라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도자의 양적, 질적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고, 양성과 연수 통로의 다양화와 과정의 전문화를 위해, 그리고 기존의 사회교육 종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새로운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 및 연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외국 즉,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 현황과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의 사회교육 행정가와 전문가, 그리고 실제 사회교

육 현장에서 사회교육 전문지도자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교육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양성과 연수제도 및 과정에 대한 교육문제 진단 의견과 요구를 수렴, 분석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이 사항에 관해서는 지면 관계로 소개하지 못하므로 연구 보고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4.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과 연수 방안

이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해 사회교육 전문지도자 양성과 연수 방안을 ① 사회교육 전문요원 양성방안, ② 사회교육 전문요원 연수방안, ③ 사회교육 교사, 강사 양성방안, ④ 사회교육 교사, 강사 연수방안 등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양성과 연수의 기본 방향으로 는 사회교육 전문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라는 대전제하에 ① 사회교육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전문화와 다양화, ② 사회교육 전문요원 연수의 강화, ③ 사회교육 교사, 강사 양성을 위한 '사회교육 공통 교육과정'의 신설·운영, ④ 사회교육 교사, 강사 연수의 강화라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방안

에 있어서는 현행보다 자격증 유형별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고 자격 종류를 현행의 1급과 2급의 구분에서 주전문요원을 포함한 세 단계로 세분화하고 다양화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 근무경력 인정을 강화하였고 '사회교육 전문 자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교육 실습기관과 현장 근무경력 인정, 사회교육 자격의 부여와 자격여부 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성기관에 있어서도 대학과 대학원, 전문대학 외에 사회교육연수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연수원에서 전문요원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양성과정의 이수 학점을 현행보다 2배 이상 강화함과 동시에 이수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교육 전문 교과와 비율을 높이고 필수과목의 비중 또한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교육원이 확보된 이후'라는 전제하에 사회교육 실습의 비중을 현행보다 2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유형에 속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하도록 실습기관을 다양화하였다. 양성과정은 대학과 대학원, 전문대학별로 공통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여 단위 학점 및 시수별로 다양한



교과 구성 예시안을 제시하여 각 기관의 여건이나 과정의 성격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연수 강화를 위해서는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사회교육연수원에서 자격종별 연수를 20시간에서 40시간에 걸쳐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시간별 연수과정의 예시적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포함하여 개발·제시하였다.

사회교육 교사, 강사의 경우 양성 방안으로는 현재 사회교육 교사, 강사가 해당 분야별로 각기 양성되고 있어 사회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이나 사회교육적 자

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기회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의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사회교육 교사, 강사 공동방안'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사회교육자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교사, 강사들은 사회교육연수원의 사회교육 교사,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교육 교사, 강사의 연수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사회교육 교사, 강사들이 최소한 2년 주기로 1회 이상 사회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5. 결 론

한국 사회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지도자들의 사회교육적 전문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교육 전문지도자로서의 전문요원과 교사, 강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사회교육 전문요원 양성제도를 확대, 개편,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연수제도를 강화하며, 사회교육 교사, 강사들을 위한 양성 및 연수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 때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제도와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양성기관을 대학(원) 및 전문대학에서 전문 사회교육연수원으로 확대, 다양화하며 자격종별 자격취득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교육 현장 근무경력 및 실습의 비중을 제고해야 한다. 양성과정에 있어서도 현행과 같은 비전문적 일반교과 위주의 구성을 탈피하고 전문 사회교육교과 중심으로 재편하며, 공통필수 교과의 비중을 강화하고 선택과목의 선택폭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등과 같은 정규 교육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사회교육 전문

요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교육연수원의 전문요원 자격취득과정을 설치·운영함과 동시에 사회교육 전문요원 자격취득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연수제도와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법이 정한 국·공립 사회교육연수원을 설치·운영하고, 이와 함께 인정 사회교육연수원제도를 도입하여 사회교육 연수기회를 확대·다양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모든 사회교육 전문요원이 자격종별로 연 1회 이상

소정의 연수과정을 사회교육연수원에서 이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사회교육 교사, 강사의 경우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학교교사를 위한 교직과정과 같은 성격의 '사회교육 교사, 강사 공통과정'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교육 교사, 강사들이 특정의 교습과정 분야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성, 지원하여야 한다. ㉞

◆ 바로 잡습니다 ◆ (95년 9월호)

구분	~을	~으로
110쪽 8행 10행 31행	보육료 도도부현(酪茶府顯) 문부성이 정한 최소한의 수업일수는 210일인데 지방교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입수를 더하여 현재는 240일인데, 지방교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일수를 더하여 현재는 240일이 공통으로 되어 있다.	보육료 도도부현(酪道府顯) 밀줄 부분 삭제
111쪽 1행 23행	~로 근무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과(진학과)의 2, 3학년은 직업교육에 ~	~로 근무할 당시('83~88) 초·중학교 일본 교원들의 하루 일과를 관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과(진학과)의 2, 3학년은 문과계나 이과계를 선택한다. 직업과의 2, 3학년은 직업교육에 ~
112쪽 12행	5. 교육전문직 제도와 역할	(글자 호수 크게)

인터넷 V

-World Wide Web-

유길상(본원 전산운영부)

인터넷은 다양각색의 정보가 가득찬 컴퓨터로 이루어진 정보통신망이다. 인터넷을 정보의 보고, 정보의 바다, 가장 큰 도서관으로 비유할 정도로 온갖 자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육에 티가 있다. 인터넷 대부분의 자료가 텍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일반사람들이 선뜻 다가서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므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앞서 유닉스의 명령어를 배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 오면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것이 "World Wide Web"(WWW)이다. 흔히 '웹'이라고 부른다.

최근 들어 'WWW'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비교적 사용하기 쉽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텍스트 방식에서 탈피하여 윈도우나 매킨토시 환경에서 마우스로 조작하면 텍스트, 그래픽, 음성, 화상자료까지 맘껏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회에 걸쳐 인터넷의 탄생과 인터넷의 개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를 설명했다.

이제 World Wide Web(WWW)를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이야기할 때 'WWW'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단팔 없는 단팔빵, 불펜심 없는 불펜, CPU 없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자 'WWW'의 세계를 탐험해 보자.

'WWW'은 World Wide Web - 세계를 뒤덮은 거미줄 - 의 약자로 W3 또는 Web('웹'이라고 발음)이라고 불린다. 앞으로 '웹'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웹'은 유럽의 입자 물리 연구소(CERN)에서 처음 구상되었다.

CERN에서 '웹'을 구상하게 되었던 이유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많은 과학자들이 보다 쉬운 방법으로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네트워크와 컴퓨터 장비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지만, 컴퓨터에 초보자인 물리학자들로서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낯설고 어려운 네트워크에 한 점의 포장을 해서 매우 직관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익숙하지 않은 물리학자도 쉽게 정보 교류에 참여할 수 있어, 곧 훌륭한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웹'이 가져온 이러한 성공은 곧 인터넷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점차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어

지금의 '웹' 형태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WWW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통일된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WWW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은 고퍼(Gopher)서비스, WAIS 서비스, anonymous ftp,archie, veronica, whois, finger, 유즈넷, 텔넷 접속 등으로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자원이 포함된다. WWW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매우 직관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익힐 수 있고, 일단 한 번 익히면 모든 자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사용자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웹' 활용

국내의 '웹' 활용은 주로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Postech)를 중심으로 국내 약 20여개 이상의 대학 특정학과나 연구실에서 대학의 홍보와 학과, 연구실에 대한 소개를 위한 '웹' 홈페이지가 150여개 정도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테스트 서버와 현재의 증가 추세로 볼 때 서버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학교는 학교소개뿐 아니라 학교식당의 음식 메뉴나 동아리소개, 순환버스 노선 등 캠퍼스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웹'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많은 정보통신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웹'을 통한 회사 홍보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회사소개와 아울러 입사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입사지원서를 '웹'을 통한 전자우편으로 받고 있다.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에 국한되지만 "웹"을 통한 상품, 책주문 등의 전자쇼핑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신세계백화점이 '웹'서비스를 시작하여 조만간 거의 모든 부분을 전자쇼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앙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등에서 '웹'을 통해 온라인신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기관으로는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대외경제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범적으로 '웹' 서버를 구축해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해외의 '웹' 사례

종이 한 장 쓰지 않고 출판물 하고 제품이나 회사를 홍보하는 회사들이 들고 있다.

'웹'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잡지, 사보, 홍보물, CD-ROM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보다 비할 바 없이 빠른 속도로 가능해지게 하고 비용적으로 더 경제적인 방식이다.

TIME에서는 주간지, 일간지 TIME 기사들을 매일, 주마다 웹을 통해 전세계로 전달하고 있다.

또 정부기관으로 대표적 예는 백악관이다. 대통령의 환영 인사가 나오고 백악관에 대한 소개를 그림과 함께 볼 수 있다. 백악관의 행사가 날짜별로 나와 있으며,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의견을 보낼 수도 있다.

또한 교육에도 '웹'의 열풍으로 온라인 교육서버들이 속출하고, 인터넷과 '웹'을 이용한 새로운 교육방법이 제시되면서 가상도서관 가상학교 등의 개념이 생겨나게 됐다.

'웹'은 학교에서 교사가 할 수 없는 보조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웹'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첫 시작점만 제시해 주면 학생들 스스로 찾아 주는 능동적인 자세를 유도할 수 있다. 어느 서비스에서는 교사들의 교육 및 강의 정보들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각종 의견 교환을 통한 교류도 이뤄지고 있다.

마케팅 분야는 각종 회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분



야 중 하나이다. '웹'을 통해 제품정보, 제품사양, 카탈로그, 온라인 설명서 등과 같은 서비스들을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의 홍보는 물론 마케팅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제품판매에도 이용하고 있다.

‘웹’ 사용환경

‘웹’은 텍스트, 음성, 그래픽, 화상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제약조건이 따른다.

1. 386 이상(최소)
486 이상(권장)
2. 램 : 4메가 이상(최소)
8메가 이상(권장)
3. 음성지원시 사운드 카드 장착
4. 윈도우즈 설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웹’을 사용할 수 있다. 286이나, 윈도우즈가 실행이 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개발원 외에서 모뎀으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뎀을 통해 ‘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4400 bps 이상의 모뎀이 필요하다. 28800 bps 모뎀이면 더욱 좋다. 그리고 ‘trumpet’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웹’을 사용할 수 있다. 요즘 상용서비스(하이텔, 천리안, 나우콤)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검색 프로그램

○ Netscape

검색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뛰어난 프로그램으로 별명은 ‘모질라’.

모자이크를 개발한 NCSA 개발진 대부분이 개발에 참여했다. 시장에서도 최상급 검색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검색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사용자가 파일 일부를 지켜 보는 동안에도 나머지 부분을 계속 검색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웹’ 이용자 가운데 75%가 사용한다.

○ 모자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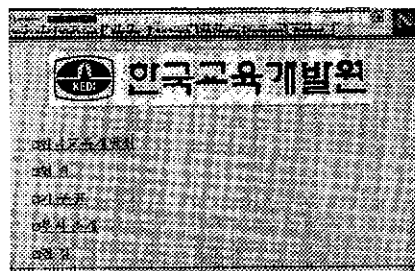
실용적인 검색 프로그램으로서는 첫 작품이었다. 그러나 속도가 느리고, 가장 큰 문제는 파일을 전송받을 때 파일 전체가 전송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OS/2 워프 웹브라우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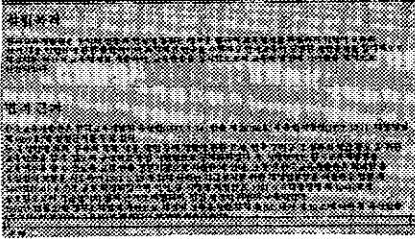
IBM의 검색 프로그램이다. 작동이 원활하고 민첩하며, 성능도 뛰어나다. 한가지 흠이면 IBM의 OS/2 워프에서만 작동을 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검색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검색 프로그램 중 사용하기 편한 것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웹’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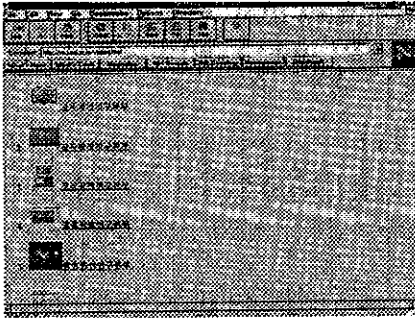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도 ‘웹’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아직 시험중이지만 개원 기념일에 맞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의 홈페이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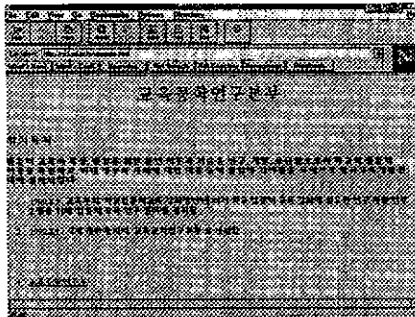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설립목적>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소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립목적
 2. 한국교육개발원의 연혁
 3. 한국교육개발원의 기구표
 4. 한국교육개발원의 본부소개
 5. 한국교육개발원의 94년도 연구요약
- 이상 5가지를 서비스하고 있다.



<교육공학연구본부의 화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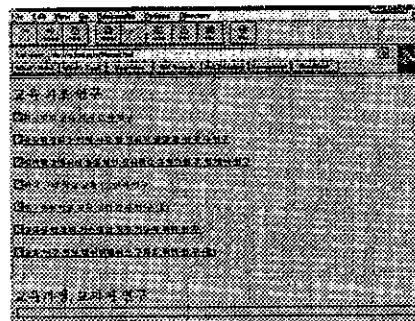
인터넷이 어렵다는 말은 옛말이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기존의 텍스트 방식에서는 대부분 유닉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므로 먼저 유닉스를 알아야 했고, 딱딱한 텍스트로 되어 있어 처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곧 흥미를 잃고 포기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웹'은 처음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흥미도 있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제 인터넷이 어려워 사용할 수 없었던 분은 '웹'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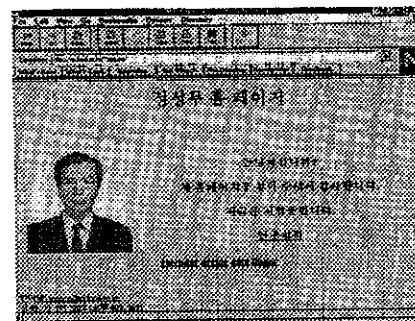
'웹'은 정보의 바다, 인터넷 항해를 도와 줄 1등 항해사입니다.

이상으로 5회에 걸쳐 인터넷을 연재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웹'에 대해 더 많은 글을 올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면 관계상 간단하게 '웹'의 개념 및 '웹'을 이용한 이용 사례를 설명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를 설명했습니다.



<교육개발원 94년 연구요약>



<전산운영부 부장의 홈페이지>

혹시 '웹'에 궁금증이 계시면 전자메일 'gsyoo@ns.kedi.re.kr'로 연락 주십시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다. 이 정보의 바다에서 자기가 찾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 이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기존의archie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웹'에서는 '야후'라는 정보검색 시스템이 있다.

'야후'란 'Yet Another Hierarchical Official Oracle'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http://www.yahoo.com/'으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가볼만 한 곳을 소개한다.

○ 교육

미국 내 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컴퓨터로 연결해 주는 'Educational Online Sources(<http://netspace.students.brown.edu/eos/main-plain.html>)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육관련 사이트와 인터넷에서 교육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미국 교육부의 웹 사이트 관련 정보	http://www.ed.gov/EdRes/EducRes.html
싱가포르 교육부 내 교육 자료	http://www.moe.ac.sg/edun/general.html
교육관련 비즈니스	http://www.nav.com/OWR/oneworld.html
세계 대학의 정보	http://www.cnweb.com/educational.html
버지니아대학의 전자 서적 센터	http://toons.cc.udsu.nodak.edu/~sackmann/k12.html
육아 교습	http://joe.uwex.edu/joe/1993fall/iw5.html
인터넷 백과사전	http://www.eb.com
Children	http://galaxy.einet.net/galaxy/Community/family/
한국과학기술원	http://glory.kaist.ac.kr
웹스터 사전 인터페이스	http://cgp.cs.cmu.edu:5013/prog/webster

○ 뉴스

조선일보	http://www.chosun.co.kr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
한겨레 21	http://news.hani.co.kr
월간 인터넷	http://www.internetmag.co.kr



Pathfinder <http://WWW.Pathfinder.com>
USA Today <http://www.pathfinder.com>
Eye Weekly <http://www.usatoday.com>
<http://www.interlog.com/eye>

○ 대학교

KAIST <http://cair-archive.kaist.ac.kr/kaist/kaist.html>
포항공대 <http://blue.postech.ac.kr>
충남대학교 <http://flowr.comeng.chungnam.ac.kr>
서울대학교 <http://www.snu.ac.kr>
고려대학교 <http://www.korea.ac.kr>
국민대학교 <http://www.kookmin.ac.kr>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인하대학교 <http://nms.inha.ac.kr>
경성대도서관 <http://kulis1.kyungsug.ac.kr>
스탠포드대학교 <http://www.stanford.edu>
카네기멜론대학교 <http://www.cmu.edu>
예일대학교 <http://www.cis.yale.edu>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http://www.mit.edu>
유타대학교 <http://www.utah.edu>
옥스포드 대학교(영국) <http://www.ox.ac.uk>
켈른대학교(독일) <http://www.rrz.uni-koeln.de>
취리히대학교(스위스) <http://www.unizh.ch>
맥길대학교(캐나다) <http://www.mcgil.ca>
쓰쿠바대학교(일본) <http://www.tsukuba.ac.jp>
동경대학교(일본) <http://www.u-tokyo.ac.jp>
중동기술대학교(터키) <http://www.metu.edu.tr>

○ 회사

한글과 컴퓨터 <http://www.hnc.co.kr>
현대자동차 <http://www.hmc.co.kr>
나우컴 <http://nowcom.co.kr>
조흥은행 <http://www.iworld.net/advertisement/chohung>
호텔신라 <http://www.nowcom.co.kr/shilla>
솔빛 조선미디어 <http://www.media.co.kr>
대우전자 <http://parrot.dwt.co.kr>
인터넷코리아 <http://www.ink.co.kr>



교과서의 난이도에 대한 이해

— 평정 방법의 동향을 중심으로

양 미 경

머리말

우리는 때로 “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지나치게 어렵다”는 비판의 소리를 들곤 한다. 그러한 지적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과서가 어렵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반문하면 그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듣기는 어렵다.

교수-학습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과서가 그것을 활용하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난이도를 지니도록 하는 것은 각국의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관심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방법을 통해 교과서의 난이도를 평정하고 또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 글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교과서 난이도의 평정 방법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 동향을 개관해 봄으로써, 교과서의 난이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교과서의 난이도에 대한 객관적 평정에의 요구

교과서가 만족시켜야 할 내용이나 외양상의 조건은 무척 많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은 대부분 명문화되어 교과서의 심의 및 선정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항목은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기준 중에서 교과서의 난이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과서의 난이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교과서 관계자들 사이에는 주로 읽기 수준(reading level)



- 서울대학교 사대 교육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교육과정연구부 선임연구원
- 「질문의 생성을 촉진하는 교육적 조건 연구」 외

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Chall, J.S.와 Conard, S.S. (1991)가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내 34개의 주요 출판사를 대표하는 출판업자(84명)와 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227명)를 대상으로 교과서가 적절한 읽기 수준을 지닌다는 것이 여타의 주요 기준들에 비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출판업자와 교사들 모두 교과서의 적절한 읽기 수준을 매우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서의 가격이나 외양 등에 비해 훨씬 중요한 요인임에는 거의가 동의하였다. 그리고 출판업자보다는 교사들이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교과서의 적절한 읽기 수준이 교사용 지도서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출판업자는 42%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들은 77%가 ‘그렇다’고 반응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교과서가 적절한 읽기 수준을 지녀야 한다는 인식하에, 교과서의 난이도 문제는 교과서를 심의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수십, 수백 종의 다양한 교과서를 대상으로 심의 및 선정을 해야 하는 주 혹은 학교 단위의 교과서 심의 위원회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러한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책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교과서 출판업계의 입장에서는 모두 활용과 의사소통이 용이한 ‘객관적’인 평정 방식 혹은 지표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교과서의 난이도는 그것을 평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식이 있을 때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는 인식은 모든 인간 활동을 과학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1920년대 초 이래 근래까지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다.

가독성 공식의 활용과 그 한계

교과서의 난이도 혹은 읽기 수준을 평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고 활용되어 왔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초기에는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집착을 보였고, 그러한 의식의 반영으로 사용되었던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독성 공식(Readability Formular)이다. 가독성 공식은 교재의 난이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객관적이고 수량적이며 비교적 사용이 간편한 공식으로서, 미국 교과서 출판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 왔다. 사용 빈도를 근거로 하여 산출된 단어의 난이도, 문장의 길이, 문장의 복잡성 정도, 수식 구와 절의 사용 등 수십 개의 요소들이 분석되었는데, 1960년대 초까지 적어도 50여 개의 공식들이, 그리고 1979년까지 약 100개에 이르는 공식들이 제안되고 활용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동안 그러한 공식들은 교사, 가독성 전문가, 학생들의 개인적 판단, 그리고 학생들의 이해도 검사 점수 등의 다른 척도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나름대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약 10년 전부터 가독성 공식을 통한 교과서의 난이도 평정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주된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첫째, 가독성 공식은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의 심도, 친숙성, 아이디어의 조직, 저자의 스타일, 편집체계 등 교재의 많은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식들은 대부분 단어의 난이도와 문장의 길이 등 지극히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측면에 주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가독성 공식은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동기, 흥미, 목적, 의지, 인지적 구조 등의 특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독성 공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어떤 교과서가 5학년에 적합한 난이도 혹은 읽기 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다른 조건이 같다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질문의 최소 75% 정도에 5학년의 평균 학생들이 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특정 학년의 평균 아동들이 교재의 주요 아이디어, 세부 사항, 추론 등에 대한 선다형 문항의 약 75% 정도 맞히는 것을 기준으로 각 교과서의 가독성 정도가 매겨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가 가지는 특정 내용에 대한 강한 관심이나 동기, 독특한 인지 구조 등을 고려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즉 특정한 내용에 있어서는, 혹은 특정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더 높은 난이도를 지닌 책을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효율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지표에 의해 일률적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고 또 선정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한편, 가독성 공식에 의해 난이도가 더 낮은 수준으로 평정되는 내용의 글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 사용 빈도가 높은 단 어들을 태하고 문장의 길이를 짧게 분리할 때, 가독성 공식에 의해 평정되는 난이도 수준은 낮아진다. 그러나 그 경우, 일반적인 사용 빈도는 적지만 맥락에 알맞는 정확한 용어를 활용하고, 수식 절이나 접속사 등을 사용한 복문의 문장 형식을 취했을 때보다 그 의미의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책이라 해도 그 책의 어떤 부분이 표집 분석되는가에 따라 난이도가 전혀

다르게 산출된다는 점, 그리고 어떤 가독성 공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내용이라도 그 수준이 전혀 다르게 산출된다는 점 등도 비판되고 있다.

가독성 공식이 지닌 이러한 한계로 인해, 가독성 공식을 따르는 것은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폐해가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 교과서 업계를 지배해 온 가독성 공식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은 가독성 공식이 그동안 표방해 온 것과는 달리, 누구나가 신뢰할 만하고 사안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교과서의 난이도 평정 위한 대안적 접근

가독성 공식이 지니고 있는 한계가 여러 측면에서 노정되면서 교과서의 난이도를 평정할 수 있는 대안들이 모색되어 왔다. 가독성 공식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보다 유용하고 사용하기 쉬운 공식으로 개선시키려는 시도도 있으나, 교과서의 난이도 평정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교과서를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들의 개별적인 특성 및 양화 가능한 측면에 주안하는 미시적이고 양적인 접근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이나 조직, 구성 등 보다 포괄적이고 질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자료의 난이도는 그것을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는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 맥락 등과

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차례로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한다. 교과서의 난이도를 가독성 공식과 같은 산술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을 통해 평정하는 대신 전문가의 경험, 통찰, 언어 지식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이는 인지 심리학, 언어학, 정보처리 이론, 인공 지능 등의 학문의 발달과 그 계를 같이 한다. 인간의 기억이나 사고 과정에 대한 이들 학문의 연구 결과들은 교재의 난이도가 개별적인 단어나 문장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나 단락 간의 연결, 흐름, 구조 등의 특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의 조직이나 구조적인 특성을 포착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는 가독성 공식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반면, 교과 교육 전문가, 독해 연구자, 혹은 수년간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의 판단은 암묵적이고 직관적이며 주관적이기는 하나, 낱말의 것이 아닌 전체의 구조를, 그리고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 함의된 것, 가정된 것 등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해 가능성 및 학습 가능성을 보다 적절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의 판단은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교과 내용과 학습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도 있으나, 인지 심리학이나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실험적 연구의 결과에 힘입는 부분도 많다. 교과서 내용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 혹은 담화 구조(structure of narrative discourse) 연구, 응집성(coherence) 분석, 명제 분석, 자료에 삽입된 질문 연구, 아이디어 제시의 농도 연구, 삽화 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야기 문법 연구, 응집성 분석, 명제 분석 등에서는 대체로 문장을 구성할 때 지켜야 할 문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에도 나름대로 지켜야 할 일종의 문법이 있다고 전체한다. 글의 전개 방식으로는 원인과 결과, 문제 제기과 해결, 비교와 대조, 결론과 그것에 대한 근거의 제시, 시·공간적 계열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구조가 명확하고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조직, 제시되었을 때 그 글에 대한 이해나 기억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즉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나아가 각 단원이 특정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의미를 구성하고, 그 구성의 원리가 학습자에게 명료한 형태로 제시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무리 익숙한 단어와 단순하고 짧은 문장들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없이 서술되는 경우, 그것은 난삽하여 이해하거나 기억하기가 어려운 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관심이나 인지적 특성에 적합한 소재나 예화를 통해 구성될 때 그 내용은 친숙하고 쉬운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볼 때, 교과서 내용의 난이도는 개별적인 단어나 문장의 특성, 그리고 그것이 다루고 있는 개념의 학문적인 수준 등을 분석함으로써 모두 파악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개념이나 원리를 다루더라도 사용하는 소재와 구성 방식에 따라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자료에 삽입된 질문 및 삽화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연구, 아이디어 제시의 농도에 관한 연구 등은 동기 이론, 정보처리 이론, 인지발달 이론, 매체 이론, 해석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로운 교재의 구성 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문가의 판단을 안내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나 학습자 등의 경험에 의해 이해, 기억, 사고의 확장 등이 용이한 우수한 교재로 판단된 것의 세부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구성하기도 함으로써 양자는 상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앞서 제시한 두번째의 동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어떤 책의 난이도는 그것이 담고 있는 속성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학습자의 인지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정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책에만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나 기억에도 구조가 있으며, 이들 '양자가 잘 들어맞을수록' 그 책은 읽기 쉽고 또 기억하기가 쉽다. 유능한 학습자는 요약이나 질문 등을 통해 굳이 정리를 해 주거나 주의를 유도해 주지 않아도 주요 아이디어와 주변적인 것을 구별해 낼 수 있고,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의 혹은 그 이하의 독자들에게는 유용한 단서나 활동이 우수한 학습자에게는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교재에 삽입된 질문의 특성, 예컨대 위치나 빈도, 수준 등에 따른 효과를 경험적으로 밝혀려 했던 많은 연구들은 서로 상반되고 불일치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개인차 변인을 포함

시켜 실험을 하였으나 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는 동일한 구성원리를 가진 자료라 하여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와 수준을 가진 사람이 읽는가에 따라 그 의미나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교과서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많은 출판사에서는 가독성(read ability) 대신 '학습가능성(learnability)', 혹은 '교수가능성(teachability)'이라는 용어가 활용되고 있음도 특기할 만하다. 어떤 교과서의 난이도 혹은 어려운 정도를 따질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 내용이 해당 학년의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이해시킬 만한 수준인가를 문제삼는다고 할 때, 가독성 대신 학습가능성 혹은 교수가능성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뭐 그리 새로운가'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객관적·명시적인 것에 집착하여 가독성 공식의 활용에 많은 가치를 두었던 미국의 교과서 관계자들이 이제는 그러한 방법의 허구를 인정하고 상식에 부합되는 평정의 논리를 취하고자 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수학적 공식의 엄밀함에 의존하여 부분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으려 했던 방법은 다소 임의적이고 주관적이지만 전체를 주목하고 맥락을 함께 살피는 전문가의 '판단'보다 타당하지 못함을 시인하게 된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교과서의 난이도가 어떻게 이해되고 평정되어 왔는지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끝으로,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 즉 "우리 나라의 교과서는 지나

치게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어떤 근거에서 그런 생각을 하였으며 그 비판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리고 교과서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그것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말이다.

우리 나라의 교과서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측면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것이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어렵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비해’ 어렵다는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이나 원리의 수준 혹은 깊이가 학생들의 발달 특성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가르치고 배우기가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지를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측면을 조합하여 네 가지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 어떤 것에 근거한 판단인가에 따라 교과서의 개선 방향이 다르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각 경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번째로, 만일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어려운 것이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이나 원리의 수준 및 깊이 자체가 학생들의 발달 특성상 지나친 것이라면 향후 교과서 개발자들은 그 수준을 낮추어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그 원인이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 자체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 아니라 내용 구성 방식이나 조직 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향

후 교과서 개발자들은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 및 우리 나라의 교수-학습 상황에 적합한 보다 효율적인 구성 방식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다른 나라에 비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이나 원리의 수준 혹은 깊이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이것은 그리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중학교 단계에서야 다루는 어느 수학 내용을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학교 4, 5학년에서 다루고 있다 해도 우리 학생들이 별 무리없이 소화해 내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정된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렵다고 판단되었는데, 그 이유가 더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도 가르치고 배우기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인 경우라면, 향후 교과서 개발자들은 국제비교 연구 등을 통해 질 높은 내용 구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영국의 정보 교육 동향과 그 시사

정 성 무(본원 전산운영부장)
이 희 수(본원 정보교육지원부 연구원)

조사의 의의

『Think globally, Act locally』 세계화 시대에 심심찮게 듣는 말이다. 이 말을 정보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Communicate globally, Access locally』라는 말로 바꾸어 쓴다. 인터넷을 운운하는 시대에 실감나는 말이다. 이 두 말은 우리나라 교육개혁 방향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 같다.

교육개혁위원회가 '95년 5월 31일에 대통령에게 제 2차로 보고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은 교육개혁의 양대 방향이 세계화와 정보화에 있음을 보여 준다. 세계화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을 굳이 부각시키지 않더라도, 세계화(globalization)란 말 그대로 컴퓨터·통신·운송 기술에 의한 지구의 촌락화 현상이다. 결국 세계화와 정보화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여기서는 출장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영국의 (1) 주요 정보교육 추진 과정 (2) 현 정보교육 실태 (주요 정책, 교육 과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실태, 정보교육 관련 연구·개발 동향)를 살펴봄으로써 (3) 앞으로 우리 나라 정보교육 추진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는 데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정보교육 정책과 현황

○ 정보교육 정책사

영국의 정보교육 지원사업은 1970년대부터 부처간 협력을 통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1980년부터 1992년까지 221.1백만 파운드가 정보교육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기, 주무부서, 사업명, 예산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한편 교육부는 1988~1995년도까지

〈표 1〉 영국의 학교 정보교육 추진사업 연혁

(단위 : 백만 파운드)

기 간	부 서	사 업 명	예산
1980~6	DES	Microelectronics Education Programme	23.0
1981~2	DTI	Micros in Schools Scheme	15.1
1983~4	DTI	Secondary Schools Extension	2.1
1982~4	DTI	Micros in Primary Schools	9.5
1983	DOE	TVEI	20.0
1985~8	DTI	Support for Educational Software	3.5
1986~8	DES	Microelectronics Education Support Unit	7.0
1986	DTI	Modems in Schools	1.0
1986~9	DTI	NERIS	3.0
1987~93	DES	IT in Strategy	90.0
1987~90	DENI	Vocational Education Programme	18.0
1987	DTI	IT equipment in schools	3.5
1988	DES	National Council for Educational Technology	20.0
1990~2	DES	National Curriculum Software Development Partnership Scheme	0.7
	NCC	Mathematics IT Development Project	1.2
1992	DES	CD-ROM and Interactive Video Schemes	3.0
1992~4	DES	CD-ROM Development Partnership Scheme	0.7

출처 : NCET, (1992),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in Schooling in the United Kingdom,
Coventry : NCET p. 32.

주 : DES-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OE-Department of Employment
DENI-Department of Education in Northern Ireland

Education Support/Grant For Educational Support and Training for IT 하의 총 지원 예산을 187.6 백만 파운드라고 밝히고 있

다. 1988 년도부터 1995 년도까지의 연도 별·사업부문별 집행 예산은 <표 2>와 같다.

〈표 2〉 Grants for Educational Support and Training (총187.6백만 파운드)

구 분	88~89	89~90	90~91	91~92	92~93	93~94	94~95
현직연수	4.8	5.0	6.0	6.3	4.5	4.3	
하드웨어	10.5	13.5 ^b	5.0	15.0 ^c	12.0	12.0	
IT 자문교사	10.5	11.2	8.8	7.1	7.5	7.7	
중등학교용 CD-ROM	-	-	-	-	4.0	4.0	
특수교육용 (의사소통 장애사용)	-	-	-	2.0	2.0	2.0	
계	25.8	29.7	19.8	30.4	30.0	30.0	21.9

출처 : Department for Education. (1995), Information Technology In Provision In Schools In England, p.8.

주 : a. 회람 10/93에 의거, 지방교육청들은 (LEAs)은 수학, 과학, 지리, 디자인·기술 교과에서의 IT에 관한 예산 및 초등학교와 특수교육에서의 IT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b. 초등학교분으로 4 백만 파운드가 포함되어 있음.

c. 초등학교분으로 12 백만 파운드, 특수교육용으로 3 백만 파운드가 포함되어 있음.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영국의 정보교육은 상당히 일찍부터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서 추진되었으며, 목표는 컴퓨터 보편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교육의 추진 배경에는 1980년대 초반 이후로 정부의 관계부처(교육부, 상공부, 지방교육청), 학교, 교사, 민간단체들의 IT를 이용한 교수·학습 증진 노력과 1980년대 말까지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의욕이 자리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의 도입으로 IT는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다른 교과와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1988년 교육법 이후로 IT는 국가교육과정의 도처에 편재되어 있다.

학교에서의 IT 활용에 관한 정책은 교육부

의 School Curriculum Branch에 소속된 IT in Schools Team에서 관장하고 있다. 주된 기능은 (1) 학교에서의 IT관련 교육과정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장관에게 자문하고 (2) GEST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IT 사업을 관장하고 (3) 특정 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하고 (4) NCET(국립교육공학연구소) 활동을 감독하고 (5) 교육 관계자 및 IT 산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6) 교육부의 Education Superhighway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정보교육 목표는 (1) 직업·진로 교육 측면에서 졸업 후 직장생활 준비를 위하여 신기술에 익숙케 하는 데 있으며 (2) IT를 이용하여 모든 교과와 교수·학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추진 전

략은 (1) IT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교과 지향 (수학, 과학, 지리, 디자인·기술) (2) 초등 교육에서의 IT 능력의 일관된 개발 (3) 특수 교육 지향이다.

○ 교육과정

1988년 교육개혁법(1988 Education Reform Act) 제정으로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이 도입되었다. 이 국가교육과정은 핵심교과, 기초교과 그리고 범교육과정주제(Cross-curricular themes)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은 지식의 실제적 응용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정보 공학이 강조되었다는 데 있다. 편성의 기본 방향이 실용적 지식, 사회 현실과 부합되는 지식을 강조하는 데 있으며, 정보 공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국가교육과정의 편제는 10개의 기초교과(웨일즈는 11개)로 구성되는데 이 중 영어, 수학, 과학은 핵심교과, 역사, 지리, 기술,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은 기초교과이다. 기술교과는 설계 및 기술과 정보 공학을 포함한다. 1990년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이러한 10개의 기초과목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요소로 5개의 주제와 3개의 범위, 그리고 6개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정보공학은 국가교육과정에 세 가지 형태로 들어가 있다.

1)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편성 내용 또는 성취 목표로써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programmes of study)과 함께 내용 구성 요소로서, 북아일랜드에서는 필수 교육 주제로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범교육과정면에서 IT 활용 능력 개발을 위해 내용을 조직화하고 조정하는 기본 열개로

쓰인다.

2) 세부 성취 목표(Statements of Attainment)와 기초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다. 어느 특정 과목의 SoA 또는 PoS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는 이러한 IT를 개발시켜 주는 것은 해당교과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을 개발시켜 준다는 데서 단순히 교과에서의 IT capability과는 다르다.

3) IT를 이용한 학습 증진의 예로써 들어가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국가교육과정의 기술과목에 대한 명령은(Statutory Guidance) 학생들은 정보 공학을 이용하여 (1) 정보를 전달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며 (2) 실상황과 가상 상황 모형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3) 물적 변인과 운동을 제어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4) 학생들은 정보공학의 중요성과 활용, 그리고 그것이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IT Capability라고 한다. 따라서 IT Capability는 IT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특정 과제와 관련 짓는 데 필요한 개념,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 그리고 IT를 이용하는 것이 적당인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T Capability에는 워드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래픽,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은 도구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Non-statutory guidance로써 범교과적으로 개발시켜야 할 능력으로서 다음 다섯 가지 Strands를 제시하였다. 정보 통신

(Communicating Information), 정보 처리 (Handling Information), 모델링 (Modelling), 측정 제어 (Measurement and Control), 정보 공학 활용과 정보공학 활용이 미치는 영향

평가(Evaluating Applications and Effects)가 그것이다.

바로 영국 국립교육공학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정보공학 활용 능력을 범교과

〈표 3〉 각 교과에서의 IT capability 이용 및 증진 방안

교과	Communicating Information	Information Handling	Modelling	Measurement and Control	Applications and Effects
미술	○				
디자인·기술	○	○		○	
영어	○	○	○		○
지리	○	○	○		○
역사	○	○	○		○
수학		○	○		
현대 외국어	○	○			
음악	○				
체육		○	○		
과학	○	○	○	○	○

출처 : NCET. (1993), Getting I.T. Across-Developing I.T.capability at Key Stages 3&4, Coventry NCET, p.6.

〈표 4〉 교당 평균 컴퓨터 대수, 컴퓨터 1대당 평균 학생수

	교당 평균 컴퓨터 대수			컴퓨터 1대당 평균 학생수		
	초등	중등	특수학교	초등	중등	특수학교
지역						
시골	7.0	76.3	11.8	13	9	5
소도시	10.3	82.1	13.6	18	10	5
대도시 교외	11.1	89.5	16.4	19	10	5
대도시 도심	11.8	85.3	15.9	20	10	5
부						
상	9.3	92.9	12.1	18	10	5
중	10.0	85.4	15.9	17	10	4
하	10.1	79.7	15.1	19	0	5
전체 평균	9.9	85.1	15.4	8	10	5

적으로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에 관한 많은 교수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참고로 중등 단계(Key Stage 3&4)에서의 교과별 정보공학 활동은 <표 3>과 같이 예시되고 있다.

○ IT 활용 여건 및 실태

컴퓨터의 2/3이상이 Acorn사 1/5이 RM사 제품으로, 지역별·소득별·학교급별 IT 교육 여건은 <표 4>와 같다.

위 표에서 보듯이 초등학교는 평균 10대 정도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컴퓨터 비율은 18:1이다. 이러한 수치는 1992년도의 교당 컴퓨터 보유대수 7대, 학생:컴퓨터 비율 25:1과 크게 대조된다. 중등학교는 교당 평균 8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컴퓨터 비율은 10:1이며, 이것은 1992년도의 교당 58대, 학생:컴퓨터 비율 13:1과 비교된다.

IT 장비에 관한 지출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IT 장비에 대해 평균 5,650파운드를(1992년도는 2,600파운드), 중등학교는 평균 23,950파운드를 지출하였다(1992년도는 15,450파운드 지출).

초등학교 교원 중 IT 활용에 자신 있는 비율은 92년도 72%에 비해 91%, 중등학교의

교원은 92년도 53%에 비해 74%로 각각 늘었다.

교수·학습에서의 IT 기여도는 상업과 컴퓨터 과목에서 높게 보고되었으며, 상업과목 담당 교사의 76%, 컴퓨터 과목 담당 교사의 83%가 자신들의 과목에서 IT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론 및 시사

정보교육과정 측면에 있어, 그 개념을 한국은 컴퓨터 교육이라는 용어를, 영국에서는 정보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컴퓨터기기 그 자체보다는 정보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 정보통신, 모델링, 제어·계측, 활용과 영향에 대한 이해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접근면에서도 범교과적으로 개발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컴퓨터 교육 개념은 기술 편향적 개념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공학의 발전 및 활용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 개념을 발전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접근면에서도 내용 접근 못지 않게 컴퓨터를 범교과에서 도구로 활용하는

<표 5> 회계연도 1993~94년 동안의 IT 장비에 관한 평균 지출

	지출 (행정용 지출 포함)		지출 (행정용 지출 제외)	
	교당 파운드	학생당 파운드	교당 파운드	학생당 파운드
초 등	5,650	32	5,150	29
중 등	23,950	29	19,350	24
특수학교	3,950	54	2,900	40

접근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컴퓨터 교육 시설·설비 측면에 있어 보급률에서는 단연 영국이 앞서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급률도 고등학교를 제외하면 결코 낮지 않다(한국의 보급률은 9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민학교 92.4%, 중학교 89.3%, 일반계고등학교 77.9%).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의 교당 평균 설치대수는 한국이 국민학교 19.6대, 중학교 28.2대, 일반계 고등학교 29.2대이며, 영국이 초등학교 9.9대, 중등학교 85.1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portable 컴퓨터와 CD-ROM 등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보교육 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교육 정보화 및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국은 오래 전부터 전국에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교육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지역 정보화, 도·농간의 교육 균등화, 정보 교환의 원활화는 물론 중앙의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정보화의 거점으로서 지역정보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교육의 세계화·정보화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다.

영국 교육부장관의 Superhighways for Education 사업 제안서에서의 표현처럼 현재는 Network literacy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Stand alone 시대에서 Network 시대로 옮겨지고 있다. 컴퓨터 보급 대수를 늘리는 일 못지 않게 보급된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정책면에서

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전통적 CAI 개발에 초점이 두어져서 CD-ROM 개발 등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인 듯한 인상을 준다(영국에서는 1990년대 초 사업화). 영국의 교실에서는 전통적 CAI가 점차 사라지고 도구용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데이터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를 준다.

끝으로 NCET의 출판 목록은 어찌 보면 싱거울 정도로 이른바 연구보고서다운 보고서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한결같이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그 자료는 철저하게 연구자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심지어 학부모를 위한 것이다. 거기에서 연구의 보람을 찾는 듯하다. 학교 현장에 대한 연구자의 애정은 연구자의 자존심에 우선한다.

본 출장에서 얻은 마지막 인상이자 결론은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인 화려한 국제회의장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는 누추한 교실이라는 점이다. 정보교육 연구의 시작과 끝은 학교 교실에서 결정된다. ●

정성무

-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아주대학교 대학원 컴퓨터 공학과 박사과정
- 본원 전산운영부장
- 「교실맞용 CAI 프로그램 개발 연구」 「멀티미디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저작도구 연구개발」의

이희수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 정보교육지원부 연구원
- 「국·중·일반계 고등학교 컴퓨터 교육과정 개선 연구」의

학교조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학교를 새롭게 하려는 여러가지 시도

양 승 실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정책학 박사)
- 본원 교육정책연구 2부 연구원
- 「현대 한국 초등교육정책의
무방향성과 탈교육적 성향」,
「여성정책의 부재와 그 현실」 외

대부분의 이 땅의 자유롭지 못한 혹은 자유를 포기한 학교에서 오늘도 깨어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교육을 걱정하며 후원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과 모두 함께, 마음을 터놓고 자유를 잃었거나 잊은 우리의 학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진솔함을 끌어내기 위하여 한가지 질문을 던져 본다. ‘학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 시험, 체벌, 준비물, 숙제, 더위, 추위, 더러움, 그리고…

나 자신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감동이 전혀 없다. 즉 교수·학습활동, 특별활동, 그리고 생활지도활동 등과 관련된 감동적인 경험을 기억해 내기가 어렵다. 대신 한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로부터의 긴장감과 구속감이 늘 청소년 시절 내 주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확실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또는 입시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볼 때 그것만이 전부인 것 같지도 않으며, 대표인 것 같지도 않다. 차라리 입시가 우리의 학교생활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을 몽땅 제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방법도 한 군데에서만 찾으면 되니까 말이다.

나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큰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신나는 일 있었니?” 하고 곧잘 묻는다. 21 세기를 바라보는 지금은 좀 달라졌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뭐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맨날 똑같지…”, “오늘은 체육 시간에 밖에서 운동하지 않고 교실에서 체육책만 읽고 재미없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반장이 이름을 적어서 속상해요!” 한다.

오늘도 한창 자라나는 등뼈를 휘어지게 할

만큼은 되어 보이는 가방을 메고, 무슨무슨 준비물, 보조가방이랑 신발주머니, 도시락주머니는 양어깨가 비뚤어질 만큼 들고, 스케치북을 옆구리에 끼어 꼼짝 못하게 된 채 맥없이 고개만 숙인 인사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를 뒤로 남기고 멀어져 가는 꼼짝달짝 못하게 된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또 다시 가장 기본적인 의문과 맞부딪힌다.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이들은 왜 학교에 가는가? 열 살전 후의 아이들의 어깨 위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얹혀진 짐작을 우리는 계속 방관해도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마음 속에 와 닿지 않는 공부란 걸 하기 위해서 그저 습관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넉넉히 채우며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네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21세기는 분명 창의적이고 자주적이며 도덕적인 건강한 인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말이다.

다음 세기를 향한 세계교육의 행보

불과 몇년 후에 맞이하게 되는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는 2000년대를 향한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개혁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은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일본은 그간의 모방의 천재란 오명을 씻으려는 듯 개성과 창의력 신장을, 통합유럽으로 국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주도세력이 되고자 안간힘을 쓰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유럽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강화 및 교류와 교육기회의 균형적 확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육

의 국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의 단편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개혁에서 탈피하여 보다 장기적, 근원적,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산하 심지어는 대통령 직속의 여러 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개혁의 묘안 탐색에 부심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와 그 세계 속의 우리는 새로운 실험과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숱한 교육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현장, 우리 아이들의 삶의 터전인 학교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 이에 이른바 교육선진국들이 시도하고 있는 재구조화된 학교체제와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교경영 전략 및 이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학교문화에 대하여 살펴 본다.

학교조직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학교는 다른 조직들과 여러 면에서 유사점도 갖고 있으나 다른 조직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많이 가진 조직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를 보는 종래의 관점은 여전히 전통적인 조직이론에서 차용된 체제적 관점에 머물러 조직의 능률이나 효율성에 집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그 자체의 독자적인 존재 목표와 존재 양식을 갖고 있는 학교라는 하나의 실체는 그 추구하는 바나 목표하는 바가 학교조직의 구성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설사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목표보다는 조직의 목표가 우선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관심이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에 따른 진정한 교육적 성취

는 무엇인가?', '성취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갈등의 양상 및 그 원인구조는 무엇인가? 등에 모아지기 보다는 정해진 학교의 목표—일류대학 진학을 등과 같은—를 얼마나 성취했는가?, 수업진도는 정해진 일정표에 맞추어 착착 진행되고 있는가? 등과 같은 외형적 지표에 쫓리게 된다. 이러한 학교 조직의 경영방식은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소외시킨 채 학교라는 조직을 지배하는 모종의 주어진 규칙만 잘 지키도록 관리 감독 통제하면 별 무리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라는 조직은 특히 그 구성원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의 의미구조가 중요한 인간구성체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과 같은 구성원들의 요구나 상호관계와는 무관하게 주어진 규칙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각각의 의미구조와 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의미구조의 집합체를 잘 관리함으로써 유지·발전되는 조직이다.

실제로 학교조직의 구성원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교육의 목표나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비추어 독특한 행동유형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을 편하게 보내고 싶은 아이들은 각기 다른 행동방식을 취함으로써 저마다의 살 길을 찾는다. 날마다 한 두가지는 꼭 있어서 성가신 준비물을 자칫 잊어도 극단적인 체벌이나 꾸중을 면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으로 어떤 아이는 학교가 원하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의 지표인 지필검사를 잘 보아두려는 방법을 택한다.

백점을 받는다든 것은 이 땅의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는 선행상도 탈 수 있고, 인간적인 지도자가 아닌, 군림하는 반장도 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이다. 또는 주어진 규칙에 순응하면서 시험도 적당히 보고, 이는 것이 있어도 손들어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눈에 띄지 않는 아이로 남아 학교생활을 편하게 보내고자 하는 아이도 있다. 이런 아이는 한 학기에 여러 번 있는 대외적인 각종 대회—글짓기, 그림, 만들기대회 등등—를 위해 특별히 뽀빠 귀찮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특혜(?)를 누리기도 한다. 또 어떤 아이는 재미없고 하기 싫은 숙제도 하지 않고, 정해진 규칙도 틈나는 대로 어겨가며 어느 정도의 말썽쟁이로서의 자유를 택하기도 한다. 그런 아이러니 하고 몇번 혀를 끌끌 차는 정도의 수모만 감당하면 될 일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교육 행정가는 학교 구성원들과 유리된 학교조직 자체의 독자적인 목표관리 보다는 학교 구성원들간의 의미구조의 구성체가 조직이므로 이들의 요구와 의도는 무엇이며, 각각의 요구와 의도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조직 내에는 항상 인간의 다양한 요구로 인해 갈등이 상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갈등을 백안시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조직발전의 견인차로서 적극 포용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

종래의 학교교육의 효과에 관한 교육심리학적, 교수·학습방법적 접근들은 주로 학습자의 개인차 변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학습자의 지능, 적성, 자아개념, 학습태도나 동기

등과 같은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따른 개인 처방 학습이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교육효과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60년대 들어 등장하기 시작한 일련의 교육사회학자들의 학교교육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연구결과는 학교교육 무용론을 낳기에 충분할 정도로 비관적인 것이었다. 이들은 학교의 환경,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교수·학습과정의 짜임 등과 같은 학교 내적 변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 가정의 문화환경, 부모의 교육적 열의 등과 같은 학교 외적 변인과 견주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비롯한 교육결과에 극히 미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경우, 그 기본 가정이나 학교교육에서 인지·물적 투입요인이 학생의 지적·비지적 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선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접근 과정 자체와 그 결과분석 방법 등에 대한 비판점이 지적되었으며, 같은 자료를 재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위와는 다른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재분석 연구의 결과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낮고 가정의 문화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경우에 학교 자체의 내적 변인의 영향이 크게 부각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10여년간 ‘학교는 교육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Schools can make a difference)’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탐구결과가 이들 나라의 학교현장에서 활발히 채택되고 있는데 이를 학교교육의 효과성 운동(School

Effectiveness Movement)이라 이름짓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효과적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 구조적, 집단적, 그리고 규범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잘 짜여진 교육과정 ② 학습기회 및 학습권 보장 ③ 교수·학습의 충실성 ④ 명확한 교육목표 ⑤ 교육적 지도성 발휘 ⑥ 잘 조직된 교직원 개발 연수 프로그램 ⑦ 활성화된 모니터기능 ⑧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⑨ 가정과 학교의 협동과 지원체제 ⑩ 높은 기대감 ⑪ 광범위한 포상과 인정체제 ⑫ 학생참여 기회 ⑬ 협동적인 조직의 운영과정 ⑭ 안전하고 질서있는 환경 등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학교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전략들은 학교교육 위기론 속에서 보다 교육적인 기능을 갖는 새로운 학교로의 탈바꿈에 대한 절실한 필요와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이땅의 학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 다른 시도는 민주화·자율화·분권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관료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학교단위 자율경영(School-Based Management)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단위의 자치는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도 그간에 추진된 정부차원에서의 교육개혁이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개혁성과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교육 경영 방식으로서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학교단위 자율경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본적인 확신을 그 기저에 두고 있다. 첫째로는 어떤 결정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교육개혁은 개혁과정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진행될 때 지속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태어난 학교단위 자율경영이 서구 여러 나라의 학교에서 채택되는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교육 제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적·성취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일선 교직원의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며 더불어 교사의 사기가 진작된다.
- ②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증진된다.
- ③ 교사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강조점에 교사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된다.
- ④ 단위학교가 한 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회복하여 개성있는 학교경영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각 학교의 교육목표나 주안점에 의하여 모든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배치할 수 있다.
- ⑤ 따라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 ⑥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아지며, 그 질도 향상되므로 학교장이나 교육감의 책무성이 강조된다.

공적인 영역에서 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분권화나 자치화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정형화된 한 가지 유형의 학교만을 찾아볼 수 있는 이 땅의 학교들을 위해, 교육이라는 거대한 사업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학교단위 자율경영이라는 새로운 시도로부터 어떤 영감이라도 끌어내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에서 학교교육의 문제는 그 심각성이 탈선적인 기능장애의 차원을 넘어 역기능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학

교를 해체하고 그 대안으로 학습망이나 가정 학교제도(Home Schooling)를 추진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을 이루어 보자는 일각의 주장도 듣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어 실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 중에는 수렴할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학교 없는 사회 속에서 교육이 더 잘 된다는가,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소생 불가의 난치병에 걸려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학교가 제 기능을 찾아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도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인 필요에 의하여 제도화된 학교는 사회가 변하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변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이 달라지면 마땅히 변하여야 한다.

미래의 학교는 다원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화되어야 한다. 나이와 일치하는 학년제 하에서 일정한 연령군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생활 후에도 다시 배움을 찾아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탄력성을 갖게 되어야 한다. 자율적인 학교단위 경영으로 개성있는 교육활동이 펼쳐지는 학교 안에서 학습자는 스스로의 요구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탐구활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향하여 미래를 열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인간적인 교육환경에서 인간 중심적인 교육경영으로써 자유롭고 인간답게 교육받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실현으로 희망찬 학교의 미래를 열자. ☉

교육적 지식을 얻는 일

조 정 우

교육 연구에 있어서, 양적 접근 방법을 비판하는 이들은 흔히 숫자놀음이 교육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또는 교사로서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일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어려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데에 기인한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 상황 속에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적 지식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에 종사한 모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지식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와 같은 교육적 지식은 어디서 얻는가? 교육자들이 얻는 지식의 내원(來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신념, 권위, 과학적 방법이다. 교육의 장을 떠나서도, 이 구분은 어느 정도 일반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교육적 지식을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구하고 있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그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따져 보면, 그들의 경험의 누적으로 형성된 신념 이외의 다른 출처를 찾기 어렵다.

신념의 형성은 경험과 사변(思辨)으로부터 온다. 경험 자체는 신념을 형성할 수 없다.



- 연세 대학교 생화학과 졸업
- 미국 플로리다 대학 대학원 졸업(교육학 박사)
- 본원 정보교육지원부 연구원
- 「교육용 소프트웨어 평가기준 연구」 외

경험은 사변에 의해서 정리되고 조직되어 하나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사변에만 터한 신념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너무 사변적이어서 논의의 여지조차 없을 것 같다.

만일 경험이 없다면 신념을 형성할 자원이 없는 것이며, 신념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교육적 지식을 생성할 자원이 없다는 의미에서, 교육 경험은 널리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신념에 터한 지식 습득은 편리하고 소박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불완전하며, 따라서 오류에 빠지기 쉽다. 연로한 교사의 경험을 과소평가하자는 뜻이 아니라, 경험이란 그것이 체계적으로 누적되지 않는 한, 편견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할 따름이다.

왜? 그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습성이 개입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 인간적인 습성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 형태로 다가가 우리에게 잘못된 신념을 형성케 하기 쉽다. 한 예로 코넬대학의 Gilovich 교수(1993)가 소개한 일화를 여기에 들기로 하겠다.

농구 경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농구 코치와 농구 선수는 모두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수에게는 '잘 들어가는 날'이 있다고 믿는다. 한두 개의 슈팅이 성공한 선수는 다음 슈팅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몇 개의 슈팅이 불발이었던 선수에 대해 사람들은 그가 극도로 굳어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슈팅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Gilovich 교수와 그 동료들은 이 '잘 들어가는 날'이 있다는 믿음을 검증해 보고자 했다. 그들은 필라델피아 76ers라는 프로 농구팀의

1980~1981년의 경기 기록을 입수했다. 76ers는 선수 개개인의 슈팅의 성공과 실패를 순서대로 기록한 유일한 팀이었다.

'잘되는 날'의 가설과는 달리, 선수들은 앞서의 슈팅이 실패하였을 때 그 다음 슈팅을 더 잘 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한 다음 슈팅에서의 성공률은 51%였으나, 실패한 다음 슈팅에서는 54%의 성공률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농구 선수의 골이 잘 들어갈 때는 연속적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때에는 연속적으로 안 들어 간다는 통념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잘 되는 날'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기를 고집한다.

농구선수와 팬들이 가지는 오류의 저변에는 그들이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상의 착오가 깔려 있다. 연속적인 성공과 실패는 의식 속에서 부각되고 기억된다. 성공과 실패가 자주 엇갈리게 되면 그것은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진다. 골이 거의 링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왔을 때, 만일 그 선수가 앞서의 몇몇 슈팅을 성공시켰다고 하면, 그 일은 약간의 미스였던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선수의 앞선 슈팅 몇 개가 모두 불발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그가 극도로 굳어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증거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다분히 강한 인상을 받는 것 같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상상에 부합되는 몇 개의 사건을 바탕으로, 예언성에 대한 확신을 키워 나간다. 그들은 그러한 예언에 들어맞지 않는 더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린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꼭 내가 샤워 중일 때 전화가 온단 말이야.”

샤워중일 때 전화 벨이 울리면 그 일은 두드러지게 기억된다. 그러나 만일 샤워 중일 때 전화가 오지 않으면, 즉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어떤 질서, 패턴 또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 통계적인 보편성이 존재하는 곳에서조차 사람들은 더욱 많은 것을 일으려고 한다.

Gilovich의 메시지 중 중요한 점은 우리의 인상에 의해서 비뚤어진 경험이 누적되면 될수록 왜곡된 신념이 형성되고, 굳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쉽게 고쳐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그릇된 지식을 생성하게 된다. 지식을 구함에 있어서 주관의 개입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식을 얻는 두번째 방법은 권위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권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교육자들이 가장 흔히 지식을 도출하는 권위는 유명한 학자의 말, 다수의 우월성을 추종하는 전통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 방법 또한 지식을 구하는 데 비교적 편리하고, 논쟁의 여지가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식 자체의 진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타당성은 매우 빈약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권위는 때때로 부정확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권위 있는 사람들의 견해가 때때로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견해가 개인적 소견이거나 배운 이의 추측(educated guessing)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학자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대체로

과연 과학적 방법이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과학적 방법에 의존할 수는 없다. 이 물음은 본질적으로 가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 방법에 기초한

교육적 지식을 얻기를 고집한다.

그러나 그것은 신념 또는 과학이라는 권위에 의존한 결정이다.

과학적 방법으로는

과학적 방법 자체의 정당성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그의 학문적 업적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말이나 글에서 지식을 얻는 일은 사실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자원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지식이 옳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 적어도 옳을 가능성이 높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현실적으로 긍정되기 어려운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그 학자에게 권위를 부여한 그의 학문적 업적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다는 전제이다. 둘째, 그 학자가 어떤 특정한 경우에도 과거의 업적에서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은 학문적 능력을 구사하였다는 전제이다. 이 전제는 양자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므로 서로에 대해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서, 첫째 전제가 충족될 확률이 1/2이고 둘째 전제가 충족될 확률이 1/2이라면, 그 지식이 정당할 수 있는 확률은 양자의 평균인 1/2이 아니라, 양자의 곱인 1/4이 되는 것이다.

다수의 견해나 주장에 따르는 것은 그 방법이 민주적이라는 관점에서는 권장할 만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올바른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생명은 정확성이지만 사람들의 선호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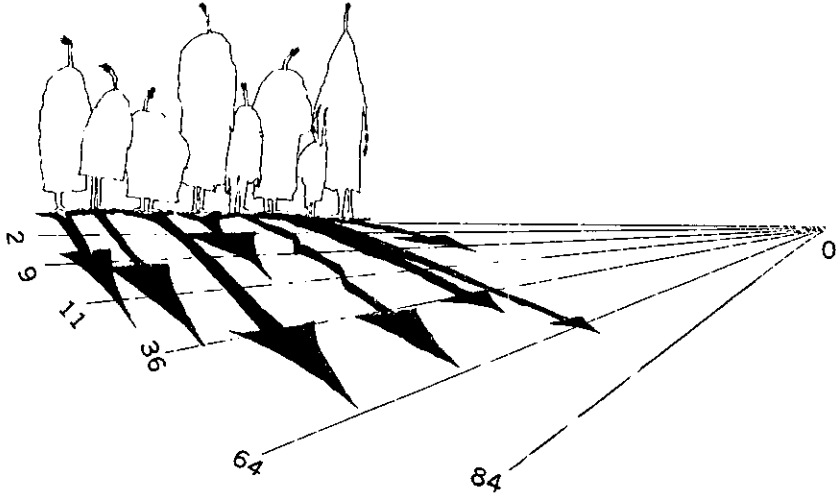
다수결의 원리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적용한 통계 방법 중에 메타 분석(meta-analysis)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지상에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그것으로써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을 구하고, 그 지식이 옳을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중대한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이 방법이 그릇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가정이란 미지의 영역에 대한 확률을 미리 잠정적으로 책정하는 데에

서 온다.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전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비가 올 확률을 50%로 책정하는 것과 같은 비논리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

메타 분석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오류는 데이터의 체계적 탈락에서 올 수 있다. 어떤 주제에 관한 연구 결과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을 때, 그 논문은 현실적으로 학술지에 잘 게재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Johanson et. al., 1993). 그렇다면, 특정 연구 결과가 편파적으로 탈락한 상태에서의 종합은 현실을 공정하게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지식을 도출하는 또 한 가지 형태의 권위는 권력 및 종교이다. 이것은 아마도 일반 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권위는 신념이나 가치 위에 군림하는 것이지, 사실로 구성된 지식의 진위와는 무관한 것이다. 엄정하게 사실로부터 지식을 구성해 가는 가장 전형적인 길은 과학적 방법이다. 과학적 방법은 관찰된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인 추론에 의거하여 지식을 구하는 길이다.

사실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가치의 개입을 배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객관적인 추론에 의거한다는 것은 논리적 진전에 있어서 일체의 주관성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A는 프로그램 B보다 학습자들의 학습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가'하는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프로그램 A는 학교에서 사용하기 좋은가'하는 문제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적 방법으로는 그러한 가치의 판정을 내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A는 B라고 판단된다'라는 문장은



과학적 연구에서 아무 것도 뜻하지 않는다. 과학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이나 권위를 일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A가 B라고 판단된다는 말은 A가 B인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한다.

전형적인 과학적 연구 방법은 문제의 파악, 가설의 형성, 데이터의 수집, 가설 검증, 문제 해결의 단계를 거친다. 가치가 아닌 사실을, 주관이 아닌 객관을 강조하는 과학적 방법의 특성상 사변이 배제된 수, 서열, 유목(category) 등의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과학적 탐구의 영역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지식을 구하는 원천으로서 경험의 누적의 결과인 신념이나 권위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관에 의해서, 그리고 가치 개입에 의해서 그릇된 지식을 형성하기 쉽다. 그 대안으로서 지식을 구하는 과학적 방법이 제기되었다. 거기에서는 객관성과 사실이 강조된다. 가치가 아닌 사실을 나타낸 데이터를 주관 아닌 객관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통계라는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논의의 흐름이다.

그런데, 과연 과학적 방법이 지식을 얻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과학적 방법에 의존할 수는 없다. 이 물음은 본질적으로 가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 방법에 기초한 교육적 지식을 얻기를 고집한다. 그러나 그것은 신념 또는 과학이라는 권위에 의존한 결정이다. 과학적 방법으로는 과학적 방법 자체의 정당성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이제, 이 글의 첫머리에 소개한 교육 연구에 있어서의 수량적 접근 방법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언급하겠다. 필자는 수량적 접근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부분적으로는 옳다고 하였다. 부분적으로 옳다는 것은 그 표현이 현실을 상당한 정도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통계는 신념이나 권위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어느 대학 교육학과의 여학생 중 33%가 그 대학 교수와 결혼하였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학의 교육학과에는 여학

생이 3명 밖에 없었고, 그 중 한 명이 교수와 결혼하였다면, 그것은 큰 화제거리일 수 없다. 십여년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한 달 동안 국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의 혈액형을 조사해 보았더니, A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 기사는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쉽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나라에는 A형 혈액형을 가진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어떤 도시의 맥주 소비량이 2배로 증가하고 동시에 위암 발병률도 2배로 증가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맥주를 마시는 것과 위암에 걸리는 확률을 관련지은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그 도시의 인구가 2배로 증가된 것에 불과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한 학력고사인 SAT (Scholastic Aptitude Test)의 전체 평균이 25년 전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Berliner, 1994). 이것은 학교 교육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려할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이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의 하위 60%에 속했던 학생들이 활발히 대학 진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왜곡된 지식을 형성하는 데 통계가 연루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숫자놀음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말이 생긴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은 통계적 지식이 아니라, 바로 통계에 대한 무지라는 점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평균의 의미와 그 수치를 특정 맥락에서 분리하여 해석한 것이 그릇된 지식을 형성하게 한 주범이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

여 교육 연구에 있어서 통계적 방법을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더욱 체계적인 통계적 지식을 쌓아 올려야 할 것인가? 해답은 자명하다.

통계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상을 설명하는 기능과 어떤 잠재적 판단을 확인시켜 주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고사 성적을 가지고 어떤 두 학급의 학업성취도를 설명하고자 할 때, 평균은 두 학급의 학업성취도중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 두 학급이 능력의 차이가 있거나 혹은 없다는 잠정적 판단을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기능과 잠정적 판단의 진위를 확인하는 기능은 바로 과학적 연구의 핵심 부분이다.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관적 신념이나 권위의 개입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은 흔히 지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오류의 덫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과학적 연구 방법은 배타적이고,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 태도가 올바른 지식 형성에 대하여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형성에 개입할지도 모르는 오류 가능성에 대해 취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교육적 지식을 구하는 데 바쳐졌던 노력은 너무나 자주 신념과 권위에 의존하여 왔다. 그것은 방대한 신화(myth)와 사변의 성곽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잘못된 지식을 속삭인다. 이제는 사실과 재관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방법을 중시할 때가 아닐까? ●

북한교육의 발전 과정과 최근의 개혁 동향 (2)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순 계 립

80년대 이래 고등교육의 개혁

80년대 이래 북한 고등교육은 새로운 전환이 나타났으며 “전사회의 인테리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려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진보에 알맞게 많은 개혁조치를 실시하였다.

고등교육 학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1980년대 이전에는 북한 보통대학의 신입생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제대 군인이거나 직장 청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들은 학교를 떠난 지 오랜 뒤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돼 매우 힘들었고 게다가 수준도 같지 않았다. 보통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경우라 해도 학교 때 노동과 사회활동이 너무 많았기에 학습수준의 제고에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보통고등교육의 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었다.

80년대에 들어선 후 북한은 전국에서 ‘제1고등중학교’를 세우는 조치를 실시하

여 다시 말하면 평양시와 각 도에 중점으로 투자하고 제일 훌륭한 교사와 교장을 파견하고 특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제1고등중학교’를 세웠다.

이런 학교의 과정안, 교수요강 그리고 교과서는 모두 보통고등중학교와 다를 뿐 아니라 수준상이나 지식 방면에서 모두 보통중학교보다 높다. 특히 제1고등중학교는 수학, 물리, 화학 등 자연과학과 외국어 방면을 중점으로 하여 수학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는 전국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여 해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학 예비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는 대학에 지원하여 시험에 참가하도록 추천받을 수 있다. 제대 군인과 사회 직장 청년들도 반드시 대학 학생모집 예비 시험에 참가한 후 그 중 합격자만이 대학에 추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1고등중학교’의 졸업생은 예비시험에 참가하지 않고 직접 대학입시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런 학교 중 평양 제1고등중학교의 교장은 교육경험이 풍부한 ‘인민교사’라는 칭호를 받은 자이며, 교사 대부분은 대학에서 파

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학설비와 시설은 모두 외국제품이며 학생은 전국에서 선발하였으니 우선 대학 생원의 질이 보장된다.

‘중심대학’ 예비제도의 제정

북한은 국가의 중점투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심대학’제도를 제정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전국대학 중에서 각 학과분야에서 훌륭한 대학을 일부 선택하여 “중심대학”을 세우고 나라에서 설비와 교사 등 여건을 보장하여 그로 하여금 각 학과분야 중의 ‘시범대학’으로 되도록 하였다. 그뿐 아니라 ‘중심대학’의 질과 수준을 북한에서 제일로 가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우선 학생에게 새로운 요구를 제출하는 동시에 대학에서는 또 예비과 제도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신입생이 입학한 후 그가 당해 고등중학교의 졸업생이던 제대 군인이던 또 사회 직장의 우수한 청년이 추천받아 왔던가를 막론하고 모두 우선 예비과 내에 한해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본과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예비과는 지난 날에 있었던 예비과와 달라 그것은 복습성 예비과가 아니라 전면적인 기초를 닦고 질을 높이는 예비과이다. 예비과에서는 사상정치 교육과를 설치하고 수학과 물리, 화학 등 자연학과와 외국어 과목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제1 고등중학교’ 졸업생은 직접 본과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다.

‘후보 준박사’ 제도를 두어 20, 30대의 준박사 양성

북한은 대학원생 교육과 학위제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실천가운데에서 부단히 총결집고 자기의 상황에 알맞게 끊임없이 개혁하며 자기의 특점을 가진 학위제도를 더욱 완벽하게끔 힘쓰고 있다.

북한의 첫 대학원이 1947년 5월 7일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창설되었는데 그때에는 연구원이라고 하였다. 1948년 10월 26일에 북한내각이 결정한 국가학위위원회에 관한 결정기에 의해 국가학위위원회를 창립하여 학위조례를 제정하였고, 두 급의 학위인 박사와 학사(1978년에 준박사로 고쳤다)를 규정하였다. 1953년 7월 1일에 종전의 국가학위위원회를 국가학위수여위원회로 이름을 고쳤다.

그후 또 종전의 국가학위수여위원회를 국가학위 학직 및 인민상수여위원회로 고쳐서 그의 권한 범위를 넓혔다. 그런데 1946~1959년까지 이 역사시기에 북한에서는 학위제도를 창립하였다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의 제한으로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점들이 많았다.

60년대에 들어 북한은 자기네의 산업화 건설과 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학위사업을 조정하고 강화하였다. 1962년 3월 2일에 북한에서 발표된 20호 결정에 의하여 3개 중점대학에 박사원을 증설하였다. 1962년 4월 1일에 정식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학위학직수여 조례기를 발표하여 학위제도로 하여금 더 한층 규범화되게 하였다. 그 학위제도는 70년대에 또 몇 차례로 개정과 보충을 하여 더 완벽하게 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 대학원생 양성제도와 학위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개정하고

새로운 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에 의하여 1983년 9월 1일부터 각 대학에 설치한 연구원은 앞으로는 준박사대학원생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새로 대학에 남은 교원들이 연수를 받는 기관으로 될 것이며, 학제를 여전히 3년으로 한다고 하였고 박사원은 전문적으로 학위대학원생을 양성하는 기관이며 여기에 준박사반과 박사반을 나누어 설치하고 또 따로 특설 준박사반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그 특설 준박사반은 수업경험도 풍부하고 과학연구 성과도 많고 나이가 많은 상급교원과 부교수들에게 설치해 준 1년제의 준박사 학위를 얻기 위한 기관이다. 그 특설 준박사반은 수업이 없고 그저 학위 논문만 쓰면 된다.

북한에서 80년대 중 전기 이전에 준박사와 박사학위를 얻은 자는 절대부분 40, 50대 이상으로 근본상 20, 30대 되는 자가 없었으므로 인재의 발전을 제한하였다. “20, 30대 준박사와 박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시한 1985년 이후부터 대학에서 ‘후보 준박사’ 제도를 세워 말하자면 대학생이 재학기간에 자신의 노력으로 ‘후보 준박사’ 증서를 얻을 수 있으며 졸업한 후, 박사원의 ‘준박사반’에 들어가 준박사 학위과정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생의 학습 적극성을 대단히 격려하였고 고등교육의 질적제고를 촉진하였다. 1994년 김일성종합대학의 졸업생 중 20%의 학생이 재학기간에 ‘준박사’ 증서를 얻었으며 졸업 후 직접 박사원에 입학하였다. 북한에서는 1985년 후 20세 넘어 박사학위를 얻은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대학이후의 재교육 체계

8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의하여 이미 고등교육을 받았던 유관 부문의 과학사업에 종사하는 일꾼, 기사, 기술자, 의사, 교원, 농예사 등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보충하고 지식을 새롭게 바꾸어 대학 후의 재교육체계를 세워 평생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재교육의 내용이 다르며 형식도 각기 다르나 기본상 전공지식수준의 능력을 보충하고 제고하거나 제2, 제3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다. 보통 ‘중심대학’ 혹은 지정한 단과 대학에 재교육학부와 양성반을 설치하여 학제는 3개월 혹은 반년이나 1년으로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인 경우에 계획적으로 차례대로 양성하거나 특강을 진행한다.

90년대에 들어선 후 대학을 마친 후 재교육의 새로운 국면이 나타났다. 특히 의학, 사범, 공과와 농과분야의 발전이 비교적 빨랐다. 예를 들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재교육학부’를 설치하였고, 평양 의과 재교육대학은 평양 제1병원에 부설하였으며, 사범대학 분야를 볼 때 평양 김형직사범대학 등 사범대학에 재교육학부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도에 사범 재교육학교를 설치하였고, 공과계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재교육학부를 설치하였다. 1994년에 또 평양 농업간부 재교육대학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 방면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학 ‘정예화’(精銳化)와 고등교육의 전반화(全般化)를 결합한 제도를 세웠다.

1972년부터 시험적으로, 단계적으로 1년제 학령전 의무교육과 10년제 고중의무교육제(국민학교에 4년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6년제 고등중학교로 나눈다)를 실시하고 1975년에 전반적으로 11년제 의무교육제를 북한의 전역에 보급하여 왔다. 1985년까지 북한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11년제 의무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고등교육의무의 전반화'를 비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특히 고등교육의 전반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북한은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점 투자하는 방법으로 '중심대학'을 많이 세워 그들로 하여금 '정예화' 하도록 하였다. 이런 대학들은 나라에서 중점으로 투자하여 교육설비 수준을 보장하고 학생의 질과 대학교사들의 소질을 높이며, 대학교사들이 모두 학위를 얻도록 힘쓸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런 대학에서는 학생 모집정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질을 보편적으로 높여 나라 각 분야의 중견적 인원들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런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모두 10개 있는데 각기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면 80년대 김일성종합대학의 학교환경 건설에 투자하고 90년대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사와 설비에 투자하여 93년에 이 대학에서는 많은 컴퓨터를 수업하여 교수들을 확보하였다. 또한 북한은 전통문화를 깊이 연구하기 위하여 90년대 초에 개성시에서 成均館대학을 설치하여 인문종합대학으로 성육하려고 하고 있다.

외국에 연수교원과 유학생을 파견하고

8·15해방 후 그당시 북한에서 대학 이상의 문화정도를 가진 사람이 오직 93명 밖에 없어 인재가 결핍한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였다. 이에 북한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 (1) 외국에 대학교원과 유학생을 많이 파견하여 깊이 연구하도록 하였다.
- (2) 학위제도를 보급하여 특수 경비를 많이 지출하여 몇 개 중점대학에 연구원(대학원)을 부설하고 대학생을 양성하여 고급과학인재가 나타나도록 격려했다. 그래서 50년대와 60년대 초에 구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 또한 중국에 연수교원과 유학생을 많이 파견하고 여러 가지 학과에 전공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러나 60년대 중기부터 이른바 주체 사상을 강조하여 외국에 연수교원과 유학생들을 점차적으로 적게 파견하다가 그후 거의 중단하였다.

50년대 특히 80년대 중기부터 또 다시 외국에 연수교원과 유학생을 대량적으로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중반기에 가장 많은 때 해마다 500명이 넘었다. 대체로 2~3학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6개월에서 1년간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외국 초빙교수로부터 어학연수를 받는다. 극히 일부는 외국대학에서 연수 받기도 한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구소련 및 동유럽 나라가 급변한 후 해외연수와 유학의 인원이 대폭 줄었다. 1년에 1백~2백명 정도로 중국과 쿠바에 파견되었으나 남한으로 귀순해 온 유학생이 부단히 증가함에 따라 유학교원과 유학생의 파견에 인원을 줄일 뿐만 아니라 선발에

매우 엄격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파견한다. 이와 동시에 북한에서는 외국에서 교수를 초빙하여 대학생을 양성하고 있다. 초빙 교수는 주로 언어교수가 많고 첨단 과학 기술학과 교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방법으로 북한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몇마디의 결론

북한에서 1946년 10월 첫 대학을 세움으로부터 지금까지 고등교육발전과 개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함을 중요시해 왔다.

첫째, 대학을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그의 과학적 조치를 하는 것을 중요시하여 대학을 평양에 집중하지 않고 각 도(직할시)를 중심으로 농과제와 공과제, 의학계, 사범계 등의 대학을 설치하였다.

둘째, 북한의 인민경제의 발전과 현대적 과학기술 진보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학과전공을 조정하고 설치하였으며 과정안과 교육요강, 교과서, 교수방법을 개정해왔다.

셋째, 정규대학을 계통적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체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고등교육은 발전과정에서 팽창정책을 실시하고 또한 폐쇄적 정책을 하였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많이 발전하였지만 질이 아직 낮은 것은 사실이다. 폐쇄정책 탓으로 세계과학기술수준에 멀리 뒤떨어졌던 교수들이 외국에 나가려고 하여도 많은 제한으로 국제와 활발히

교류하지 못하였고, 낡은 교과서를 늘 개정하여도 세계과학기술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며, 교육재정이 매우 부족하여 시설과 설비를 제때에 보충하지 못하고 특히 교수나 유학생들을 국외에 많이 배출하지 못하니 세계에서 빨리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급속히 전진하고 있는 세계고등교육수준에 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에서 양성된 인력으로 어떻게 사회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겠는가를 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손계림

- 중국 동북사범대학 정치교육학부 졸업
- 중국 동북사범대학 교수, 동북사범대학 비교교육연구소 부소장
- 본원 연구교수로 근무

일본 국민학교의 '하게미' 학습

박 영 숙

들어가는 말

일본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국민학교에 신학습지도요령을 적용, 실시해 오고 있다. 새로운 학습지도안에서는 21세기에 대비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스스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육성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기초·기본 교육이 강조되고 자기교육력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교육학계에서도 이러한 개혁의 대흐름에 동조, '지도의 개별화, 학습의 개성화'라는 모토가 형성되어 학생 개인의 학습 차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적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게미(はげみ)학습은 기초·기본 학습을 철저하게 지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개별화된 교수·학습 형태로써 열린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지만 점차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게미 학습으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독자적으로 명칭을 부여하기도 한다[노빗고(のびっこ, 신장하는 어린이라는 의미)학습이라고도 함]. 여기서는 하게미 학습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떠한 배경하에서 실시되었는지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기초·기본 교육은 우리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하여 소개한다.

'하게미' 학습의 개념 및 특징

일본어로 하게미(はげみ)란 어의는 '노력함' 혹은 '힘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게미 학습이란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 보면, '노력하여 학습한다'라는 뜻이 된다. 하게미 학습이란 용어가 붙여진 데에는 어린이들간에 나타나는 학습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어린이 스스로 실수를 극복하고 재미를 붙여 가면서 노력하여 학습하게 하려는 취지가 깔려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게미 학습이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 보면, '기초 및 기능적인 학습 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습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이 갖고 있는 학습 수준에 맞추어 일정한 시간 내에서 자유스러운 학습 속도로 미리 준비되어진 학습 과제를 개별적으로 다루어 가는 교수·학습 활동'인 것으로 제시된다. 하게미 학습의 주된 특징은 무엇보다도 교수·학습 지도의 개별화를 추구한다는 점

이다. 어린이 개인간에 나타나는 상이한 학습 속도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개별화된 교수 방식을 선택하여 지도한다는 데 교육 방법상의 강점을 갖고 있다.

하계미 학습의 과정에는 하계미 학습이라는 용어가 붙여졌던 것만큼 학생에게나 교사에게 교수·학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에게는 자신이 습득해야 할 학습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반복 훈련이 요구되고 교사에게는 학생이 실패했을 때 상응하여 제공할 수 있는 문제 해결식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준비함이 요구된다.

하계미 학습은 기초 및 기능적인 내용의 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학, 국어, 음악, 체육 등의 교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산수에서의 계산을 위한 '수 하계미'가 있고 국어의 한자 습득을 위한 '문자 하계미', 독서를 위한 '독서 하계미', 음악에서의 악기 연주를 위한 '리코더 및 건반 하계미', 체육에서의 '철봉, 매트, 뽀뽀기, 수영 하계미' 등이 있다. 각 하계미 유형은 쓰고, 읽고, 셈하는 기본 학습 능력에 신체 및 정서 발달에 필요한 기본 감각과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구안되어 있다.

하계미 학습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학습력을 기르는 개별학습이다. 교사에 의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자유 진도로 코스를 선택해서 자기 평가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행할 수 있다.

둘째, 정규 교육과정 속에 매주 일정

시간 할당되어 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 1~2시간이나 아침 등교시 '여유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의욕을 기르게 하는 학습 활동이다. 계산과 한자 익히기와 같은 학습은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컴퓨터 등과 같은 보조 교재를 준비하여 학습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반복에 의한 학습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재미를 붙여 가면서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넷째, 무학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자와 계산에서 개인차가 많음을 고려하여 5~6학년생이라도 저학년의 내용부터 다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계미 학습에서는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 개인이 학습할 필요에 의하여 단계별로 학습이 가능하고, 뒤쳐졌다는 열등 의식없이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하계미’ 학습 운영 사례

오가와 국민학교는 아이치현 지다군 히카시 우라초(愛知縣東浦町)에 소재한 공립학교로서 1978년 신축과 동시에 열린 교육을 실시해 온 대표적인 학교이다. 이 학교에 입학할 때 학생들은 '하계미 화알'을 받게 된다. 이 화알에는 수 하계미, 문자 하계미를 비롯한 모든 하계미에 관한 자료가 들어 있다. 자료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15매의 카드로 만들어져 있고, 각 하계미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계화되어 있다. 하계미별

로 단계화된 내용을 보면, 수 하계미는 8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문자는 154단계, 독서 66단계, 리코더 기초 19단계, 발전 15단계, 건반 하모니카 기초 20단계, 발전 1단계, 체육에서의 매트는 19단계, 텀뛰기 20단계, 철봉 32단계, 수영 21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학교에서 1년 동안 운영하기 위하여 계획한 하계미 학습 운영 계획(안)에는 하계미 학습의 목표, 기본 방침, 하계미 학습의 연간 시수와 표준 시수, 하계미 시간 운영 사항, 당해 연도의 중점 목표 등이 제시된다. 하계미 학습을 하는 표준 시간수는 1학기분에 대개 수 하계미 6회, 음악 2회, 문자·독서 3회, 체육 2회 정도이다. 표준 시수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계획을 세운다.

하계미 시간 운영 사항에는 하계미 학습 유형별로 학습하는 장소와 평가 장소, 치료 학습 장소 등에 관한 정보가 학생이 스스로 찾아 가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오가와 학교에서의 하계미 학습은 매주 금요일 10:50~12:00에 행하여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습하고 나면 검정(檢定)이라고 불리는 평가지로 자신의 학습 결과를 평가한다. 문제는 보통 이해하고 있을 경우 10분이면 충분하지만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은 두지 않는다. 동일한 검정 내용에 대하여는 3회까지 응시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검정 장소는 플레이룸(저학년용)과 홀(고학년용)의 2개 장소이다. 그곳에는 검정 담당 교사가 3~4명 상주하고 있다. 이들 교사는 학생의 문제풀이가 틀렸을 경우 그 학생에게

해결 방법에 관한 상담을 해 준다. 악기 연주와 체육에서의 매트나 철봉과 같은 영역에서는 검정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하계미에 합격한 리코더, 매트 스타라고 불리는 6학년생이 교사와 함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하계미 학습 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자기 도달 진도에 맞추어서 검정 카드를 배열대에서 골라 다목적 홀의 자유로운 장소에서 검정을 받는다. 검정을 끝낸 학생은 다목적 홀의 한쪽에 있는 '해답 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해답 카드'를 보면서 스스로 정답을 맞추어 본다. 전체 문제를 다 맞추었을 경우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화일에 철해 두고 합격 도장을 스스로 찍고 나서 다음 단계의 학습을 진행해 간다. 다음 학습 단계로 진행해 갈 때 '오픈 엔드'라고 불리는 학습재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놀이적 요소를 도입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고안된 일종의 심화학습의 형태이다. 어린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도달점이 다르고, 도달점이 달랐는지 않다는 의미에서 오픈 엔드라고 부른다.

불합격한 경우는, 실패한 원인에 대하여 교사와 상담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 학습'이라고 불리는 학습을 받는다. 치료학습을 받은 다음 학생은 검정을 다시 하게 되는데 처음 검정을 받을 때는 검정 A로 불리우며 치료학습을 받은 후의 검정은 검정 B로 불리운다. 검정 B는 검정 A보다 쉬운 문제로 구성되는 일반적 검정이다. 치료학습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1) 교과서에 의한 지습

교과서를 참조하면서 다목적 홀과 학년

전용 학습 공간에서 독학으로 습득하는 유형이다. 이것은 비교적 간단한 실수가 있는 어린이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테이프에 의한 학습

단계별로 문제 해결 방법을 교사가 녹음해 둔 테이프를 들으면서 테이프 카드를 사용하면서 학습하는 유형이다. 테이프와 테이프 카드는 홀에 인접해 있는 학습 코너에 설치되어 있다.

3) 컴퓨터에 의한 학습

시판되는 각종 컴퓨터 교재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4) 교사에 의한 개별지도

점점을 받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린이와 오답이 많은 어린이의 경우 교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지도를 받아 학습하는 유형이다.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좌에는 상담 교사 외에 '리틀 마스타'라고 불리는 모든 하게미에 합격한 어린이 [일명 치빗코(ちびっこ)]들이 참여하여 강좌를 듣고자 하는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지도를 한다. 장소는 다목적 홀과 학년 전용 학습 공간 등에서 행하고 있다.

5) 학우의 도움에 의한 개별 학습

서로 도와 학습하는 것으로 진도가 빠른 어린이들의 도움을 받아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는 유형이다. 이것은 진도가 빠른 학생은 반복학습의 기회가 되고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게미' 학습의 실시 배경

하게미 학습이 실시된 배경에는 일본 교육계에 형성된 '교육의 개별화 및 개성

화'란 모토가 작용하고 있다. 일본 교육계에서의 개별화란 용어는 이미 1960년대에 도입되어 사용되었던 것이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교육의 현장에 정착하게 된 것은 열린교육을 도입·실시하면서부터이다. 열린교육은 197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던 새로운 교육의 형태로서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나 시설 면에서 획기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었다. 즉 교수·학습을 시도한 반면 교육시설 면에서는 소집단 학습이나 팀티칭, 프로그램 주간 학습 등의 다양한 개별화 학습을 시도한 반면 교육시설 면에서는 다목적 스페이스를 설치·활용함으로써 학년간 교과간의 협력 학습을 시도하였던 것이다[열린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학교로는 오가와(緒川)국민학교를 비롯하여 우노사토(卯の里), 미야마에(宮前), 후쿠미츠 동부(福光 東部), 이케다(池田) 국민학교 등이 있다]. 열린교육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함께 문부성에서는 1984년도에 다목적 스페이스 마련을 위한 국고보조를 단행하였고, 지난 1989년에는 '신학습지도 요령'을 공표하면서 열린교육의 개념에 입각하여 교육을 전개하려는 기본 방침을 명시한 바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교육계에는 '지도의 개별화, 학습의 개성화'란 비교적 구체적인 교육 방침이 제시되고 있다.

가또우 키추구(加藤幸次)나 미즈코시 토시유키(水越敏行)와 같은 교육학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학습의 차이에 맞추어 교사가 개별화된 교수 형태를 운영함과 더불어 학생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추어

학습 과제를 선택하고 해결해 나가는 학습의 개성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들에 의하면 학생의 개인차에는 학습 준비도와 도달도에 있어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양적인 개인차'와 학생의 흥미나 인지 형태와 같은 정량화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학습의 유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교사 측면에서는 학생의 차이에 부응하여 개별화된 교수안이 계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측면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도적인 학습과정이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개별화를 강조하는 일본 교육계의 대 흐름 속에서 하계미 학습은 기초 및 기능적인 학습에 관계된 정량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써 지도의 개별화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즈미(いずみ) 학습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어린이 개인이 1년에 걸쳐 진행할 학습 주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주제를 탐구해 가는 학습의 개성화를 지향하는 개별학습으로 이해된다. 하계미 학습과 이즈미 학습이 모두 개별 학습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하계미 학습에서는 교사가 사전에 준비해 둔 교재에 의해 개별적으로 학생이 학습해 나가는 반면, 이즈미 학습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 과제와 교재까지 선택하여 학습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하계미 학습은 '지도의 개별화'로, 그리고 이즈미 학습은 '학습의 개성화'라고 일본 교육학자들은 구분하고 있다.

하계미 학습이 열린교육을 실시하는 학

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학교가 이를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일제 수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기초·기능의 철저한 학습을 위하여 하계미 학습이 보편화되고 있는 경향과 그것을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주도해 나가는 학습의 개성화라는 것이 일본 교육계가 앞으로 지향해 나아가야 할 교육의 지표라고 전망해 본다면, 교사가 주도하면서 학습의 개별화를 추진하는 하계미 학습과 같은 유형은 아직까지 일제학습 유형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현단계에서는 조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맺음말

일본의 하계미 학습을 우리 나라 국민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보면, 일종의 보충 및 심화학습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하계미 학습이 우리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수업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아침 등교시 판서나 문제지로 산수 문제 풀이나 한자 학습을 자율학습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계미 학습과 유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하계미 학습은 개별화 교육이란 방침하에 다양한 교육재의 준비와 시설 계획하에 지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각별한 주목이 필요하다.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진도에 맞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가 개별지도를 행하는 일본의 하계미 학습 형태는 우리의 자율학습이라고 부르면서 행하는 학습 형태와는 너무나도 비교된다.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자유스런 나머지 방임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향이 있고, 중간에 학생이 싫증을 느껴 안해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우리의 국민학교 교육은 학생 자신이 문제를 풀다가 틀렸을 경우, 자신이 왜 틀렸는지에 관하여 숙지하고 교사가 도와주는 기회가 부족하고, 틀렸다고 해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교육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부족하다. 체육과 음악 같은 교과에서도 일정 수준의 기초적인 기능을 숙달하는 데 충분한 반복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학교 4학년쯤 되면 산수를 잘하던 아이들도 종종 어려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논리를 강조한 나머지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조차 지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이쯤되면, 교사들도 학생들의 차이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역부족이란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학원과 과외 학습이 극성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시 한번 국민학교에서의 기초·기능 교육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학년에서 습득해야 할 기본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숙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우리 학교교육에서는 재학습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제공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아야 하며, 학교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의무교육으로서의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기

초·기능 교육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학습재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기초·기능 학습을 철저하게 지도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미처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여 가정에서 그 몫을 떠맡고 있거나 않은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말에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도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 확립을 강조하면서 개별화 학습을 강화하는 교육방침을 제시한 바 있지만, 컴퓨터나 멀티 미디어와 같은 첨단 교육기기를 확보해야만 개별화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님을 이면을 통하여 바로 잡고 싶다. 컴퓨터나 멀티 미디어와 같은 교육제는 시설·설비 측면에서 확보되어야 할 과제라면 하계미 학습과 같은 유형의 개별화 학습은 지금의 교육 여건속에서도 체계적인 노력과 준비를 통하여 실시될 수 있다고 본다. 교육개혁의 흐름에 부응하여 교육 현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부터 지원함이 교육개혁의 성공을 이끄는 지름길이지 않나 싶다. ●



박영숙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본원 교육발전연구본부 교육 정책연구3부(선임연구원)
- 「교원의 승진 및 전직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싱가포르 직업 기술 교육 동향

이 정 표

싱가포르를 연상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거리가 가장 깨끗한 나라라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 이와 함께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싱가포르는 사회의 질서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에 상관없이 과하리 만큼 엄한 벌금과 태형을 가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대만에 이어 곧바로 싱가포르에 도착한 우리 일행에게 싱가포르의 정돈됨은 대만 거리의 무질서·불결함 등의 좋은 대조를 보여주었다. 무질서 속에 질서와 여유가 심지 깊게 내재된 대만인들에서 느낀 편안함이 통제와 제약으로 정돈된 싱가포르의 단정한 모습으로 인해 갑자기 경직되고 불편해짐을 느꼈다.

1959년 새헌법을 공포하여 영연방 내의 자치령이 된 후 다민족, 다종교, 복수언어 국가로서 대외적으로는 비동맹 중립노선을 지향하면서도 국제 금융시장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항으로서 신흥공업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전체 면적 622km², 인구 약 3백만의 작은 도시국가로서 약 70% 이상의 국민이 중국계로 '작은 중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다

수의 민족들이 서로 조화롭고 질서있게 모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통제와 엄격함으로 인해 가능했으리라고 여겨졌다. 그런데 사회 곳곳에 배어 있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통제는 단지 도덕이나 규범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며,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싱가포르에서는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만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교육투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체계적인 국가의 인력 수급 계획 하에서 장기간의 교육 전략이 수립되며, 전략에 따라 교육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싱가포르의 독특한 교육제도 속에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1995년 7월 15일에서 18일까지 방문했던 싱가포르의 직업 기술교육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의 직업 기술교육에 대한 정보는 비교교육 차원에서 우리 나라 직업 기술 교육의 발전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교육제도를 개관하고, 후

기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의 주요 직업기술교육제도 및 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우리 나라의 직업기술교육 제도의 발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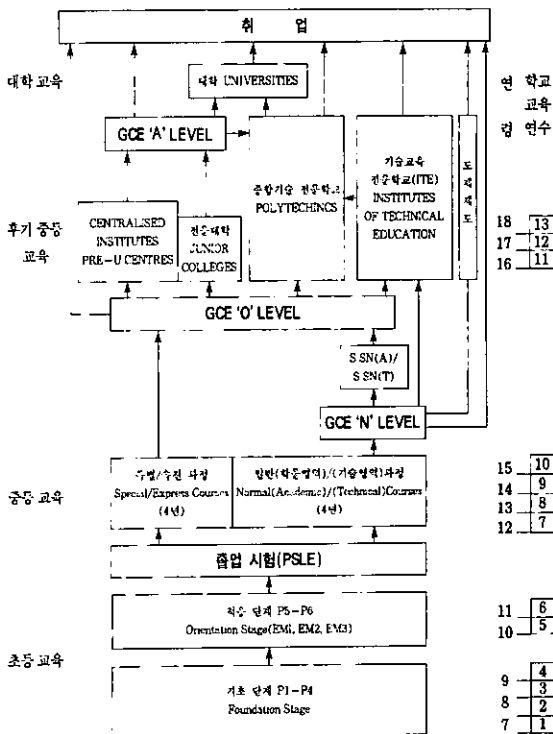
싱가포르 교육제도의 개관

○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싱가포르의 초등교육은 4년의 기초단계(foundation stage)와 2년의 적응단계(orientation stage)로 이루어지며, 영어, 모국어(중국어, 말레이시아어, 타밀어), 수학의 숙달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기초단계 3학년 말에는 자녀의 적성과 성취 정도를 중심으로 부모와 상담이 이루어지며, 4학년 말에는 영어, 모국어, 수학의 성취 정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5학년 적응단계에서 계열이 결정된다. 계열화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동이 EM1(English-Mother tongue 1), EM2, EM3 계열 순으로 배치되며,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ME3 계열로 진입할 수 있다. 형성 평가 및 학기말 평가를 통해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교장의 권한에 의해 계열간 이동이나 유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싱가포르의 교육제도



적응단계 6학년 말에는 계열에 상관없이 국가에서 관장하는 졸업시험(PSLE: 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이 실시된다. 이 시험은 중등교육에서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학습속도, 능력, 적성에 맞도록 아동을 적절한 과정에 배치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다.

○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초등교육 6학년 말에 실시되는 졸업 시험이자 배치 시험이기도 PSLE에서 일정한 성취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은 중등교육 단계에서 특

별/속진/일반(special, express, normal) 과정에 입학하게 된다.

이에 비해 학업성취 수준이 다소 부진한 학생들은 중등 일반과정(normal course)에 입학한다. 이러한 계열화는 개인의 학습능력 및 흥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특별 및 속진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해 나머지 학생들은 4~5년의 일반 과정에 들어간다. 특별과정 및 속진과정 학생들은 4학년 말에 GCE(Singapore-Cambridg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Ordinary'(O) 수준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일반과정 학생들은 학문영역의 일반 과정(normal (academic) course)이나 기술 영역의 일반과정(normal (technical) course)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4학년 말에 GCE 'Normal'(N) 수준의 시험을 치루게 되며, 이 중 능력있는 학생들은 1년 정도 학업을 계속 수행하여 5학년 말에 GCE 'O' 수준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학문영역의 일반과정을 통해 GCE 'O' 수준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들은 전문대학(junior colleges)이나 종합 기술전문학교(polytechnics), 기술교육 전문 학교(technical institutes)에 진학할 수 있으며, GCE 'N' 수준 시험으로 일반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대부분 기술훈련기관에서 직업기술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기술영역의 일반과정 학생들은 기술교육전문학교(ITE: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며, 일부 능력있는 학생들은 GCE 'O' 수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 후기중등교육(post secondary education)

싱가포르에서는 4~5년간의 중등교육을 통해 GCE 'O' 수준이나 'N'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전 교육이나 직업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후기중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문적 적성과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2년제 전문대학(junior college)이나 중앙연구소(Centralised institute), 초급대학센터(Pre-university) 등의 학교에 진학하여 2년간의 대학 전 교육을 받고 2학년 말에는 GCE 'Advanced'(A) 수준 시험을 치루게 되며, 시험결과에 의해 대학 입학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기술 및 실업 분야에 적성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은 종합기술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 후 대학의 디플로마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 기술교육전문학교 ITE는 GCE 'O' 수준의 자격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수준 높은 직업과정을 제공한다. 이 기관들에는 2급 기술자격증(NTC-2)을 취득할 수 있는 2~3년의 정시제 과정이 있다. 능력있는 학생들은 2급 기술자격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ITE나 종합기술전문학교 및 대학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대학교육(university education)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와 난양 기술대학(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이 있다. 이 대학들은 주로 GCE 'A' 수준과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가 추가되어 입학이 가능하며, 디플로마

소지자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 정원의 비율은 국립대학교와 기술대학교에 각각 약 25%, 75% 정도로 구성되어 인문교육보다 기술교육이 훨씬 더 강세를 보인다.

국립대학교는 인문교육의 대학교육 기관으로서 영국식 제도의 엄격함과 깊이, 그리고 미국제도의 융통성 및 다양성이 통합된 학기 중심의 모듈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경영학, 인문사회과학, 엔지니어링, 건축 및 부동산 경영학부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난양기술대학교는 종합대학교로서 특히 기술공학과 경영 관련 영역이 강한 편이며 학위 과정은 회계학, 경영, 컴퓨터 공학, 엔지니어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직업기술 교육제도

싱가포르의 직업기술교육은 중등단계에서 기술영역의 일반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후기 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실시된다. 후기 중등교육 단계의 직업기술 교육기관은 대표적으로 교육부 산하의 11개의 기술교육 전문학교(ITE: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와 4개의 종합기술 전문학교(Polytechnic)를 들 수 있다. 또한 대학교육 수준에서는 앞서 밝힌 바 있는 기술 공학 중심의 1개의 난양기술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일행이 방문했던 Ang Mo Kio에 위치한 ITE와, 종합기술 전문학교 중의 하나인 Japan-Singapore Institute of Software Technology를 중심으로 후기 중등교육 수준에서 실시되는 직업기술 교육

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대학 수준에서는 난양기술대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 기술 교육 전문학교(ITE: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싱가포르에는 11개의 ITE가 설립되어 있는데 ITE의 설립 목표는 노동력의 질을 높이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교육과 훈련의 수월성을 통해 싱가포르인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데 있다. ITE에서 실시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첫째 중등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전일제 훈련 과정, 둘째 근로자들을 위한 정시제 CET 과정, 셋째 고용주들이 실시하는 산업체 중심의 훈련을 지원하거나 증진시키는 과정(도제제도 체계와 인정 훈련소), 국가기술자격 및 공공 기술 시험제도의 운영을 들 수 있다.

ITE에 개설된 과정을 보면 상업자격 취득과정(Certificate in Business Studies)(2년), 산업기술 자격 취득과정(Industrial Technician Certificate)(2년), 2급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National Technical Certificate Grade 2)(2년), 사무기술 자격 취득과정(Certificate in Office Skills)(1년), 도제제도(Apprenticeship)(2~3년)로 이루어져 있다. 전일제 훈련 과정은 엔지니어링, 상업과, 공업기술부문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각 전공 영역은 1~2년의 이수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도제제도는 제조부문, 기술지원부문, 재정/상업부문, 서비스부문으로 구성되어 실시되고 있다. 제조부문에서는 정밀 기술, 전기, 전자, 자동화, 인쇄, 목공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기술지원부문은 항공, 자동차, 선박/조립, 기계/보수로 구성된다. 재정/상업부문은 사무기술을 위한 상업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부문은 의복/섬유, 미용, 호텔경영, 도매업, 여행, 보건의료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ITE는 향후 다음과 같은 점에 강조를 두어 발전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첫째, ITE를 국립 후기중등기술기관으로 구축해 나간다. 둘째, 숙련 노동자들의 기술 훈련과 위상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수행한다. 셋째, 도제제도를 고용주와 졸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간다. 넷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해 형식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에게 ITE의 CET 과정에의 참여를 유도한다. 다섯째, 노동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증가시키는 전략으로서 OJT를 권장해 나간다.

○ 종합기술전문학교(Politechnics)

싱가포르에는 Nanyang, Ngee Ann, Temasek, Singapore (Japan-Singapore) 등 4개의 종합기술 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주로 실습 위주의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ITE 졸업자들은 물론이고 GCE 'O'수준과 'A' 수준을 갖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4개의 종합기술 전문학교에서는 각각 공학, 경영 및 해운학, 매스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그래픽, 생산 및 인테리어 디자인, 컴퓨터, 간호학, 방사선 사진술, 지형학, 작업요법 및 정보공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기술교육이 이루어진다. 전공 관련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ITE 졸업자거나 ITE

의 도제제도를 거친 사람들은 종합기술 전문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훈련은 이론과 실재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육과정 이수 시간의 상당히 높은 비율을 실제 훈련이나, 실험실 습소 및 현장실습에서의 실제적인 경험을 수행하는 데 할애한다. 이 밖에 학생들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감독 능력, 정보 공학 등을 배우며 지구촌 시대에 직면하여 외국어를 익히게 된다.

여기에서는 4개의 종합기술 전문학교 중의 하나인 Japan-Singapore (Singapore) Institute of Software Technology (JSIST)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운영 실재를 살펴 본다. JSIST는 싱가포르의 정보기술(IT) 산업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일본과 싱가포르 정부간에 기술협동 사업의 하나로써 1980년에 설립되었는데 현재는 싱가포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JSIST는 1982년에 디플로마 과정을 처음 도입하기 시작하여 1984년에 졸업자를 처음 배출하였는데, 이 졸업생들이 싱가포르 IT 전문가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JSIST는 훈련을 통해 분석 프로그래머, 시스템 분석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IT 전문가들을 배출해 내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에 자문 역할을 통해 JSIST의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며, 산업체와의 협동하에 공동 IT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는 싱가포르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0년에 30,000명의 IT전문가들을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JSIST가 이 목표 달성의 선두

적인 입장에 설 것으로 기대된다.

JSIST의 학위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컴퓨터 정보시스템(Diploma in Computer Information Systems)과정으로서 이는 정보기술 시대에 있어서 매우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훈련 프로그램은 강의와 실기 및 연구과제 해결을 강조하는 개별지도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IT 전문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계 및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보충 과목을 가르친다. 그 밖에 1학년 때에 일본어를 필수적으로 가르치며, 그 이후부터는 선택으로 되어 있다. 디플로마 과정은 GCE 'O'수준 소지자들에게는 3년 과정 프로그램이며, GCE 'A'수준 소지자들에게는 2년 과정 프로그램으로 입학지원율은 약 5대1 정도가 된다.

둘째, 고급 소프트웨어 공학(Advanced Diploma in Software Engineering) 과정으로서 이는 소프트웨어 공학 영역에서 자신이 최신 기술이나 지식을 얻고자 하는 시스템 분석가 및 프로그래머를 훈련시키기 위해 개설된 것이다. 더 나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및 방법 CASE 도구가 학생들에게 소개된다.

셋째, 시스템 분석 및 디자인 대학원 과정(Post-Graduate Diploma in Systems Analysis and Design)으로 이 과정은 대학 졸업자 중 특히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와 개발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 졸업자 중 컴퓨터 관련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스템 분석자나 프로그래머, 정보시스템 분석자나 IT 관련 전문가

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정보시스템 기술 대학원 학위 과정(Post-Graduate Diploma in Information Systems Technology)으로 이는 2년제 정시제 프로그램으로서 대학 졸업자들에게 제공된다. 이 목적은 근무 현장에서 IT 운영자로서 기능하거나, IT 마케팅 운영 혹은 IT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IT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IT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개설되었다.

그 밖에 1996년도부터 개설될 예정으로 있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공학 과정(Diploma in Multimedia Software Engineering)은 싱가포르의 IT 2000 계획에 따라 주요 성장 부문으로 제시되는 멀티미디어 컴퓨터 산업에서의 IT 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 계획으로 있다.

○ 난양기술대학교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난양기술대학교는 싱가포르에서 인문 중심의 국립대학과 대비되는 단 하나의 기술중심의 종합대학이다. 기술대학교는 1981년에 난양 기술 교육 기관(Nanyang Technological Institute)으로 출발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엔지니어링과 기술공학에 대한 수준 높은 교수, 훈련 및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1년 의회 법령에 의해 현재와 같이 자체적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종합대학으로 개명되었다.

Jurong에 위치한 캠퍼스는 2백만 평방

미터에 달하며, 1995년 현재 대학원생 1,800명과 학부생 12,000명에 이르고 있다. 기술대학교는 각 학부에 연구 실습실과 연구센터 이외에 산업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일하는 많은 자원 센터를 설립해 왔다. 기술대학교의 전공학부로는 회계 및 경영학부, 응용과학부, 토목 및 구조공학부, 커뮤니케이션 학부, 전기 및 전자공학부, 기계 및 생산공학부, 고급소재연구소(AMRC), 고급건축학 센터(CACS), 제조공학 연구소, 수송학 센터(CTS), 기업가 의식 발전 센터(ENDEC), 혁신센터, 네트워크 공학연구소(NTRC), 로봇 연구소, 그래픽 및 영상공학을 위한 NTU-SGI 센터 등이 있다.

기술대학교에서 제공되는 학위 과정은 회계학, 경영학, 컴퓨터 공학, 엔지니어링, 재료 공학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학원 수준에서는 연구나 과정이수, 그리고 논문에 의해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기술대학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NTUnet이라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대학 차원에서 설치함으로써 BITNET, INTERNET와 같은 범세계적인 학문 및 연구망과 국가적인 연구개발 네트워크인 TECHnet으로 연결하여 있다. 이 대학교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 및 상위권 대학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메사추세츠 공학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 협약을 맺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 이후의 교육 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으로서 초등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중등 일반 과정에 기술 영역 선택과목을 설치하

여 중학교와 후기 중등교육 수준에서의 직업기술 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JOHN & SIM, 1994: 30). 싱가포르의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서 직업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양적인 증대와 함께 질적인 확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직업기술교육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직업기술교육을 포함한 싱가포르 교육 제도의 특징을 우리나라 직업 기술 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사점을 줄 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싱가포르의 교육제도는 개인의 학문적인 능력이나 적성이 철저하게 고려되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실시하며, 능력 중심의 선발체제의 특징을 갖는다. 초등학교부터 이미 아동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분별하기 위한 평가가 수치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말에 실시하는 최종시험은 중등학교의 계열을 선택하는 데 주요한 객관적 기준이 된다. 또한 중등학교의 경우, 성적이 우수한 아동은 특별과정이나 속진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것에 반해, 그렇지 못한 아동의 경우에는 일반과정에 입학하게 되며, 과정 간에는 학습의 난이도가 고려되어 개발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각기 다양한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국가시험인 GCE 'O' 수준이나 'N' 수준을 치르게 되며, 이는 후기 중등학교 진학을 위한 객관적인 입학 조건이 된다. 결국 싱가포르의 교육제도는 개인의 성취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개인의 학습 속도나 능력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연수 또한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능력 중심의 선발 체제 이면에는 질 좋은 초등학교의 선택권이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짐으로써 학력의 귀속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도 한다.

둘째, 싱가포르의 직업기술 교육은 복선형 제도 하에서 조기부터 실시되며 직업기술 교육체통의 계속교육체제가 발달되어 있다.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업기술 교육 이수자들은 일반계 교육 이수자들보다도 학문적인 성취면에서 능력이 다소 떨어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철저한 능력 중심의 선발체제를 통해 인문 교육 수혜자들이 숫자상 적은 집단을 구성하며 직업기술교육 이수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체제와 함께 직업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실용성 차원에서 보편화 되어 있다. 직업기술교육체도가 수직적으로 잘 연계화되어 있어, 개인이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중등학교 수준에서의 기술영역의 일반과정, 후기 중등교육 수준에서의 종합기술 전문학교와 ITE, 대학수준에서의 기술대학으로 이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인문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싱가포르의 직업기술 교육은 철저한 인력 수급 계획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자격 검정의 기준 설정, 교육과정의 개발, 직업기술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산업계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 ITE와 종합기술전문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산업계와 노동계의 인사들로 주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 공급자인 교육훈련기관, 자격검정기관 등과 수요자인 산업계가 연계되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직업기술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싱가포르 현지의 직업기술교육기관을 방문하고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싱가포르 한인학교의 박호남 교장선생님과 JSIST의 이관용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통해서 가능했다. 지면을 통해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정표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 박사)
- 본원 직업기술교육연수특임본부 연구원

기획처

- * 지난 8월 24일 OECD 한국교육정책 평가 조사단 Abrar Hasan 의 1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OECD 한국교육정책 평가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을 하였다.
- * 박덕규 교육정책연구3부장(교육발전본부)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터키 부카 이즈미르에서 개최된 '교사 교육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
- * 8월 28일 베트남 하노이대 역사학과 Vu Duong Ninh 교수가 본원을 방문하여 본인의 연구현황을 청취하였다.
- * 허경철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NIER이 주관하는 '교육개혁과 교육연구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
- * 9월 12일 본원 제2회의실에서 미국 Wisconsin-Madison대학교 Richard A. Rossmillen 교수를 초청하여 'Equity and Adequacy in the Provision of Education'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이돈희 원장과 한유경 국제협력부장(기획처)은 9월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제53차 교육위원회 및 제53차 교육연구혁신센터회의'에 참가하였다.

* 정태화 선임연구원(기획처)은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여성기술자 기업가정신 개발을 위한 지역분과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 9월 19일 이스라엘 교육·문화·체육부 차관보 Mr. Shimshon Shoshani의 3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한국 교육개혁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 강무섭 교육발전연구본부장은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대만에서 개최된 '대학 입시 정책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 조난심 도덕교과서개발특임부장(교육과정연구본부)은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가치교육·윤리교육에 관한 지역세미나'에 참가하였다.

* 최운실 교육정책연구4부장(교육발전연구본부)은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일본 삿포르에서 개최된 '평생학습과 대학 확장교육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 참가하였다.

교육과정연구본부

* 한국통신공사에서 공모한 초·중·고교 문재은행 데이터베이스(DB)개발 사업에 본원이 개발업체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초·중·고교의 각 교과별 학습 평가 문항을 제작하고, 대학입학시험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DB에 저장함으로써, 이 자료를 한국통신공사의 전산망을 통해 전국의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31일 본원 회의실에서 개발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교육과정연구본부의 각 교과연구부에서는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 중, 고교 학생용 국정교과서(국교 도덕, 국어, 사회, 자연, 음악, 미술, 체육, 중학교 국어, 사회, 고등학교 사회)의 실험본 및 정본의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자연과학교과연구부에서는 9월 15일 에너지관리공단 수탁과제인 「에너지 절약 조기교육용 VCR 프로그램 개발 연구」(95.8~96.8)

의 일환으로, '자료 개발 방향 및 체제 구안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국민학교 1~3학년 학생 및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환경 VCR 교육자료와 그 해설서가 개발될 계획이다.

* 어문교과연구부에서는 지난 8월 22일 원내의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학교 영어 학습자료 개발방향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교육발전연구본부

* 교육발전연구본부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경제 장기구상」의 교육정책부문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팀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이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8일에는 각계의 원로들을 모시고 교육정책반에서 수립한 핵심 교육과제에 대한 내용의 검토와 자문을 받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본원의 강무섭 교육발전연구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에 대해 김용선 인화원 원장, 김유배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진현 서울시립대 총장, 송영태 잠실중학교장,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 이무근 서울



대 교수, 이상주 울산대학교 총장 등이 지정토론을 했다. 이 정책 토론회에서는 재정경제원, 노동부, 교육부 등의 실무진 및 본 연구의 자문위원 등도 참석하여 자유토론을 하였다.

* 교육발전연구본부에서는 World Bank가 주관하는 Sri Lanka의 Educational Development Project의 일환으로 Sri Lanka의 교육·고등교육부 고위 관리들의 연수를 9월 11일에서 19일까지 실시하였다. 연수의 목적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육방법 교육행·개정, 학교운영 등의 측면에서 선진 기법을 교육하는 것이었으며, 4회 강의와 학교견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교육자치, 열린교육 등에 관한 심도 깊은 연수를 실시하였다.

* 교육기초연구3부에서는 '조기 특수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9월 5일(화), 본원 제1

회의실에서 '조기특수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대학교의 홍준표 교수와 본원의 이나미 교육기초연구 3부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숙명여자대학교의 김광웅 교수 등 4명의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지정 토론을 하였다.



아울러 기초연구3부에서 함께 수행중인 「유치원 교원 자격 연수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관련하여 유치원 교원 자격연수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및 교육과정(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9월 15일, 25일, 29일, 10월 10일에 각각 실시하였다.

* 교육정책연구1부에서 수행중인 「교육의 세계화 구상」 연구와 관련하여 중점과제 선정 및 방향 검토를 위한 협력 연구진 회의가 9월 20일(수)에 본원 연구동 403호실에서 실시되었다.

* 교육정책연구4부에서는 '교육개혁과 학부모'란 주제하에 학부모 교육 심포지움을 9월 16일(토) 한국프레스센터 기자 회견장에서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수도권 학부모 400여명이 참석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관련된 교육개혁안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정책연구4부에서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6명의 방글라데

시 교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교육개혁과 교육발전, 한국사회교육의 현황과 발전 과제, 직업기술교육과 경제발전, 한국의 문화교육 등에 관하여 강의 및 토론을 실시하였고, 일선 학교와 사회교육 기관 방문 등을 통한 사회교육 관련 연수도 실시하였다.

교육공학연구본부

* 국제 컴퓨터 통신 교실 21세기 프로젝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학교 교사들이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2차 교육을 8월 25일(금) 본원 제1회의실 및 컴퓨터 연수실에서 실시하였다. 한편 이

연구사업의 WWW homepage 구축(WWW://ns.kedi.re.kr/21st.html)을 하여 참여학교에게 개방하였다. 9월 19~9월 29일은 참여학교의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위한 2차 방문을 실시하였다.

* 학교 컴퓨터 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워크숍이 10월 16일 본원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을 통하여 컴퓨터 교육과정, 교육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시설·설비, 교원 양성 및 연수, 컴퓨터 교육 추진 조직, 교육 정보화의 여섯개 영역에서 정책 과제 및 실천 전략들이 도출되었으며, 계속 수정·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교육공학연구본부는 OECD의 요청에 따라 'OECD 내에서 성인교육을 위한 공학'이라는 주제하의 연구를 담당할 한국의 대표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나라의 첨단 공학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사례 연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멀티미디어, CD-ROM, 방송 통신, 화상 회의 등의 첨단 공학을 학습 전달 체제로 성인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계획 및 분석 단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 단계, 진행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단계를 중심으로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이다.

* '95 교육용 소프트웨어 저작 도구 연구 개발사업으로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의 이름이 '새빛 (SAEBIT: System Asisting Education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으로 결정되었다. 새빛은 미래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95 교육용 소프트웨어 저작 도구 연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장 교사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저작 도구 검토 협의회가 9월 23일에 있었다. 이 연수회에서는 전국에서 40여명의 현장 교사와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여 '새빛'의 개선 요구사항을 협의하였다.

* 과학기술처의 요청으로 수행중인 「교육용 컴퓨터의 하드웨어 사양 정의」에 관한 1차년도 연구를 완료하여 과학기술처에 보고하였다.

* '95년도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하나인 사고력(과학적 탐구력, 수학적 문제 해결력, 논리력 신장) 프로그램, 교과 교육용 프로그램, 교무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총 30편의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래밍 용역 의

뢰 계약이 8월 2일에 2개월의 기간으로 (주)프로텍소프트웨어 외 5개 업체와 체결되었다.

'95년도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하나인 「교사를 위한 코스웨어 설계 일문서」의 원고 집필을 완료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 4기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요원 일반 연수에 현장 적용할 예정이다.

* 정보교육지원부에서는 9월 29일까지 일선 컴퓨터 교육 관계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 장학 소양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는 컴퓨터 활용 실무, 컴퓨터 교육 장학지도 실무, 학교 컴퓨터 교육정책 실무로 이루어졌는데, 연수를 마친 장학사님들은 이러한 연수 기회가 더욱 더 확대될 것과 아울러, 연수 시설·설비, 숙박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연수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하였다.

교육자료정보본부

* 교육부 수탁 과제인 「교육현장 연구 정보 서비스 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가 본원, 교육부 및

(주)삼보정보시스템 등의 관련 인사가 모인 가운데 8월 18일 교육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연구 진척 보고와 시범용 현장연구정보 DB시스템의 시연회가 있었다. 10월에는 현장연구정보 DB시스템의 입력 및 검색프로그램 메뉴에 대한 검토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 현재 본원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기획단의 '95 초고속 공공 응용 서비스 개발사업의 하나인 「교수-학습 자료 DB 시범 개발사업」을 전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본 연구부에서는 DB화될 교수-학습자료의 수집 및 입력을 담당할 현장연구교과 32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9월 13, 14 양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월례보고회가 본원, 교육부, 한국전산원 및 (주)한일정보통신 등의 관련인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5일 교육부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음 월례보고회는 10월 5일에 본원에서 열렸다. 9월 26일에는 현장연구교사들의 학습요소 분석자료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는데, 이 협의회에는 본 연구진, 자연교과전문자로 구성된 실무위원 및 현장연구교사가 참석하였다.

* 교육지표 데이터베이스인 KEIS(KEDI Educational Indicator

System) 구축을 위해 본 연구부는 9월 18일(월), 한국교육대학교의 KEIS 개발팀과 DB스키마 및 개발일정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그리고 9월 22일에는 '한국교육의 발전지표'(가제)의 실무위원과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KEIS 데이터 베이스 구축 추진 진도에 대한 보고회가 열렸으며, '한국교육의 발전지표' 체제 검토 및 자료 수록 계획에 대해 협의하였다.

방송통신교육본부

* 방통고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고교 졸업학력을 인정해 주기 위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이 11월 5일(일) 전국에 걸쳐 실시된다.

졸업학력인정 평가시험의 응시 과목은 국어, 국사, 수학 및 영어이며 각 과목당 40문항(수학은 25문항)이 출제된다. 이 시험은 본원과 각 학교가 과목당 50%씩 공동 출제하고 있다.

* 방송통신고등학교 워크숍이 '교육환경의 변화와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개혁 방안'이란 주제로 10월 12일, 13일 양일간 경주 코오롱 관광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에는 방통고 주임교사와 각 시도교육청 담당장학사, 교육부 사회교육진흥과 담당 관계자, 본원 관련 연구원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김동식 한양대학교의 기초 강연과 4개의 분과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주로 현재 방통고의 문제해결 방안과 멀티미디어 시대에 방통고의 대응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직업기술교육연구특임본부

* 공고 「2·1 체제」 전문교과서 50책의 개발을 위한 원고본 검토 협의회가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실시되었으며, 이 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서 개고본 작성이 완료되었다. 10월에는 전문교과서 개고본의 현장 검토 및 최종 검토 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전문교과서에 게재될 삽화, 도면, 사진 등이 제작되어 10월 말에 인쇄를 의뢰할 예정이다.

* 6개 시범 학교와 12개 시범 산업체의 공고 「2·1 체제」의 전반적 운영 방침과 실천 사례, 그리고 공업 교장과 15개 시도 담당 장학사를 초청하여 공업교육 발전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 협의

회에서 본원 장석민 본부장은 「공업계 고교 교육체제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고 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10월에는 그동안 공고 「2·1 체제」 시범 학교·산업체를 운영한 실제 자료를 중심으로 11월에 있을 공고 「2·1 체제」 운영 세미나에 대비하여 자료를 제작할 예정이다.

* 공고 「2·1 체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학교, 「공고 「2·1 체제」 운영협의회」가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서 지역별로 개최되었다. 협의회 장소는 지역 상공회의소였으며, 협의회 참가자는 공고계 고교 교장 및 담당 교사, 산업체 대표 및 훈련 담당자들이고,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원, 교육부, 통산부, 노동부 등 4개 부처 담당 과장 및 담당자가 참석하여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운영을 위해서 본원 장석민 본부장과 이용순, 강종훈 팀장이 운영의 실재를 발표하였다.

* 금년도 공고 「2·1 체제」 전문교과 교수·학습용 영상 자료 제작을 위해 제작업체 선정 작업을 실시하여 한국브이티알 등 3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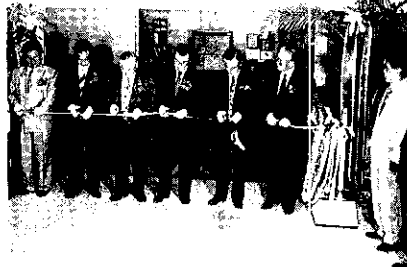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 서울특별시 교육자료 전시회 개최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감: 이준해)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원장: 박찬구)이 주관하는 제29회 서울특별시 교육자료 전시회가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국립 서울과학관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교육 자료의 제작, 보급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한편, 제작한 우수 교육자료를 전시·관람함으로써 교원들로 하여금 현장교육 발전에 동참토록 하는 데 근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전시회의 추진 과정을 보면, 지난 3월 11일에 246편의 제작 계획서가 접수되어 185편이 예심을 통과하였으며, 5월 10일부터 12일까지의 중간 지도 과정을 거쳐 제출한 작품을 심사한 결과 특상 38점, 우수상 57점, 장려상 84점 등 모두 169점이 입상하였

제29회 서울특별시 교육자료 전시회



다.

한편 '제 3회 교육방송 연구대회'도 동 행사와 함께 열렸는데 이 대회 역시 예심을 통과한 19편의 작품 중 최종 심사를 통과한 우수 작품 15편이 전시되었다.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 국제이해 교육자료 발간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사실과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사회과 교사용 지도서인 '지역화 교수-학

습 지도자료'를 발간하여 '95. 9. 1중학교 사회과 교사들에게 각 1권씩 배부해 학생들의 학습지도에 활용토록 했다.

이 지도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향토 주변의 다양한 자료를 교과단원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토관련 단원을 교사들이 보다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중학교 사회과 전학년 교과서 단원 내용 중 부산 지역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탐구' 등 9개 단원을 선정하여, 매 단원마다 지역화 교수-학습 지도안으로 '학습목표, 학습자료, 학습개요'를 작성하고 교수-활동의 전개를 문제인식, 문제파악, 문제해결 및 적용 발전의 단계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단원마다 지역사회를 찾아 구체적 경험으로 학습 내용을 스스로 심화·보충할 수 있도록 탐구 학습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과와 관련된 향토자료를 분류하여 '지역사회 조사, 부산지도 읽기, 부산의 자연 및 인문환경, 미래계획, 향토의 지역 및 국제경

제, 부산의 환경문제, 부산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국제화 시대의 부산' 등으로 교재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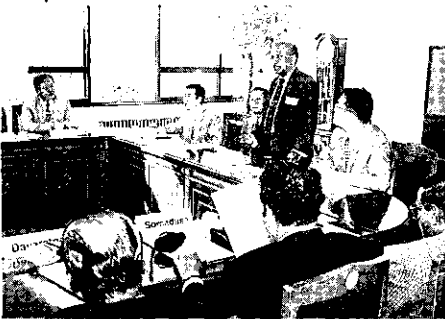
□ 국민학생 진로교육 읽기자료 발간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고 직업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직업들이 상호 의존되어 있는 점을 이해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국민학교의 진로인식단계 지도를 위하여 읽기자료 '꿈이 열리는 나무'를 발간하여 시내 전 국민학교에 50부씩 배부, 학급별로 윤택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자료는 삽화를 가미한 만화 형식의 자료로 아동들에게 신선감을 주었다.

대구광역시 교육연구원

□ 스리랑카 교육부 고위 관리자 방문



지난 9월 15일, 스리랑카 교육부 고위 관리자 일행 14명이 본원을 방문하였다. 인도 반도 남동쪽에 자리한 작은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문맹률이 13%나 되는데, 이들에게는 본원의 여러 시설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비춰졌다.

전산실, 과학 탐구 학습장, 전력관, 실험실, 천체 투영실 등을 둘러볼 때마다 세세한 곳까지 관

심있게 묻고,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 '95과학 전람회 및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

제41회 전국 과학 전람회에서 본원의 지도하에 출품된 작품들이 대거 수상하는 쾌재를 올렸다. 국무총리상 1점을 비롯하여 특상 6점, 우수상 6점을 수상하여 3년 연속으로 국무 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한편, 제17회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도 금상 1점, 은상 5점, 동상 6점을 받아 15개 시·도 중에 종합 성적 1위를 차지하였다.

대전광역시 교육연구원

□ 「한발교육」 제12호 발간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요즘, 「인성교육」을 특집으로 한 「한발교육」 제12호를 발간하였다.

특집에는 유, 초, 중, 고교에서의 인성교육의 방향과 목표, 가정과 사회에서의 인성교육, 독서지도 및 진로지도 등을 통한 인성교육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한발교육」 제12호는 도덕성이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는 요즘의 사회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하나의 처방서가 될 것이다.

□ 「대전진로교육」 제9호 발간

「올바른 진로관의 정립」을 특별 기획 주제로 정하여 충남대학교 주삼환 교수의 「올바른 진로선택」이란 논문을 비롯, 초·중·고등학교 진로상담 교사들의 진로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엮었다. 4·6배판 24면 4,000부를 발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하였다.

□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작성자료」 발간

학업성취도 평가문항은 수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교사가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출제에 임해서 교육목표에 제시된 행동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육목표 분류학의 지적 영역인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6개 행동 특성을 쟁수 있는 평가문항 작성 방법과 그 사례를 중학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5개 교과를 중심으로 예시하였다. 본 자료는 교사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작성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제2차 보수교육 실시

지난 9월 20일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제2차 보수교육을 본원 7층 강의실에서 가졌다. 강사는 청소년 대화의 광장 박경애 박사였으며, 내용은 「인지상담 기법」에 관한 것이었다. 수강자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170명으로 매우 진지한 연수였다.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원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교육 지도자료



광주학생 독립운동 정신교육 지도자료 발간·배부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승고한 정신을 학생 문화의 뿌리로 정착시키고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승화시켜 민주시민 정신을 기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광주학생 독립운동 정신교육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지난 9월 30일 관내 중·고등학교에 학급당 1부씩 배부, 학생지도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1장은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개관과 의의, 지도 목적을 제시하고, 제2장은 지도의 실체로서 중·고등학교로 나누어 국사(사회과)과 관련 교과, 특별활동, 방송, 명상 시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실었으며 제3장은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3개교의 실천 사례로 엮었다. 한편, 이 자료의 활용은 광주 지역 학생들에게 향토애와 높은 자긍심을 심어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1회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과학기술처에서 주최하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한 제 41회 전국과학전람회에 각 지역에서 예선을 거친 293점이 본선에 출품되었는데, 본원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8회에 걸쳐 지도하여 출품시킨 17개 작품 중에서 지구공학 부문의 학생작 '무등산 상고대에 관한 우리들의 탐구'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특상 7작품, 우수상 5작품, 장려상 4작품 등 출품작 모두가 수상하여 과학 광주를 전국에 과시하였다. 특히 대통령상은 1991년과 1992년 연속 수상한 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멀티미디어 교육실 및 개발실 운영

교단 선진화 사업의 연차 계획에 따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CD-ROM으로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 교수·학습에 활용할 목적으로 멀티미디어 교육실과 개발실을 설치하고 있다.

개발실과 교육실에는 개발교육용 멀티미디어 컴퓨터 22대와 개발용 7대, 교수장비, 영상 촬영 및 편집을 위한 장비, 녹음스튜디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된

다.

한편, 멀티미디어 교육실과 개발실의 설치가 완료되면 멀티미디어 개발을 위한 교사 교육을 40명씩 3개월간 실시할 계획으로 이 교육을 이수한 우수한 인력은 팀을 구성하여 멀티미디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CD로 개발하게 된다. 기존의 오디오나 비디오와 달리 화상, 음성, 문자 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상호작용시킬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활용은 수업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자료개발 연구원제 운영

본원은 일선 학교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자료 제작에 따른 정보 제공과 제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우수한 교사 24명을 선발, 자료 개발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료 개발 연구원들은 필요시 일선 교사가 직접 자료를 제작해 갈 수 있도록 각종 공구 등 시설을 갖춘 자료제작실에서 매주 목요일 모임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국민학교 4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따른 영상 자료 및 TP자료를 차시별로 개발, 셋트로 보급할 계획으로 자료 제작에 전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교육연구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일선 학교에서 학습자료 및 교수·학습의 개선, 그리고 교육행정 사무 전산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

육소프트웨어 공모를 한 바 109편이 출품되었는데, 대다수가 젊은 교사들의 작품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학습자료로 즉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이다. 이것은 차세대 교사들의 교수열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인천 교육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다. 예심은 10월 9일과 11일 사이에 있을 예정인데, 엄선된 최우수작은 전국교육용 소프트웨어전에 출품할 예정이다.

□ 연구·실험·시범학교 보고회

교육부 및 시교육청 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가 운영계획에 따라 모두 36개교가 지정되어 운영되었는데 연차적으로 보고회를 갖고 있다.

9월 28일에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인 인천 석천국민학교에서 '융통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라는 주제로 보고회를 가졌는데, 이제까지 '학교 교육계획'에 길들여져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학교 교육의 효율을 높이고 제6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살려 과거의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벗어나 모든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학교 실정에 알맞은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학교의 특색에 맞는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편성된 교육과정을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간, 장소활용, 교사조직, 주제선정 등에 따라 어떻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9월 26일에는 인천 선학국민학교에서 시 지정 '교육방송

시범학교' 2년차 공개보고회를 마쳤다. 연구주제는 'TV교육방송 프로그램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 지도방법의 개선'으로 방송시설의 현대화와 프로그램의 차시별 자료화가 돋보였으며, 학교에서의 방송시설 기준안을 예산별로 3개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일선학교에서 방송시설 설치시 참고하게 하였다.

□ '95제 15회 인천광역시 교육자료전 및 제10회 유아 교재·교구전시회 개최

금년의 교육자료 전시회에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유아 교재·교구 전시회가 합동으로 열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일선 교사들이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교실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속속 개발하여 출품하였는데, 금년에는 교육자료전에 109편, 유아 교재·교구전에 83작품이 출품되었다.

그중 최우수작 14편을 11월에 있을 전국교육자료전시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연구원

□ 「경기교육」'95, 가을호 발간

경기교육의 질적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경기교육」가을호(통간128호)를 9월 22일 발간, 보급하였다.

이번 호에는 「인간교육」을 특집으로 하여 기획좌담회의 인간교육의 구현방향, 세계화를 위한 인간교육과 그 과제, 가치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 개선 방향, 도덕규범 실천의 생활화 지도 등을 제시하여 인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였다.

□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제8집 발간

교사와 학부모는 청소년들이 바른 정신을 갖고 바른 행동, 바른 습관, 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감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교사와 학부모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고 지혜의 길잡이가 되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제8집을 발간하여 모범의 교본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49회 「상설교육강좌」 성황리 개최

본원에서는 교직원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월 1회씩 상설교육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9일 도내 교장, 전문직 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김종선 교수의 「현대인과정진전강」이란 주제의 강좌가 성황리에 열렸다.

□ 「진로교육정보」 제11호 발간

교사들에게 진로교육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 8월 25일 진로교육 자료로 「진로교육정보」 제11호를 발간, 보급하였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고등학교 계열선택을 위한 진로상담」을 다루어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정보를 실었고, 교육정보와 취업정보 그리고 유망직종 등을 소개하여 진로교육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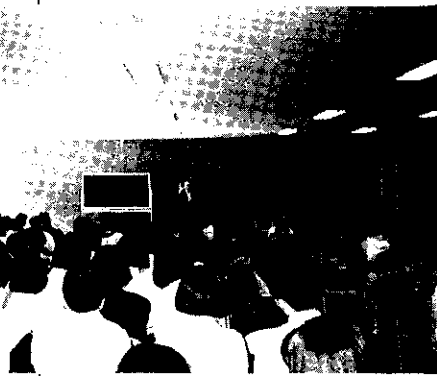
□ 「대학입학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발간

본원에서는 지난 9월 25일 진

로교육 지도자료로 「대학입학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의 책자를 발간 하였는데, 대학입학제도 방안의 개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선안, 종합생활기록부 구안 및 기재요령, 주요기업 입사시험의 동향, 공무원 시험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아 일선학교에서 진로지도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북 교육연구원

□ 진로교육 순회 특강 실시



올바른 진로 선택에 대한 식견을 넓혀서, 장래 자신의 진로와 자녀들의 진로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충청북도 교육연구원에서는 일선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로 선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5. 3. 2부터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26개교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성격에 맞는 진로지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계열 선택 문제와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자녀 진로지도에 대한 의식 전환 문제

등의 진로교육 순회 특강을 70회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학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진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진로교육 순회 특강에 대한 좋은 호응과 요청을 받고 있다.

충남 교육연구원

□ 「나의 꿈 나의 길」 발간, 보급

충청남도 교육연구원에서는 「나의 꿈 나의 길」이라는 진로교육 자료를 발간하여 도내 국민학교에 보급하였다. 이 자료는 선조들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실제 인물들의 성공한 이야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 등 진로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어린이들을 감화시키고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하였는데 국민학교 학생들의 진로 인식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내 고교 학력검사 시행

충청남도 교육연구원에서는 9월 20일(수)에 도내 69개 일반계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검사를 실행하였다. 고 1,2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와 고 3학년은 '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준하는 문제를 작성하여 실시함으로써 교내 장학 및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특히 주관식 문항을 배점의 40% 내외에서 출제하여 학생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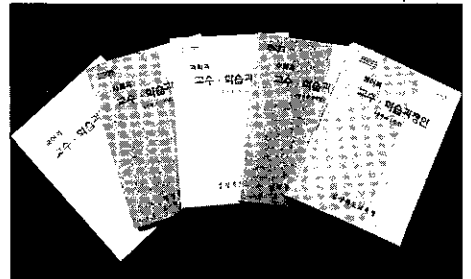
고등정신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한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평가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였다.

경북 교육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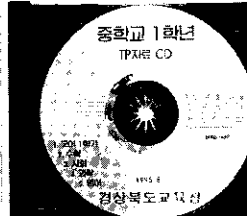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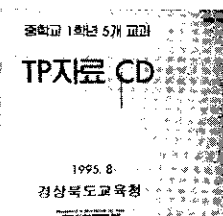
□ 중학교 1학년 교수·학습 과정안

TP자료 CD-ROM 개발, 보급

경북 교육이 추구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은 생동감 넘치는 학교 경영을 통하여 학교 본연의 모습을 찾아 나가려는 데 역점을 두고 '93년도부터 각급 학교에 교수기기 보급에 특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제6차 중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중 1학년) 5개 교과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안과 TP자료 CD-ROM을 개발·보급하였다.



● 5개 교과 교수·학습 과정안



● 5개 교과 TP자료

경남 교육연구원

'95경남 교원 자생 연구회 세미나 개최

경남 도내 초·중·고 교원들의 순수 자생 연구회 세미나가 「교육 개혁 주체로서의 교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경남 의령 학생 체육관과 남산 국민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민선 강신화 교육감 취임 이후 도내 교원 자생 연구회를 발굴, 경상남도 교육연구원에 등록케하여 해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장 교육의 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의욕 고취, 꿈을 심는 교육, 전인적 인간 육성을 위한 교육 방법 및 경남교육 발전과제 모색, 교육 개혁 주체로서의 역할 인식과 자기 발전 의지 배양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교육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 늘 푸름회, 외룡 교우회, 김해 교원 컴퓨터 연구회 등 36자생 연구회 회원 약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앞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과 관련된, 마산 성호국민학교 강광중 교장의 「교육개혁-그 성공

을 위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특강에 이어, 학교 재량 시간 편성 운영, 책가방 없는 날 운영, 이동학교 운영, 시상제 운영, 인성 및 창의성 교육에 관한 분과 협의와 전체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자생 연구회 별로 사례 발표가 있었다.

'95전국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찬회 개최



교육부 주최 '95.전국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찬회가 경상남도 교육연구원 주관으로 9월 14일 오후 3시부터 덕유교육원에서 1박 2일 동안 실시되었다. 지역사회 고학력의 유능한 자원 인사를 학생 상담활동에 참여시켜 학교의 상담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우학생 및 결손 가정의 학생을 격려하고, 날로 심해지는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도모 및 적성에 알맞는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운영은, 사회의 학교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학교에 확대 실시해야 할 시점에 있다.

올해 여섯번째로 열리는 전국 연찬회는 그동안 학생 상담활동

유공자 108명에게 교육부장관의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상담기법의 향상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도 교육연구원

진로교육 연수 개최

8월 25일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에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진로·상담주임 교사 및 업무담당교사 68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개최하였다.

제주도 「진로교육」 21호 발간

「진로교육」 21호를 발간하여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1부씩 2,100부를 배부,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연구학교(실험·시범) 입장지도

교육부 및 도 지정 연구학교 초, 중, 고의 공개보고회를 앞두고 9월 10일~26일 사이에 연구학교를 방문하여 입장지도를 가졌다.

국민학교 학력평가 분석자료 간행

7월 4일 전도 국민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학력평가에 대한 결과 분석 자료를 간행하여 도내 국민학교에 보급하였다.

국민학교 자연과 영상자료 제작

6차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따라 국민학교 자연과(3-1) 영상학습 자료를 차시별 투입이 가능하도록 촬영과 편집이 완료된 상태이며 더빙만 남아, 내년 2월말까지 복제를 완료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행 출판 자료 목록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국민학교 특활영어	배움책(상)	6,000	대한교과 서(주) (02) 3451 -3861	민주시민 교육자료	우리와 나(국민학교 3-4학 년 학생용)	1,600	대한교과 서(주) (02) 3451 -3861	
	배움책(중)	6,000			우리와 나(국민학교 3-4년 지도서)	2,600		
	배움책(하)	6,000			우리와 나(국민학교 5-6학 년 학생용)	1,600		
	지도서(상)	2,500			우리와 나(국민학교 5-6학 년 지도서)	2,400		
	지도서(중)	2,700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학생용)	1,600		
지도서(하)	2,800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지도서)	3,100					
배우며 생각하며 (국민학교용)	배움책(1-2)	4,8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지도서)	2,900		삼화출판 사 (02)776 -6687 ~8
	배움책(3-4)	4,0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용)	2,400		
	배움책(5-6)	3,700			민주사회 학생지도서 민주적 학교운영(총지침서)	3,800		
	지도서(1-2)	3,300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한국 교육의 과제	4,500		
	지도서(3-4)	3,600		성교육자료	아직도 야기라고요 (국민학생용)	2,000		
지도서(5-6)	3,200	어른이 되니봐요(중학생용)	2,500					
배우며 생각하며 (중학교용)	배움책	2,700	우리는 예비어른 (고등학생용)	2,900				
	지도서	3,400	우등생이 되 기 위한 글 읽기(국민 학생용)	중심내용 파악 학습전략	1,800			
생각하는 산수공부 (국민학교용)	1-2학년용	2,500		자기점검 학습전략	1,200			
	3-4학년용	4,700		관계짓기 학습전략	1,200			
	5-6학년용	4,700		정교화 학습전략(Ⅰ)	1,700			
생각하는 산수공부 (국민학교용)	(1-2학년) 상	1,300		정교화 학습전략(Ⅱ)	1,900			
	중	1,100	읽기학습전략훈련지침서	1,200				
	하	1,400	환경교육자 료(국민학 교용)	즐거운 환경탐구 (1,2학년용)	1,500			
	(3-4학년) 상	1,800		재미있는 환경탐구 (3,4학년용)	1,700			
	중	1,600		보람찬 환경탐구 (5,6학년용)	1,900			
	하	17,000		환경탐구 시리즈 (교사용 지도서)	3,200			
	(5-6학년) 상	1,700		영재교육자 료	이야기나라 (국교 3,4학년용)	1,400		
중	1,900	추정의 세계(")	1,200					
하	1,900	사람들이 사는 곳(")	1,700					
하	1,900	자식에 관한 연구(")	1,100					
생활경제 학습자료 (국민학교)	저하마을의 전설	1,400	대한교과 서(주) (02) 3451 -3861	미술감상(")	1,600			
	태호와 드송	1,500		민주시민 교육자료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학생용)	35,000		
	내일은 야구왕	1,500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지도서)	3,300		
	육망과 선택	1,500			우리와 나(국민학교 1-2 학년 학생용)	1,300		
	동수의 병	1,400			우리와 나(국민학교 1-2 학년 지도서)	2,200		
	화해	1,300			성교육자료	아직도 야기라고요 (국민학생용)	2,000	
	아루코부족과 무역선	1,500		어른이 되니봐요(중학생용)		2,500		
	쟁구의 물가비행	1,400		우리는 예비어른 (고등학생용)		2,900		
	한지붕 두 마음	1,300		우등생이 되 기 위한 글 읽기(국민 학생용)		중심내용 파악 학습전략	1,800	
	물고기의 교훈	1,400				자기점검 학습전략	1,200	
지도서(상)	500	관계짓기 학습전략	1,200					
지도서(하)	400	정교화 학습전략(Ⅰ)	1,700					
		정교화 학습전략(Ⅱ)	1,900					
민주시민 교육자료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학생용)	35,000	대한교과 서(주) (02) 3451 -3861	읽기학습전략훈련지침서	1,200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지도서)	3,300		환경교육자 료(국민학 교용)	즐거운 환경탐구 (1,2학년용)	1,500		
	우리와 나(국민학교 1-2 학년 학생용)	1,300			재미있는 환경탐구 (3,4학년용)	1,700		
	우리와 나(국민학교 1-2 학년 지도서)	2,200			보람찬 환경탐구 (5,6학년용)	1,900		
					환경탐구 시리즈 (교사용 지도서)	3,200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영재교육자료	교사용지도서(")	2,500	삼 화 출 판 사(02) 776 -6687 ~8
	신문기사(국교5,6학년용)	1,000	
	확률의 산비(")	1,100	
	우리나라의 풍습(")	1,400	
	깨끗한 물(")	1,100	
	동요만들기(")	1,800	
	교사용 지도서(")	3,300	
	에너지와 우리생활(중학 생용)	1,400	
	전기과 그 이용(")	1,200	
	인간과 생태계(")	1,000	
	바다의 산비(")	1,100	
	우리가 사는 지구(")	1,300	
	교사용 지도서(")	2,800	
수학과 학습자 료(중학생용)	수학 문제 해결의 지혜 (1학년용)	3,200	
	(2학년용)	2,700	
	(3학년용)	2,700	
영어능력신장자 료(중학생용)	영어 읽기	3,300	
	영어 쓰기(1)	2,700	
	영어 쓰기(2)	2,000	
	영어 쓰기(3)	2,100	
한국교육개발원 집단지능검사	국민학교용(A형)	750	한 국 적 성 연 구 소 (02) 515 -5722 (02) 515 -5725
	국민학교용(B형)	750	
	중학교용(A형)	750	
	중학교용(B형)	750	
	고등학교용(A형)	750	
	고등학교용(B형)	750	
	대학교용(A형)	750	
	대학교용(B형)	750	
	국민학교용 추가검사	750	
	중학교용 추가검사	750	
고등학교용 추가검사	750		
진로성숙도검사	중·고등학생용	750	
과학적 사고기 능 검사도구(국 교 5년~중교 2 년)	논리적 사고검사	750	
	탐구기능검사	750	
아동용 개인 지능검사 (KEDI -WISC)	만5세~만15세	104,000	도서출판 특수교육 (02) 812 -0348
기초학습 기능검사	만5세 국교-6학년용	184,000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유아교육 학습자료	자료A(색막대놀이외2종)	231,000	국민서관 (02) 710 -7751
	자료B(곰돌이 도미노외 10종)	132,000	
	자료C(그림수찾기외9종)	110,000	
	자료D(바둑판게임외7종)	187,000	
언어교육 활동자료		165,000	
한국교육 영인본		150,000	하우기획 출판 (02) 268 -4417

[KEDI 도서회원] 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 NO. _____

구독자(기관) 주 소	우편번호 -		
개인의 경우	구독자 성명		전화번호
	근무처		직 위
단체 의 경우	구 독 단체명	대표자명 ()	전화번호
구독구좌수	구좌 (신규, 재가입 : 년도회원)		
회 비 ■ 가입 년회비 (1구좌당) : 60,000 원	<p>○ 납 입 처 :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p> <p>○ 송 금 액 : 원</p> <p>○ 송금 년월일 : 199 년 월 일</p> <p>○ 송 금 자 명 :</p>		
<p>본인은 상기와 같이 귀하의 도서회원으로 가입코자 합니다.</p> <p>199 . . .</p> <p>신 청 자 (개인, 단체) (인)</p> <p>한 국 교 육 개 발 원 장 귀하</p>			

[KEDI 도서회원] 안내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교육의 종합적인 연구 산실로서 각종 연구 보고서와 교육 교재 및 학습 자료 등의 간행물을 계속하여 발간 배부함으로써 한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본원의 연구 산출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육 관계자 및 기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87년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각종 간행물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회원에 대한 특전

- (1)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6 회), '한국교육'(연 1 회) 우송
- (2) 당해년도 '연구보고서' 20 종~25 종(발간 즉시 우송)

2. 연도별 회원제

회원자격은 1년간 주어지며, 가입년도에 본원이 수행한 정규 연구보고서(매년 3월중 발송)와 정기 간행물을 받으실 자격이 주어짐.

3. 가입 방법

가입 신청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하면 됨.

4. 연 회 비(1 구좌당)

- 가입 년회비 : 60,000 원

5. 회비 납부 방법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입금.

6. 문의처 : 우편번호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정보센터 출판부(대표전화 572~5121, 교환 408)

◎ 가입신청서는 이면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거나 복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입신청서'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교육의 미래를 여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의 미래를 여는 한국교육개발원”